



主人精神으로

태권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本分과 주어진 使命을 自覺하고 國民健康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身命을 바쳐 努力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태권도는 國內外的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試鍊과 挑戰속에서도 合心하여 즐거움에 해쳐 나왔고 앞으로도 잘 克服해 나아갈 것입니다.

海外的 師範들은 透徹한 愛國心과 韓國人의 矜持로 어려움을 잘 克己하고 있으며 國內의 사범들도 묵묵히 맡은 任務를 充實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歷史를 살펴보면,

時代的 要請과 變化에 즐거움에 對應해 온 民族만이 민족사를 守護하였고 발전시켰음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태권도는 大過없이 昨今에 이르렀으나 보다 發展을 위하여서는 時代가 要求하는 變化가 무엇인가를 冷徹히 判斷하여서 舊態依然한 자세가 있다면 果敢하게 벗어나려야 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開拓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歷史의 主體가 自己임을 認知하고 冷嚴한 立場에서 自己反省과 果敢한 自己改造를 하여야 하며, 구태의연한 積習을 벗기는 데의 아픔과 多少의 損失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어내야만 새로운 모습의 새 생명이 탄생하리라 봅니다.

歴史의 主體가 되자!

대한 태권도 협회장 김 윤 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改善作業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솔선수범하며,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한가지가 곧 태권도 발전에 直結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基盤위에 다시 한번 跳躍하여 國技태권도의 價値觀을 再定立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에 從事하는 모든 任員은 사범들 위에 君臨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先導的 役割을 하는 태권도가족의 公僕으로 奉仕하는 자세로 일을 할 때 태권도인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탄탄한 태권도의 來日이 保障되리라 믿습니다.

태권도는 저변확대가 잘되어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태권도인의 精神姿勢와 가치관이 確立되어 있지 않으면 더이상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없음을 自覺하고 태권도 宗主國으로서의 진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精進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우리 모두 태권도의 主人이 되어 태권도 새 역사 創造에 主體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태권도가족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理想的 韓國人像 定立(Ⅱ)

安秉煜교수



□ 目 次 □

- | | |
|---------|---------|
| 第一章 序 論 | 第五章 勇 |
| 第二章 誠 | 第六章 樂 |
| 第三章 和 | 第七章 結 論 |
| 第四章 明 | |

第三章 和

인간은 關係의 存在다.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意味深長하다. 왜 사람人字 밑에 사이 間字를 쓰느냐. 인간의 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間은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間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누구나 父子之間, 母女之間, 夫婦之間, 師弟之間, 兄弟之間, 姑婦之間, 上下之間, 新舊之間, 同胞之間 등 여러 間속에서 살아간다. 間을 떠나서 인간은 절대로 존재

할 수 없다. 사람을 단순히 人이라고만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한 것은 인간 存在의 根本을 명시한 말이다. 비록 고아라고 할지라도 부자지간, 모녀지간이 존재한다. 間은 關係요 社會性이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基本倫理가 무엇이나. 그것이 和다. 인간과 인간사이에는 和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상적 한국인상의 第二의 속성으로서 나는 和의 원리를 강조했다. 화는 평화의 화요, 人和의 화요, 家和의 화요, 調和의 화요, 화목의 和요, 和悅의 화다. 우리의 마음에는 心和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家和가 있어야 하고 인간사이에는 人화가 있어야 하고, 세계에는 平和가 있어야 하고, 存在에는 조화가 있어야 한다. 佛教는 慈悲를, 기독교는 사랑을, 儒敎는 仁을 강조했다. 나는 그것을 和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화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德이다. 우리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 사이에 和의 秩序, 화의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 和야말로 인간의 理想의 한 표현이다. 和의 倫理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로 세계에는 평화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平和世界의 건설은 인류의 久遠한 이상이다. 나라와 나라사이에 평화의 秩序가 있어야 한다. 유교는 그것을 平天下라고 했다. 核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전멸한다. 전쟁의 방지는 인류의 最大의 課題다. 「戰爭을 발명한 자에게 咀呪가 있으라」라고 平和의 哲學者 버트랜드 러셀은 외쳤다. 전쟁의 방지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의 철학과 종교를 심는 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의 방과제를 구축해야 한다. 총과 칼이라는 살인전쟁의 武器를 모두 불에 녹여서 화와 삶이라는 產業과 평화의 도구로 鑄造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해달라고 옛날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神에게 간구했다. 이것은 또한 현대인의 悲願이요, 기도요, 希求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制度的 裝置로서 인류는 國際聯盟과 국제聯合을 창설하고 世界平和運動을 일으켰지만 인류의 평화는 요원하다. 칸트는 永久平和論을 제창했다. 모든 위대한 哲學과 宗教가 평화의 悲願을 역설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둘째는 人和다. 서로 화목한 人間關係를 이루어야 한다. 일찌기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孟子, 公孫丑下)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무리 天時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地利를 얻지 못하면 그 일이 성취될 수 없다. 또 아무리 지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인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天의 時와 地의 利는 중요하지만 人의 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화와 協同이 무너지면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개인의 사업도 그렇고, 기업 組織도 그렇고, 국가의 經營도 그렇다. 나라의 興亡盛衰와 事業의 榮枯成敗는 인화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국가건, 和는 興과 榮의 원리요, 不和는 亡과 衰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는 협동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세상에 協同訓練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우리 민족은 그렇다 智慧의 스승인 孔子는 이렇게 말했다. 德不孤必有隣(論語, 里仁篇)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고립되거나 외롭지 않다. 반드시 共鳴者가 있고 협조자가 있다. 인화를 얻는 根本은 德이다. 덕이 있어야 인화가 이루어진다. 타인과 인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讎讐, 我執, 獨善, 교만, 배타, 閉鎖性이 강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協同社會의 협동인이 되어야 한다. 寬用과 아량과 理解心과 謙讓과 開放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남과 인화를 이룰 수 있다. 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덕을 쌓

아야 한다. 학은 이렇게 말했다.

德者本也, 財者末也,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大學, 傳十章)

덕이 인간의 근본이요, 재물은 인간의 말단이다. 이것이 德本財末思想이다. 재물은 인간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덕을 인간의 말단으로 생각할 때 人生觀의 倒錯과 가치관의 轉倒가 생긴다. 재물이 넉넉하면 우리의 가옥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덕이 많으면 우리의 人格을 윤택하게 한다.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여유가 생기고 성격이 활달해진다. 옳은 말을 하는 立言도 중요하고 훌륭한 事業을 하는 立功도 중요하지만 立德이 가장 중요하다고 左傳은 지적했다.

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立德이 최고요.立功이 그 다음이요, 立言은 제일 밑이라고 하였다. 덕을 쌓고 훌륭한 인격을 건설하는 것은 立德이라고 한다.立德은 인간의 생애의 根本의 事業이다. 세상에 人格建設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德의 소유자가 人和를 이루고 타인과 원만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論語는 이렇게 말했다.

和爲貴.

人和가 가장 중요하다. 인화의 파탄은 조직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째는 家和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基礎集團이요, 인생의 安息處요, 도덕의 學校요 性格形成의 道場이다. 그래서 古人은

家和萬事成

이라고 했다. 가정이 화목해야만 만가지 일이다 잘 이루어진다. 평화로운 家庭建設은 인간의 神聖한 義務다. 세상에 가정관리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齊家是 治國의 근본이다. 사회의 基本器位인 가정이 붕괴될 때, 전전한 사회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현대의 많은 불행과 비극은 가정의 붕괴와 解體에서부터 시작한다. 家和는 인간의 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네째는 心和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처럼 긴요한 것이 없다. 심화는 모든 和의 根幹이요 시발점이다.

古代 회담의 철학자들의 最大關心事는 아파테

이아(apatheia)요 아타락시아(ataraxia)였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 시기, 질투, 분노, 탐욕, 激情, 공포 등의 劣等感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태연자약한 不動心의 경지가 아파테이아다. 감정의 불안과 동요와 혼란이 없는 정신의 평정이 아타락시아다. 모든 高等宗教가 추구하는 究極目標은 最高의 心和의 경지다. 安心立命과 열반과 解脱과 천국과 救援은 마음의 평화가 최고도로 이루어진 경지다.

나는 한국인의 이름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 우리 국민의 이름수에 가장 많은 것을 列擧하면 어진仁, 착할善, 순할順, 큰德, 길道, 은혜惠, 정성誠 등의 글자다. 모두 어질고 착한 道德性을 강조한 말이다. 우리의 國寶 第一號인 남대문이 崇禮門이요, 같은 국보인 東大門이 興仁之門이다. 禮를 숭상하고 仁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仁과 禮를 根幹으로 하는 높은 道義思想을 표현한 것이다. 또 서울의 거리의 이름을 보아도 같은 경향과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崇仁洞, 積善洞, 通義洞, 明倫洞, 惠化洞, 孝悌洞, 忠信洞 등이다. 仁을 숭상하고(崇仁) 善을 쌓고(積善) 人倫을 밝히고(明倫) 義에 통하고(通義) 부모에 孝하고 형제간에 의가 좋고(孝悌), 나라에 충성하고 서를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忠信) 교도의 倫理精神이 洞名이나 里名에 잘 나타나 있다.

옛날 中國인들이 우리를 가리켜 동양君子國이라고 하고 東方禮儀之國이라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禮는 사회의 行動秩序다.

우리는 평화를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하고 文化를 顯彰하고 도덕을 중시하는 훌륭한 정신적 傳統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의 國風이요, 國德이요, 國脈이다. 우리는 이 전통을 연綿일관하게 계승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唯物思想과 拜金主義와 利己風潮와 享樂思潮가 휩쓸기 쉬운 產業技術文明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우리는 道義忠, 倫理尊重的 정신적 전통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道義社會와 道義人이 되어야 한다.

서구의 과학과, 기술과, 文物이 도도히 우리 사회에 유입해 오던 韓末開化期에 우리의 先覺者들이 東道西器의 가치를 높이 든 것은 時宜에

적합한 일이었다. 동양의 고유한 도덕과 정신을 가지고 서양의 기술과 科學을 受容해야 한다는 투철한 主體의 자각과 자세를 간결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끝으로 萬物에는 調和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 和는 조화의 화다. 조화 속에 생명이 있고 光明이 있고 지기가 있다. 조화야말로 우리의 행동과 생활과 문화의 指導原理다.

靈과 肉, 정신과 身體, 男과 女의 조화에서부터 도시와 농촌의 조화, 精神文化와 物質文明의 조화, 東洋文明과 서양文明的의 조화, 自然과 인간간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조화의 原理가 확립되어야 한다.

儒敎는 인간을 두 類型으로 나눈다. 君子와 小人이다. 군자는 바람직한 理想의 人間型이요, 소인은 부족하고 미숙한 인간이다. 論語에는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여 논한 대목이 많다. 예컨대 君子는 泰而不驕요 소인은 驕而不泰다. 군자는 喻於義요 소인은 喻於利요, 군자는 周而不比요, 소인은 比而不周 등등이다. 子路篇에 보면

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라고 했다. 和而不同과 同而不和는 어떻게 다른가.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 사람과 화목하고 調和를 이룬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반대로 남과 附和雷同을 하고, 타인과 화합하지 않는다. 和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同은 雷同하는 것이다. 和와 同은 현대적 용어로 해석하면 調和主義와 劃一主義다. 民主主義社會는 和而不同의 세계요, 專制主義社會는 同而不和의 세계다. 인간은 저마다 개성을 가진 獨自의 존재이기 때문에 思考와 行動과 가치관과 世界觀이 각자 다르다. 저마다 十人十色 百人百相의 個性을 가지고 살아간다. 남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것이 和而不同的 세계다.

하나의 원리,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이념을 로기, 하나의 主義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雷同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同而不和의 劃一主義다.

和而不同은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調和를 이루는 民主主義의 世界觀과 사고방식을

간결하게 집약한 말이다.

우리는 野性和 知性和 德性的 三要素가 균형적 調和의으로 발달한 全人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調和社會의 조화인이 되고 平和世界의 평화인이 되어야 한다. 和는 理想的 韓國人像의 第二의 속성이다.

第四章 明

理想的 韓國人像은 誠과 和의 德을 갖는 동시에 明의 德을 가져야 한다. 明은 지혜롭고 聰明한 것이다. 명은 광명의 명이요, 明哲의 명이요 明知 明察의 명이다. 명은 밝은 것이다. 우리는 밝은 마음, 밝은 눈, 밝은 얼굴, 밝은 표정, 밝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밝은 생활, 밝은 사회, 밝은 역사, 밝은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 光明韓國의 건설이 우리의 社會指標다. 우리는 光明社會의 광명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한국인이다. 明은 바꾸어 말하면 지혜다. 지혜는 인간의 으뜸가는 德의 하나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의 위대한 철학과 종교가 한결같이 지혜의 德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使命을 자각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플라톤은 지혜를 인간의 四元德의 하나로 보았다. 지혜, 용기, 節制, 正義는 理想的인 폴리스(都市國家)를 건설하는데 으뜸가는 基本德이라고 했다. 불교는 특히 지혜의 德을 강조했다. 지혜는 大乘佛敎의 六波羅蜜多(여섯 가지)의 뛰어난 德중에서도 첫째가는 덕이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또한 般若(般若)라고도 한다. 無明은 惡과 불행의 源泉이요, 般若는 善과 幸福의 근원이다. 敬神思想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敬畏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했다. 明哲保身의 지혜를 역설한 老子는 知와 明을 구별하고 명은 지보다도 높은 단계라고 보았다. 老子道德經의 二十三章에 이렇게 말했다.

知人者知 自知者明, 남을 아는 것은 知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明이다. 남을 알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을 알기는 힘들다. 지란 무엇이나. 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아는 것을 안

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知之爲和, 不知爲不和. 是知也) 이것이 孔子의 知에 대한 견해다. 孟子는 是非之心은 智之端이라고 하였다.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했다. 이 말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이 곧 理性이다」라고 갈파한 데카르트의 말과 같은 뜻이다.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認識내용이요, 지혜는 사물에 관한 옳바른 判斷力이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허다 해도 지혜가 많은 사람은 드물다. 전자를 學者라고 하고 후자를 賢人이라고 한다. 현인은 학자보다 차원이 월등히 높다. 지혜는 밝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빛이라고 했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바다라고 했고 날카로운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칼이라고 했다. 인간은 本能과 感情과 知性的의 三要素로 구성된 複合의 生命體다. 본능과 감정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근원적인 힘이지만 인간이 본능과 감정의 지시와 명령대로 행동하면 불행과 파멸에 직면하기 쉽다. 본능과 감정은 어둡고 맹목적인 힘이다. 그러나 지성은 그렇지 않다. 지성은 인간의 슬기로운 道理와 方向의 감각이요, 調和와 均衡의 감각이 綜合의인 事理判斷의 감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先後本末이 있고 大小輕重이 있고 善惡正邪가 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성이요, 지혜요, 明이다. 知는 밝고 合理的인 것이다.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論語 子罕篇)라고 孔子는 갈파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惑하지 않고 인자한 사람은 憂心이 없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 하지 않는다. 知仁勇의 三德은 君子가 兼備해야 할 필수적 요소다. 우리는 惑이 없는 明知의 人이 되어야 한다. 현대는 高等學習社會요, 高度技術사회다. 高度의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선진文明국이 될 수 없고 急變激動하는 國際競爭社會에서 적응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격변하는 사회와 역사에 창조적 적응을 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知를 가져야 한다.

첫째는 一般的 常識이요, 둘째는 專門의 知識이요, 세째는 綜合의인 智慧다. 우리는 이 세가지의 知를 겸비할 때 비로써 民主社會의 민주인

이 될 수 있고, 産業社會의 技術人이 될 수 있고, 文化社會의 文化人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고등학습사회 的 學習人이 되기 위하여 平生教育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憲法 第二十九條五項에서 평생교육의 權利와 義務를 강조한 것은 참으로 劃期的이다. 우리는 高等教育國家를 건설해야 한다. 그때야만 세계의 活動舞臺에 나아가서 雄飛하고 躍進할 수 있다. 우리는 옛날부터 교육국가 的 偉대한 전통을 갖는다. 우리 국민처럼 배우기 좋아하고 교육을 숭상하고 向學熱이 높은 국민은 드물다. 崇文思想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日本의 士는 칼을 쓰는 武士지만 한국의 士는 배우고 공부하는 선비다. 士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비道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精神的 傳統이다. 유교가 우리 국민에게 남긴 가장 큰 遺産은 선비道다. 서양의 騎士道를 자랑하고 일본은 武士道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선비道를 자랑해야 한다. 溫故知新이라고 공자는 갈파했다. 옛것을 배워 새 것을 알라고 했다. 傳統의 뿌리에서 創造의 꽃이 핀다. 無에서 有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창조는 아니다. 전통이라는 뿌리와 터전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전통은 뿌리요, 창조는 꽃과 열매다. 우리는 선비도의 전통을 현대의 산업사회에 살리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士魂商才라고 古人은 말했다. 선비의 정신을 가지고 산업과 經濟와 기술을 배워야 한다. 國民의 精神的 支柱가 허약하면 外來文明에 현혹되고 동화되어 民族的 自我喪失과 主體性 상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 선비도란 무엇이나. 선비道는 어떤 내용과 특색을 갖느냐. 유교는 과거 수백년 동안 한국인의 精神的 支柱요 道德의 根幹으로서 한국인의 心性과 思考와 행동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크게 지배하였다. 佛教, 基督教 등 외래사상 중에서 유교만큼 우리 민족에 큰 영향을 준 사상은 없다. 유교는 한국인과 韓國社會에 正機能과 逆기능을 했다. 功과 害, 得과 失이 병존했다. 유교에 공과 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요소가 선비道다. 우리 역사에는 많은 선비들이 나와서 護國의 義人이 되었고, 忠義의 龜鑑이 되었고, 민족의 指導의 人材가 되었다. 鄭圃隱의 忠節, 死六臣의 志

操, 生六臣의 抵抗정신, 三學士의 애국심, 忠武公의 義勇, 閔忠正公의 大義의 정신, 李僑先生의 나라사랑, 安重根烈士의 義氣에 島山 安昌浩 선생의 民族魂, 韓末의 義兵들의 抗日운동 그밖의 유명무명의 志士들과 선비들의 義舉와 殉國은 모두 다 유교의 선비정신의 표현이요 發露다. 우리나라에 이런 선비들의 忠과 勇과 義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國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선비정신은 무엇이나.

첫째는 清廉의 정신이다. 선비는 廉直했고 결백했다. 名利와 財富을 탐내지 않았다 好衣 好食을 원치 않았다. 物質的 價值追求 보다는 정신적 가치추구를 행복의 第一義로 삼았고, 탐과 깨닫힌 인격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청렴하게 살면서 守分知足의 생활을 했다. 清白吏는 곧 선비정신의 실천자다.

둘째는 先公後私의 정신이다. 公이 먼저요 私는 나중이다. 사보다는 공을 더 소중히 여겼다. 사리사욕보다도 大義名分을 중시하고, 公的 利益을 私的이익보다 優先시켰다. 선비는 公心과 大公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先公後私의 정신에서 共同體意識이 생기고 愛國정신이 발동한다. 先公後私는 仁村 金性洙 선생의 生活信條였다. 그는 선비정신의 한 본보기다.

셋째는 輕利重義思想이다. 利를 가볍게 여기고 義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와 의의 가치로서 충돌할 때에는 이를 버리고 의를 취해야 한다. 捨利取義는 선비의 行動信條요 생활원리다. 大義에 살고 대의에 죽는 것이 선비의 길이다. 安重根의 사가 1910年 旅順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쓴 유명한 글은 선비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돈이나 利를 보면 義를 생각하고 義를 취해야 한다.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 생명을 바치어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은 論語 憲問篇에 나오는 孔子의 명언이다.

네째는 克己와 修養의 정신이다. 선비는 정신수양과 人格鍊磨를 생활의 지표로 삼았다. 선비는 학문과 德行이 높아야 한다. 學德兼備에는 克己와 수양이 필요하다. 학문의 목적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다

은 최고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선비의 學의 개념이요 목적이었다. 東洋人과 西洋人은 學의 개념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서양인의 학은 사물의 客觀의 法則의 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동양인의 학은 知德兼備의 인격형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선비는 항상 自己修養과 인격연마에 주력해야 한다. 修己治人은 유교의 大本이다. 수기하는 사람이 치인 할 수가 있다. 치인에 앞서 먼저 수기를 해야 한다. 수기는 自我完成이요, 人格練磨다. 지도자는 먼저 修己를 힘써야 한다. 清廉의 정신, 先公後私의 정신, 輕利重義의 정신, 克己와 修練의 정신, 이것이 선비 정신이요, 선비도다. 富의 축적과 利潤追求와 物質의 번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대산업사회의 價值觀과 行動양식과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은 利의 追求에 골몰하는 經濟的 동물로 전락하기 쉽다. 우리의 人格과 개성은 富를 위한

도구와 手段으로 타락하기 쉽고, 인간의 自我는 主體性喪失에 빠지기 쉽다. 그것은 한마디로 目的과 수단의 價值秩序의 顛倒요, 인간의 非人間化요, 정신적 支柱의 붕괴다. 이것이 현대의 가장 큰 정신적 위기다. 時代정신이 그럴수록 우리는 清廉의 정신을 견지하고, 私보다 公을 앞세우고 利보다 義를 중시하면서 克己와 수련으로 自我完成에 진력한 선비의 높은 정신과 행동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선비道의 現代的復興을 나는 제창하고 싶다. 明은 총명의 명이요, 光明正大의 명이다. 우리는 광명정대를 행동의 原理로 삼아야 한다. 빛나고, 밝고, 곧고, 큰 것이 광명정대다.

우리는 총명하고 合理的이고 광명정대한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 明은 理想的의 韓國人像의 第三의 속성이다. (다음호에 계속)

어떤 신(神)이 무심중에 와서 훌출(忽出) 내게 물기를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할 때에 나는 아무 것을 하노라고 서슴치 않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島 山>

도산(島山) 선생은 우리에게 많은 금언(金言)과 진리(眞理)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다. 그의 말은 모두 쉽다. 그는 쉬운 표현 속에 깊은 진리를 담았다. 앞에 적은 말씀은 깊은 의미를 지니는 명언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신(神)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을 때에 「나는 지금 어찌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몇몇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독질 할 때 신(神)이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절대로 몇몇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남의 답안지를 훑쳐보는 کن인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술이 취해서 음설(淫說)을 하고 있을 때, 부정부패의 파렴치(破廉恥)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을 헐뜯으며 욕을 하고 있을 때, 멍하니 망상과 잡념에 빠져 있을 때,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결코 몇몇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신 앞에 몇몇한 대답을 하자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악과 부정을 범할 때 우리는 몇몇할때야 몇몇할 수가 없다.

도산은 의식적 생활(意識的生活)과 자동적 훈련(自動的訓練)을 강조했다. 그것은 항상 깨어있는 생활이요, 자각적인 삶이다. 스스로 분투노력하고, 스스로 수련하는 생활이다. 그것은 자주인(自主人), 진리인(眞理人), 수양인(修養人)의 생활태도다. 도산의 이 말을 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특히 역설하고 싶다.

인천직할시협회

〈남구 송의 1동 424(공설운동장내)〉



회장 한진달

옛날에는 제물포(濟物浦)라 하여 인구가 적은 한산한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1883년 개항(開港)됨에 따라 인천항(仁川港)이라 칭하였다. 인천항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비약적인 발달을 하였고 항만부근에는 대소의 도서(島嶼)가 줄지어 있어 방파제 역할을 해 주는 양항이다. 그러나 조차(潮差)가 최대 10m에 달하므로 갑문식(閘門式) 독(dock)을 만들어 하역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 독(dock)은 동양최대의 규모이다. 1981년 7월 1일 인천은 인천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인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협회를 발족 초대회장에 제9대 경기도 태권도 협회장을 역임한 전영화 회장을 필두로 윤치영 전무이사의 끈기 있고 헌신적인 봉사로 협회를 이끌어 왔으며 체육회의 협조와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협회 수련도장 승인을 얻었으며, 이영회회장의 관조비로 시설을 갖추고 미비시설을 한진달 2대회장께서 완성하여 태권도인의 숙원인 협회전용도장을 개관하게 되었다.

본 협회는 82년엔 11,476,677원을 집행하였고 83년에는 82년의 두배가 넘는 25,593,800원의 예산을 세우고 임원과 사법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알차고 활기찬 협회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남구 송의동 4거리의 임대사무실에서 82년 4월 26일자로 공설운동장내에 사무실과 전용체육관을 갖추고 안정권내에 들어선 협회는 협회살림의 1/2에 가까운 1,150여만원을 찬조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새 살림을 맡은 황명송 전무이사는 회장단과 이사진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82년도 사업실적

1. 대 회

'82 개인선수권대회 545명, '82 중별선수권대회 533, 제11회 소년체전대표선발 111명, 제63회 전국체육대회 인천대표 1,2차대회 343명 등 5회 대회명 1,419이 참가하였다.





부회장 문화통



부회장 홍재학



부회장 이지문



부회장 윤치영



전무이사 황명송



이 사 김진성



이 사 김동식



이 사 김영수



이 사 이종구



이 사 이현기



감 사 조태성

2. 승품·승단심사

6회의 심사대회에 2,258명이 응심하였고.

본 협회는 83년 2월 22일 총회를 갖었으며 4월 9일 제 2대 본회 한진달 회장 취임식을 갖었다.

임원명단

직	책	성	명	현	직
회	장	한	진	달	주식회사서민금고대표이사
부	회	문	화	룡	청통체육관장
"		홍	재	학	육사체육관장
"		이	치	문	달마체육관장
"		윤	치	영	인천체육고등학교교사
전	무	황	명	송	경인체육관장
이	사	김	진	성	승리체육관장
"		김	동	식	한국산업은행인천지점
"		김	영	수	간석체육관장
"		이	종	구	상 업
"		이	현	기	주안체육관장
"		이	봉	춘	청송체육관장

" 노 순 명 인천전문대학
감 사 조 태 성 극동체육관장
" 김 승 길 주안국민학교교사

3. 태권도학교현황

국민학교부 : 용일, 주안, 도화, 인성, 승의, 신흥, 신평, 간석, 석천, 축현, 남부, 부흥, 송림, 청천, 송도, 산곡, 부평서, 부평동, 문학만석, 동부, 용현, 서강, 서림, 서화, 구월, 논현, 만수, 학익(이상 29개교)

중학교부 : 구월, 대현, 상인천, 선인, 인평, 광성, 부평동, 동인천, 부평서, 동산중, 상인천여중(이상 11개교)

고등학교부 : 대현공고, 선인고, 향도실고, 항공공고, 인천기계공고, 인천고, 광성고, 성원고 인천체고(이상 9개교)

대학교부 : 인하대, 인하공전, 인천체대, 인천전문대(이상 4개교)

전교생 4,528명 태권도 수련

—인천 용일국민학교—

<홍재학 사범>



교장 양재철

양재철교장 선생은 「1983년 3월 1일 부임을 한 본 인으로서 태권도를 잘 모르나 전임교장선생님과 현 본교 육성회장을 맡고 있는 **홍재학** 관장께서 열심히 하신 덕분에

로 모든 것을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른 국민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을 이용하여 태권도기능을 보유한 선생님이 특변활동시간이나 태권도부를 만들어 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 용일학교에

와 보니 전교생이 태권도 운동을 하여 놀랐다고 표현을 하시며, 태권도를 전교생이 실시하는 데 특히 잘못된 곳이나 모순점이 발견되기 전에는 계승 발전시킴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태권도에 관해 묻는 기자에게 반문하셨다. 타 학교에는 1,2,3학년의 저학년은 태권도 수련을 전혀 하지 않는데 본교는 1,2,3학년의 수련명이 태권도수련을 하는데 동작이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구령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른 학교보다 기본적으로 앞서가는 느낌이 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일이며, 또한 태권도는 국기이며 국방체육으로써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임은 물론 군인대 등에 따라 바람직하고 유익한 운동이라고 보며, 본교는 정규교육시간에 구애받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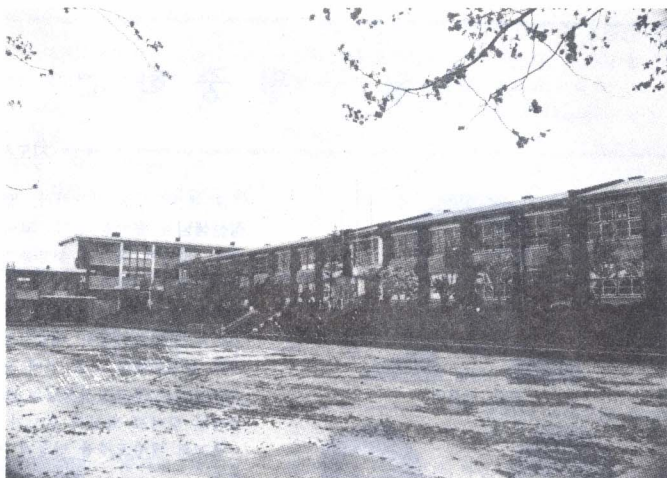
않게 태권도수
련시간이 잘 짜
여져서 실시하
고 있으므로 단
점이 발견되며
라도 수정하면
서 지속하겠다
고 말씀하신다.
또한 양교장선
생님은 학교내
모든 일에 민주
의 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각 학
급의 반장도 성
적의 고하를 막
론하고 자체적
으로 선출하도
록하며, 육성회

의에도 각반에서 대표학부형을 뽑아서 그 대의원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회장을 선임시키는 등,

어려서부터 민주
의식을 생활에 익
히는 산교육을 철
저히 시행하고 있
다고 태권도지도
사범인 홍재학씨
는 말하며 4천5백
명이 넘는 학교
에, 태권도지도사
범인 내가 육성회
장에 선출된 것이



홍재학사범



바로 민주주의식 선출덕분에 중책을 맡게되었
다며, 걱정이 앞을 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기
회에 보이며 충실하게 용일학교에 태권도를 보
급하겠다고 결심에 결심을 하였다고……

홍재학(육성회장)사범은 군재직시 11년간이나
육군사관학교 교관 및 각 부대 교관으로 활약한
태권 7단의 고단자로서 이제 는 어린이들의 기초
체력과 정신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라나는 묘
목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
생을 바치겠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앞에 육사체육관을 개설하
여 우수선수 육성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인천태
권도협회에도 임원으로 활약이 지매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체육시간(태권도)배정표

교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4-AB 5-ABC	4-ABD 5-CD 6-AB	4-CD [3]	4-AB 5-C□	4-CD □	4-CD
3		4-AB 5-ABC	4-ABD 5-CD	6-CDE	4-AB 5-ABCD 6-CDE	4-CD 5-AB 6-AB	4-CD 3학년 전체체육
4		1학년 전체체육	2학년 전체체육	6-CDE 5-CD	6-CDE 5-ABC	5-AB 6-AB	
5		5-D 6-AB	6-CDE [3]	4학년 전체체육	5학년 전체체육	6학년 전체체육	
6		5-D 6-AB	6-CDE				

인천 구월 중 학교

〈지도사범 이화현〉



교장 채홍덕



이중우체육주임



염재준선생

본교 체육주임 이중우선생은 태권도 4단으로
서 81년 3월 1일 부임하여 특별활동(과의활동)

부로 태권도부를 시작하여 82년 10월 채홍덕교장선생님의 승낙을 받아 교내 태권도부를 정식 발족, 83년엔 특기자 8명을 배정받아 기존선수 6명을 포함 14명의 선수의, 자원한 태권부원 30여명 등 40여명이 수련을 하고 있다.

본교는 교육위원회 과학시범학교로서 인천시 내의 학교중에서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홍교장선생님의 의지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의 여지가 큰 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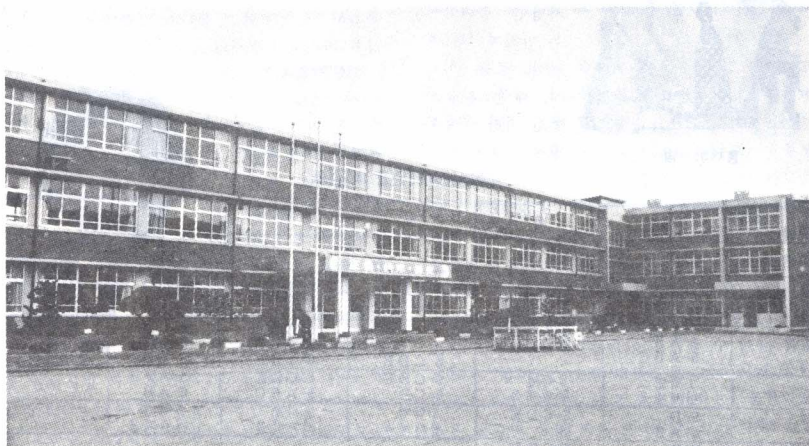
본교의 태권도부를 만들게 된 홍교장선생님의 뜻은,

1. 태권도는 국기로
서 운동을 떠나 인간
교육의 근본이 될 수
있으며

2. 소수의 선수 육
성도 필요하지만 전교
생이 태권도를 통해



이화현 사범



심신단련을 할 수 있고

3.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학생이 손쉽게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4. 태권도는 많은 장비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운영에 부담이 없으며

5. 특히 본교에는 교사중에 유단자교사가 다수 있어 지도육성이 원활하여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본교에는 이종우 체육주임의에도 김충선(4단) 체육교사, 염재순(4단)유리교사, 노석만(3단)수학교사 등 교직원인 일심동체가 되어 발전이 기대된다. 선수육성은 이화현(5단)사범이 적극지도하며 특기자를 배정받기 전에 인천시교육감기 2위 2명, 3위 3명, 중별선수권대회 2위 3명, 3위 1명 등을 입상시키는 등 착실히 경력을 쌓고 있다.

인천체육고등학교

〈윤치영 체육주임〉

(인천태권도협회 부회장)



노병건 교장

본교는 태권도와 복싱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다. 노병건 교장선생님은 박문여고 재직시 육상, 사격, 농구, 기계체조 등을 육성하였고 백옥자선수의 국가대표선수 3~4명을 배출시켰으

며 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한 원로체육인으로 태권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노 교장께서는 「태권도는 道로서 정신에 치중한 운동으로 정신적인 면을 높이 사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기록경기가 아니므로 심판의 판정이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도 관전하면서 승패를 분간하고 이해가 빨라야 관중의 호응을 받고 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어야 경기스포츠로서 더욱 발전하리라고 본다」며 객관적인 평을 하시고 조속히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도록 체계를 이루어 올림픽종목에 채택되어 국가의 영광을 안겨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태권도에 관심이 크신 교장선생님을 모신 체육전문고등학교의 태권도부의 기대를 하며 윤치영(체육주임)사범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모범 태권도장, 동부체육관

〈한상윤 사범〉



한상윤사범

인천시내에서
태권도 유치부를
처음 시작하여 지
금도 유치원보다
유치부 태권부가
잘 운영되고 있다
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 소문대
로 한쪽은 체육도
장 한쪽은 유아교
실로 학습의 분위

기가 와 닿는다. 체육관장 **한상윤사범**은 중앙대 경영학을 전공했고 부인은 숭의보육대학에서 보 육학을 전공하였다기에…… 수궁이 갔다. 교육 프로그램을 지상에 일일히 소개하기는 너무 많고 요약하면 처음 체육관에 입관해서 부터의 일 일 일정표가 상세히 인쇄되어 수련생손에 쥐어 지며 태권도 교육계획서(1년간)가 학부형들께 역시 인쇄되어 배분이 된다. 이외의 **특징이라면**

1. 유치부는 3개월에 1번씩 심사를 보고 유치 부 2년6개월이 되어야 1품심사에 응심을 시킨다



2. 한달에 2회씩 가까운 야의수련을 실시하여 정서교육을 실시한다.

3. 수련비이외의 일체의 부형들에게 잡비출혈 을 금하고 있다.

위의 세가지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으며 유치 원을 졸업한 어린이들이 태권도유치부에 재입학 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치원에서 문제아동의 등 성격교정, 염치있는 행동 등, 송현동에서는 소문난 체육도장이다.

체육도장 운영외에도 한사범은



79년 11월부터 해양경찰대태권도 지도사범과 경기 도경찰국태권도사 범, 경기도협회임 원등 분주히 뛰고 있다.

체육도장에서 유 치부를 지도하는 사범들은 한변쥔 참고로 동부체육 도장을 견학하여 참고함도 팬참을 것 같다.

강 원 도 협 회

〈춘천시 낙원동 64-2〉



회장 김 성 태

태백산맥이 도(道) 중앙부에 자리잡아 남북으로 뻗어있어 크게 영동(嶺東)지방 영서(嶺西)지방으로 나눌 수 있겠다. 두 지방사이에는 기후의 특색이 뚜렷하여 연평균 기온이 영서의 춘천

10.4℃, 영동의 강릉은 12.2℃, 1.8℃ 차이가 있고 겨울인 1월에는 춘천 -4.4℃, 강릉이 -0.4℃로 -4℃ 차이가 있다. 태백산맥과 동해안의 자연경관, 고적, 사찰 등이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설악산, 경포대, 낙산사 외에도 춘성군의 등선폭포, 홍국사, 양주군의 양남팔경, 명주군의 소금강, 상원사, 평창군의 오대산, 월정사 등 각 군마다 산세곡마다 경관이 아늑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대로 넓은지역을 관광하는데 도협회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자리한 본 협회는 3년전만 해도 사무실 하나없는 협회였다. 그러나 김성태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자는 목표를 정하고 행정과 단합을 강조, 이에 태권도인이 긍정적으로 대처 임원 및 일선도장의 사범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제는 20여평의 사무실에 道協會 전용체육관(140坪(마루 90평))을 가진 협회로 성장하였다. 1982년에는 10,852,994원을 집행하였고 83년엔 좀더 착실히 내실을 다질 준비를 하고 있다.

1. 대 회

제 5 회 강원도협회장기정탈 및 제63회 전국체전최종선발전 209명, 제17회 도민체육대회 415명 등(624명 대회출전) 2회 대회 개최.

2. 승단(품)심사

심사는 년 4회 1,050명 응심하였다.



3. 대북현 태권도 협회와 자매 결연

대북현태권도협회 부회장 김사옥씨로부터 친선도모와 양국간의 선수교류를 목적으로 자매결연하여 1981년 9월 16일 강원도 단장 김성태의 4인의 임원진이 대만 대북현을 방문 결연식을 가졌다. 1983년 9월 대북현태권도협회 임원진이 본협회를 방문예정이다.



중화민국 대북현 태권도협회와 자매결연

특기할 일로는 설악케이블카의 태권도실업팀의



양 회 석



양 범 모



최 성 식



최 종 윤



송 영 현

강원도협회 집행부 및 임원

지 위	성 명	지 위	성 명	지 위	성 명
고 문	윤 영 기	감 사	장 석 주	"	최 금 순
회 장	김 성 태	이 사	김 동 혁	"	정 윤 해
부 회 장	김 광 언	"	송 동 현	"	박 인 웅
부 회 장	이 병 재	"	황 인 갑	"	김 정 수
전무이사	박 병 천	"	전 영 조	"	김 천 호
사무국장	최 문 식	"	박 영 근	"	김 현 수
경기이사	최 흥 배	"	유 경 준	"	이 재 택
심판이사	박 임 주	"	정 종 근	"	장 완 순
시설이사	민 인 식	"	이 상 천	"	황 윤 국
섭외이사	이 석 천	"	장 세 현	"	이 상 규
감 사	유 연 용	"	최 국 현		

선수 5명과 코우치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 2년 도용석君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미담이 있다.

설악산관광 케이블카 태권도부는 김형동사장을 단장으로 감독 최택림, 주무 유원찬, 코치 박병철氏로 우선 5명의 선수를 주축으로 출범을 하였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창단된 실업팀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협회 전무이사를 4년간 보아온 박병철전무는 83년만 좀 고생을 하면 84년부터는 정상피도에 올라 안정권에 들어가 84년에는 시합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김성태회장에서도 적극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현재 본협회는 20개(시 5개소, 군 15개소) 시군에 60개 도장에서 약 3,500여명이 수련을 하고 있으며 소양중학교, 원주중학교, 고환중학교 춘천기계공고, 강릉농고, 진광고등학교 등에 세 태권도를 하며 철원의 동송국민학교는 전교생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대학으로는 강원대학, 관동대학, 상지대학 등에서도 태권도부를 두어 수련을 하나 활발하지는 못하다.



고 문
윤 영 기



부 회 장
김 광 언



부 회 장
이 병 개



전무이사
박 병 철



사무국장
최 문 식



경기이사
최 홍 배



심판이사
박 임 주



시설이사
민 인 식



심외이사
이 석 천



감 사
유 연 용



감 사
장 석 주



이 사
김 동 혁



이 사
송 동 현



이 사
창 인 갑



이 사
전 영 조



이 사
박 경 군



이 사
유 경 준



이 사
정 종 군



이 사
최 국 현



이 사
정 운 해



이 사
박 인 웅



이 사
김 정 수



이 사
김 현 수



이 사
이 재 택



이 사
장 완 순



이 사
이 상 규

소양중학교 (昭陽中學校)



〈김장환 사범〉

본교의 최봉현교장선생님은 83년 3월에 부임 하였습니다나 특히 태권도부에 관심이 크시다. 최고 장선생님은 태권도는 스포츠이전의 道로서 학생

들의 정신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에서 좋은 운동 으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며, 태권도 선수양성을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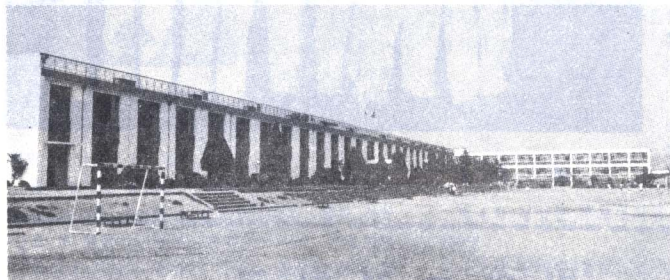


나 전교생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검토해 보시겠다며, 태권도부 학생이 일반학생에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참는 것을 목격하셨다며 태권도부 학생들을 칭찬까지 해주신다. 최교장선생님

은 강원도내 교육계의 원로로 도교육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본교에 오셨다. 태권도부 코치



를 맡고 있는 김정환사범은 7개운동부의 책임을 맡고 계신 **김재영 체육과장**께서도 태권도부를 자율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며 '84년도에는 전교생이 수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뛰고 있어 기대해 봄직하다.



춘천기계공고 태권도부창설

(정길춘 사범)



교장 이 기 원

강원도 중학교 손희코치 정길춘(단)사범은 83년 1월 1일부로 강원도 교육위원회의로부터 춘천기계공고 태권도부 코치로 발령을 받아 태권도부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 기원교장선생님의

기대와 또한 강원도 스포츠정책 총목의 하나인 태권도부를 열심히 지도해 학교의 명예는 물론 도의 이름은 빛내 보겠다고 다짐하는 정사범의 의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정사범은 강원대학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총장 이상주박사가 아세아태권도연맹 회장이며 대학연맹회장으로 도협회에서 강원대학교 태권도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길춘사범은 이런 기회에 태권도가 국립대학교 체육대회 종목에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대학태



정길훈사범

권도인구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총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 강원대학교의 태권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원해 본다.



강 원 도 경 찰 국

〈김대웅 사범〉



경찰무도 활성화 지침에 의거 경찰서에서는 태권도, 검도, 유도 등 활발히 수련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대공관계의 취약지구로 바쁜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경찰은 태권도수련에 땀흘리고 있다.

김사범은 78년 도경찰국 사범으로 투신 각 경찰서와 기동대를 순회 지도 및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3년도 상반기에 초단 120명, 2단 12명, 3단 1명, 급심사 73명 등이 배출되었으며 기본기와 품세, 체포술(호신술) 등, 그 바쁜업무중에도 열심히 수련에 임하는 상사나 동료들을 볼때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련에 임하는 경찰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충 청 북 도 협 회

<청주시 서문동 218-11>



회장 전운덕

충북은 동쪽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북쪽은 강원도와 경기도, 서쪽은 충청남도, 남쪽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 인접해 위치한 한국 유일의 내륙도(內陸道)로서 2개의 市와 10개의 郡으로 구분하며 주요관광지로는 속리산법주사 단양 8경, 수안보온천, 탄금대등이 있다.

충북협회는 정만순 부회장(청주대학교 체육교육학교수)이 운영하는 청도체육관을 협회 사무실로 또 협회선수들의 훈련도장으로 사용하며 알뜰하게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본 협회에 17년간 전무이사를 맡아온 김용

관장은 정만순 부회장과 이철재(교위순회코치) 김순태(체육회코치)사범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무보수로 거의 상근하면서 철회살림을 이끌어가고 있다. 본 협회는 지역도 협소하지만 체육관 수도 30여개 '안락으로 선수층이 얇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러나 매년 국가대표선수를 1~2명씩 배출해 내는 저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윤기, 여성기, 마상현, 이동준, 한재구 등 충북협회의 간판선수들이다.

사업실적

1. 대 회

제 4 회 정갑순 추모대회겸 전국체전 예선대회 450명.

제 7 회 천태종(불교) 종정기대회 630명.

제 9 회 교육감기대회 310명.





명이 응심하였다.

3. 충북태권도인의 밤 행사

충북내의 태권도인이 한자리에 모여 도내의 기관장님들을 초청하고 1년을 회고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대화의 자리를 갖고 이자리에서 전국규모대회의 금메달리스트 4명(이동준, 한재구, 이창섭, 추교임)에게 각각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며 태권도선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충북국민학교회장기대회 250명 등 1640명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2. 승단(품)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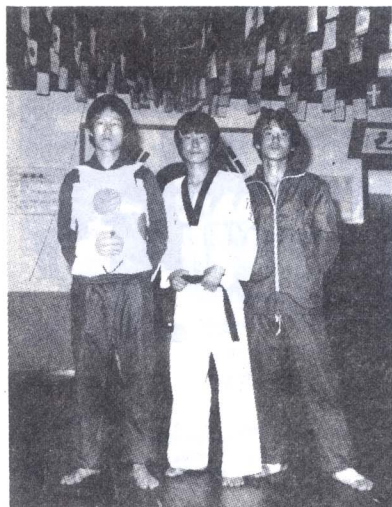
5월 심사 600명, 11월심사 1,040명 총 1,640

넘어주고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여름방학기간중 하계훈련을 실시한다.

본 훈련은 임원 및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로 정진수련으로 참선도하며 임원들의 단합대



부회장 : 정의진



부회장 : 정만순



전무이사 : 김 용



감 사 : 정혜열



감 사 : 윤승희



이 사 : 심규완



이 사 : 신용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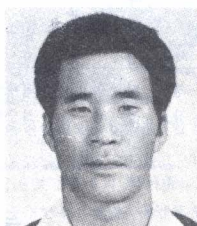
이 사 : 김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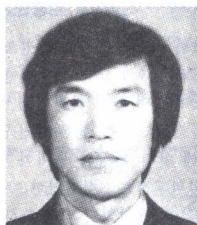
이 사 : 김광수



이 사 : 신현식



이 사 : 심제기



이 사 : 오명세



이 사 : 박정규



이 사 : 김천호

회도 겸한다고 한다. 장소는 천태종의 남대총
중정님의 배려로 단양 구인사의 훈련장을 제공
하여 주시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태권도 수련을 하는 학교

국민학교 : 중앙국교, 주성국교, 서원국교, 내
곡국교, 모충국교, 창신국교, 한별국교, 교대부
속국교, 청남국교, 남성국교, 남일국교, 상봉국
교, 가덕국교, 옥포국교, 문의국교, 내수국교,
증평국교, 도안국교, 동인국교, 감물국교, 삼원
국교, 남한강국교, 내수국교, 삼양국교, 부용국
교, 황간국교, 의림국교, 매포국교.

중학교 : 청주중, 청주남중, 대성중, 주성중,
제천동중, 청원가덕중.

고등학교 : 세광고, 운호고, 청주기계공고, 신
홍고, 청주농고, 제천상고, 제천농고, 보은농고
대학교는 청주대학 한곳으로 30여개의 체육관에
1600여명과 43개 학교에 2150여명으로 약 3750여
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충북협회의 선수로 84년도 국가대표선수로 기
대되는 유망주는 지용석, 허현배, 박종현선수 .

지용석(원급 청주기계공고 3년)선수는 제 8, 9
회 소년체전일상, 제 17회 대통령기대회 2위, 제

63회 전국체전 1위, 최우수선수권대회 1위, '83 국가대표선발전 2위 등 입상하였으며 회전돌려차기, 점프뒤돌아차기, 상단돌려차기 등이 특기이다. 허현배(페터급, 청주신흥고교 3년)선수는 제8,9회 소년체전입상, 제62회 전국체전입상하였으며 오른발 뒤 후리기와 왼발 상단돌려차기가 특기이다.

박종현(라이트 청주기계공고 2년)선수는 제9회 소년체전입상 제63회 전국체전 입상하였으며 돌려차기와 뒷차기가 특기이다. 세선수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충북협회 임원

직	책	성	명	현	직	
회	장	전	운	덕	천태종 구인사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만	순	청주대학교 교수

직	책	성	명	현	직
"		정	의	진	제천체육사
전	무 이 사	김	용		사 업
감	사	정	해	열	청주중학교 교사
"		윤	승	희	사 업
이	사	심	규	완	부강공고 교사
"		신	용	천	회사원
"		김	정	호	제천체육관 사범
"		김	광	수	무덕체육관 관장
"		신	현	식	미원고등학교 교사
"		심	재	기	청주중앙국민학교 교사
"		오	명	세	회사원
"		박	정	규	옥포국민학교 교사
"		김	천	호	공무원
"		이	철	재	교육위원회 순회교지
"		김	순	태	체육회교지

청주 서원국민학교

(지도사범 김종운)



윤용복 교장

본교는 야구 지정 국민학교로서 O.B 프로야구에서 250여만원을 지원 받아 야구부를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규 주임선생님은 충북태권도협회 부회장도 역임을 한

태권도 동호인으로 태권도 기틀을 마련하여 82년 9월 윤용복 교장선생님 부임후 부형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태권도를 시작하여 200여명의 어린이가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어 태권도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윤용복교장선생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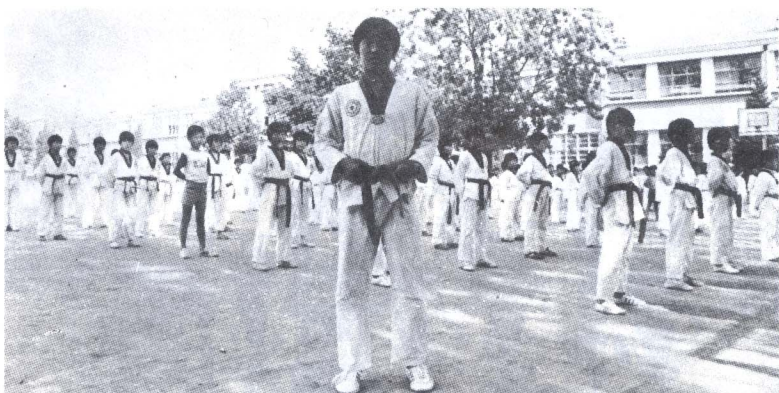
본교에 태권도부를 조직 운영하게 된 동기를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그때에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꼭 길러주어야 할 개인운동

과 경기력향상을 위한 체력운동으로 태권도로 정하게 된것은, 태권도를 오랫동안 지도했던 유경협자와 유단자교사가 있어 인적 자원면에서 자신이 있었고, 어린이 신체단련은 물론 정신수양 및 호신기로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많았고 부형들은 자녀의 성격교정과 심신단련으로서의 태권도수련을 원하므로 시작였다고 말씀하시며

태권도의 지도결과를

시작한지 1년도 못된 짧은기간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히 고조되었고, 지도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현장상 모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사에 소극적이거나 말쑥을 부리던 어린이들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봉사하는 어린이로 성격이 개조되어가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2부제가 해결되면, 전교생을 중간활동시간과 방과후 특별지도하여 전원이 태권도수련을 실시하고 전용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여 유능한 선수를 육성하고 4~6학년 어린이 전



원을 유품자가 되도록 수련 할 계획이다.

윤교장 선생님은 31년간 교직에 몸담아 평생 을 교육으로 보내신 교장경력 8년의 활달한 여 교장선생님, 제정시대에는 배구선수였고 해방후 에는 각종 육상부분에 못하는 운동이 없는 스포 츠우먼이라고……

5월부터는 태권어린이 전원에게 우유땀으로 급식을 하며 중간활동시간에 태권도를 곧 시작 하려고 준비중이다.

본교의 태권도 모범어린이를 특별히 선정한다

면(전부원이 모범어린이지만) 6학년 7반 정경일 어린이로.

정옥균씨의 장남으로 3남매의 외아들, 학급의 반장이며 성적이 우수함은 물론 태권도부의 주 장으로 모든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 이 강한 어린이로 전교생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박주임은 말씀한다.

현 태권도부에는 30명의 유품자와 176명의 유 급자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다.

청주 모충국민학교

〈지도사범 김학만〉



조 동 수 교장

모충국민학교는 태권도선수 육성 으로 정평이 나 있는 태권도학교 로 전국규모의 대 회에 한번도 빠지 지 않고 참여하여 착실히 실력을 기 르고 있으며 박종 범, 홍성철, 권오 철, 이상봉, 서상

원, 하성호등 소년체전 충북대표를 배출한 학교 이다. 조동수 교장선생님은 교육청학무과장등 14년간 교장직에 근무한 평생교육자로 태권도에 관심이 지대하시며 적극 지원을 하고 계시다.

조교장선생님은

본교에서 태권도를 하는 어린이는 전부가 모 범생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전교생에게 의무적으 로 실시하려고 해도 모범생인 태권어린이의 품 격에 손상이 갈까봐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 여로 선발하여 운동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 십다.



태권도를 하면

난폭한 어린이도 온순하고 예의가 바르게 되고, 태권어린이는 진실하고 씩씩하다고 칭찬을 하시어서 본기자는 더 드릴 말씀을 잃었다.

본교는 **박필규** 선생님이 전근해오신 후 태권도 담당지도를 맡아 부형관계도 원만하고 태권도 관계는 적극적이라 한창 발전의 가두에 서있다.

조교장선생님은 태권도가 **소년체전종목**에 채택되어 교육위원회의 도움도 받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태권도부 활동에 비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못해 안타까움다고 말씀하신다.

태권도 도장이 없이 운동장에서 지도하는 김사범의 모습을 보며 착잡한 느낌이드나..... 역시 태권도의 주인은 김사범이구나 마음으로 격려를 하며 교문을 나섰다.



충북협회 "태권도인의 밤"에서 장학금 지급

제 주 도 협 회

〈제주시 용담동 244-1〉



송 봉 규 회장

제주도 2시 2군
으로 약 45만의
인구를 보유한 한
국 최남단 위치한
한국 최대의 화산
도(火山島)이다.

기후는 난류인 대
한해류가 제주도
동남쪽으로 흘러
가기 때문에 따뜻
하다. 추운 2월경

균기온이 4.7°C로 야자수로 가로수로 심고 있
다. 또 국내 최대의 강우지이며 바람이 가장 심
한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자연자원과 민속자원이 특이하고 신
비스터워져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우며 제주비행
장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켰고, 관광개발이 활
발하여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라산 중심으로 산재하여 있는 관광지는 관
광객을 부르고 남음이 있을만큼 무한하다고 보
겠다.

시·도협회로서는 최초로 태권도협회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본협회는 82년 9,069,415원을 집
행하였고 83년엔 11,641,000원의 예산을 세우고
협회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협회는 1975년 재일동포 洪性仁(大阪거주)
씨가 주축이 되어 101명의 동포가 제주도 태권
도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 4천만원을 모금하여
78년 완공을 보았다.

본 회관은 대지 71평, 건평 94평의 4층건물로
합숙훈련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협회 宋
奉奎회장은 82년 9월에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며
현 제주도 방공연맹지부장, 한국청소년연맹지부

장으로, 제주관광명소인 협제동굴과 농장을 운
영하고 있는 제주출신의 명사이다.

본 협회는 회장단과 이사진의 80~90%의 찬
조금으로 운영되며 도내에 인가체육관 10개소
(시설도장 20여개) 태권도는 주로 학교에서 실
시하고 있다.

사업실적

1. 승단, 승품심사

년 2회 실시하며 3월 249명, 8월 200명, 총
449명이 응시하였다.

2. 경 기

① 제18회 도지사기 및 교육감기, 교육대학장
기대회는 대학일반부는 도지사기정탈(40명), 중



· 고등부는 교육감기쟁탈(72명), 국민교부는 교육대학장기쟁탈(120)대회로 212명이 참가하였고

② 도민종합체육대회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 북제주에서 각 1팀씩 40명이 출전

③ 제 9 회 개인선수권대회 300명 출전하였고 소년체전 1차선발 100명이 참가하였다.

3. 태권도 학교별 현황

① 대학교: 제주대학교

② 고등학교: 오현고, 제주농고, 제주상고, 서귀농고, 남주고, 서귀고, 한림고, 함덕중고

③ 중학교: 오현중, 제주중, 중앙중, 남주중, 서귀중, 효동중, 신창중, 추자중

④ 국민학교: 북국민교, 남국민교, 서국민교, 동국민교, 광양국교, 서귀국교, 중앙국교, 범한국교, 서귀서국교, 연천국교, 강정국교, 남읍국

교, 세화국교, 한림국교, 무릉국교, 의기국교, 하례국교, 대정국교, 보성국교, 효동국교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력
회	장	송	봉 규	농장경영, 협재글사장
부	회 장	고	유 진	경진기업대표
부	회 장	고	춘 호	안전공업사대표
상	임부회장	좌	봉 택	현대산업대표
전	무 이 사	정	전 응	대한회계제주지점장
총	무 이 사	신	상 은	오현고교교사
경	기 이 사	이	동 진	중앙체육관관장
심	판 이 사	김	창 기	제주신문사총무부
이	사	고	방 립	교방림내과병원장
이	사	권	창 용	KAL호텔지배인
감	사	김	수 진	진양상사대표
감	사	이	홍 식	제주도청근무



부 회 장
고 유 진



부 회 장
고 춘 호



정 전무이사
정 전 응



총무이사
신 상 은



심판이사
김 창 기



이 방 사
고 립



이 창 사
권 용



김 수 사
진

제 주 법 환 국 민 학 교

〈강유진 사범〉



姜在燮 교장

서귀포 굴감 발 가운데 자리한 법 환국민학교는 1946년 9월 1일 개교, 80년의 역사를 지녔고 '80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새 교육체제 협력학교(서귀포시 교육청지정)로 선정되어 서귀포시 관내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교육연구 발표회에서 태권도체조 특별 공개시범 등으로 태권도 저변확대에 점진하고 있다.

80년 9월 1일 부임한 姜在燮 교장선생님은 成勳是實(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곧 보배이다)를 좌우명우로 30년 교직에 몸담아 10년 교장선생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분으로 법환학교 이전

의 무릉국민학교에서도 태권도를 장려하였다고 한다.

매주 수요일 2교시 중간시간을 이용 2학년이상 전교생이 태권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태권도부를 두어 우수선수 발굴 및 시범단을 조직,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물론, 태권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재섭교장은 태권도는 남아다온 투지와 용기, 인내심을 키워주며, 협동심이 강하게 생기며, 태권도학부형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3위 1체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康胤利(강윤리) 양방언氏 등의 여러 부형들의 열의는, 본교 태권도 자원지도코치 康有珍(강유진) 吳文俊(오문준)사범이 열심히 지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83년 5월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거행한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에 金社洙 교감을 필두로 코치 2명, 부형 11명, 선수 11명(25명)이 상경한 것으로 보아 그 열의를 가늠하겠다.

본도태권도부실

적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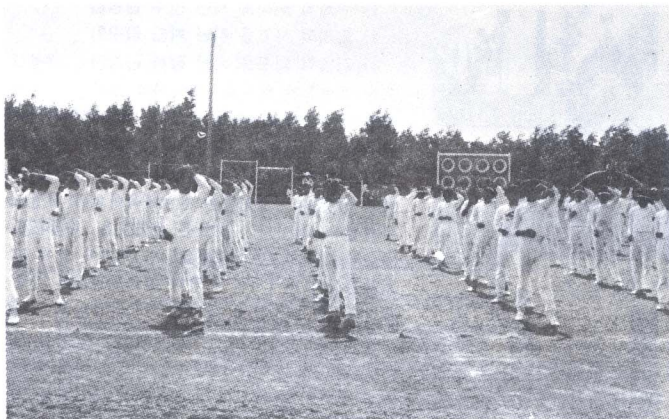
제10회 전도소년
체전 3위

1982.

제16회 도지사기
및교육감기대회
종합우승

제9회 전도태권
도우수선수권대
회 1위 4명 2위
3위 3명

제11회 전도소년
체전 5계급우승





1983. 제17회 도지사기 및 교육감기대회 종합
우승(2연패)

치하하며 부형들의 열의와 적극 도와주시는 학
교당국에 감사를 드린다.

83. 5. 1

제 4 회 전국어린이
태권왕겨루기
대회단체장려상
품세 6년 최우
수상 1명, 우수
상 4명.

제주시의 인구
40만중 서귀포시
의 10여만인구 중
법환동의 작은 굴
감마을의 어린이
가 서울대회에 참
석하여 수상을 하
도록 지도한 강유
진사범의 노고에

태권도의 명문 남주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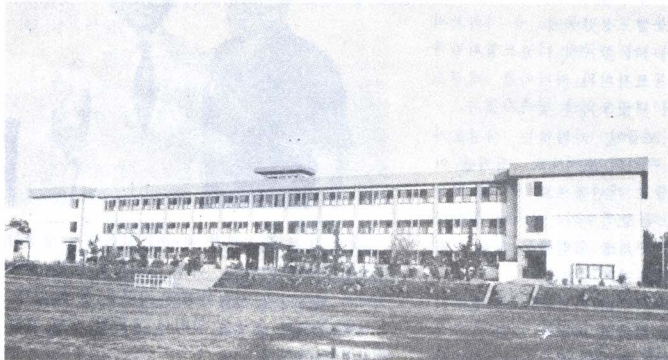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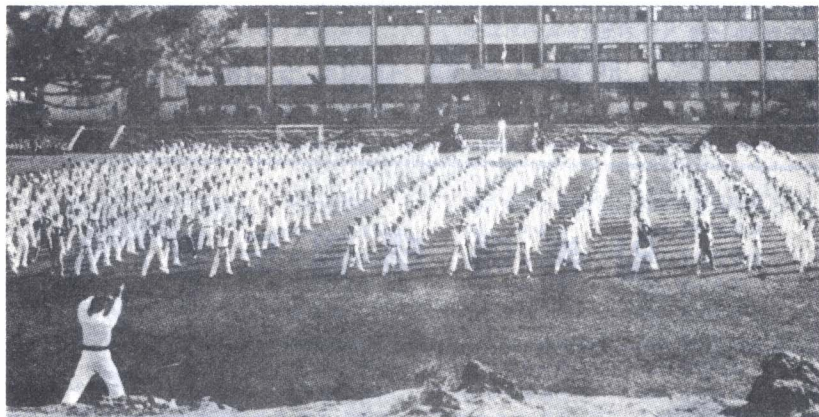


교장 현 승 우

- 참되게 살며,
- 힘써 배우고,
- 굳센 몸으로,

○서로 돕는 학생을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 1) 주체적 의식을 지닌 민주 협동인
- 2) 합리적 사고를 지닌 학습 탐구인
- 3) 자율적 의지를 지닌 정서 건강인을 양성하
는데 태권도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본교는
수영의 한국대표선수를 역임한 康治男(사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74년부터 金昌煥(공인 5단)
선생이 시작 77년부터는 전교생이 수련하는 校
技가 되었다. 金先生은 전국체육대회의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다. 지금은 金先生은 中學校로
전근되고 후임으로 安榮益(4단)先生이 맡아 玄
承祐교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姜奉周교감의 각종
행정배려로 태권도를 활발히 지도육성하고 있다
安先生은 최우수 선수권대회의 준우승까지 입
상을 하였던 태권도인으로 본교에서 매년 제주
도 대표선수들 5명이상 배출했고, 82년도에는 전
도체육대회에 모두 우승을 시키는 저력을 발휘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년 130여 명의 유단자를 졸업시키는 등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여 태권도 저변확대에도 기여하는바 크다. 본교는 교직원중 유단자가 태권도 지도에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학교 전직원이 협력하며 선수육성은 오행선사범이 지도 육성하고 있다.

본교 주요교육 계획에 기초체력 육성을 통한 잠재 능력 개발

1) 기초체력 신장으로 1인 1무도(태권도) 1운동을 실시하며

2) 우수선수 발

굴로는 정채종목(육상, 태권도) 유망종목인 태권도와 태니스를 적극 지원한다로 되어있다.

본교 교장선생님의 1. 건전한 정신, 2. 현명한 계획, 3. 선량한 습관의 교훈이 태권도 정신과 일치하여 교기로 선정 실시함이 다행스럽다

교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83년 3월부터는 중학교에서도 전교생이 주 3시간씩 태권도를 지도하여 졸업시에 태권도 단증을 한손에 쥐고 졸업을 하게 할 계획이다. 중학교의 김창환선생의 노고에 기대를 해 본다.

~~~~~

## 일본에 태권도를!

~~~~~(洪性仁(祥寅))~~~~~



洪性仁(祥寅)

日本속에 태권도를 심은 洪性仁(祥寅)氏は 세계 제 2 차 대전 당시 日本에서 공습을 피하여 제주도로 피난을 가게 된 것이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제

주도에서 소년시절을 보내며 조국애와 민족애의 뜨거운 피가 끓어 다시 일본에 와서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교민을 위한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1956년부터 학생동맹·청년동맹, 등 사회조직 일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태권도협회발족에 뒤이어 일본의 동포사회의 카라테를 태권도로 흡수 재일한국인 태권도회를 발족시켰다.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카라테는 태권도가 세계화의 노정에서 우리의 호적수로 쌍벽을 이루고 있고, 동양무술로 객관적으로 同一時 하는 경향이 있는 태권도를 호적수의 카라테 종주국인 일본에 태권도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하겠다.

지금은 日本에 태권도협회가 오래전에 결성되었고, 일본협회에는 한국인 사범을 초청 종주국의 태권도의 진면모를 전수할 계획이다. 뿐만아

니라 72년부터는 재일동포사회의 2세 3세들에게 조국의 일과 교육을 위하여 2~3세 조국방문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1978년에는 제주도에 4천여만원의 제주태권도협회 회관을 건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회관 “관장”의 명예로운 직책도 갖고 있다.



洪性仁氏は 日本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한 二世인베도 우리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며 日本속에서 한국인의 지위향상에 심혈을 쏟고 있다.

계속 동포와 조국을 위하여 보람된 생활 영위하시길 기원한다.

한국 대학 태권도연맹



회장 이상주박사

대학연맹은
1973년 발족하여
태권도 내실화 및
지도자양성에 기
여한바 크다.

'82년도에는 다
소 실적이 부진한
감이 없지않으나
'82년 12월 연맹
회장이 아시아 태
권도 연맹회장에

피선되는 영광을 가졌다. '82년엔 9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제 6 회 회장기경탈단체전겸
제 9 회 개인선수권대회에 21개대학에서 남학생
182명 여학생 22명이 참가하였다.

'83년에는 제10회 대학개인선수권대회(5. 27,
~28). 제 7 회 회장기경탈 대학단체전(11월중)
을 개최할 예정이고 제 1 회 세계대학 태권도선
수권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대회생 태권도인의 교양을 넓히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태권도 연구 논문집발간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며 계간 태권도 뉴스레터를 발간
할 계획이다.

한국 태권도연맹 가입교현황

- | | |
|------------|-----------|
| 1) 서울대학교 | 2) 연세대학교 |
| 3) 단국대학교 | 4) 동아대학교 |
| 5) 성균관대학교 | 6) 동국대학교 |
| 7) 명지대학 | 8) 홍익공전 |
| 9) 공주사범대학 | 10) 동양공전 |
| 11) 조선대학교 | 12) 인천전문대 |
| 13) 숭정대학교 | 14) 국민대학교 |
| 15) 서울시립대학 | 16) 영남대학교 |
| 17) 대한유도학회 | 18) 경기공전 |
| 19) 대구대학교 | 20) 홍익대학교 |
| 21) 경기대학 | 22) 한양대학교 |

- | | |
|------------|------------|
| 23) 한국체육대학 | 24) 계명대학교 |
| 25) 명지실전 | 26) 인하대학교 |
| 27) 중앙대학교 | 28) 경희대학교 |
| 29) 송원공전 | 30) 경상대학 |
| 31) 세종대학 | 32) 관동대학 |
| 33) 건국대학교 | 34) 청주대학교 |
| 35) 이화여대 | 36) 동덕여고 |
| 37) 고려대학교 | 38) 강원대학교 |
| 39) 제주대학교 | 40) 한국항공대학 |
| 41) 목포대학 | 42) 원광대학교 |
| 43) 신일전문대학 | 44) 숭의여전 |

1983년도 한국 대학태권도연맹 임원명단

(가나다순)

- 회 장 : 이상주(강원대학교 총장)
부 회 장 : 노희덕(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무학장)
" 박충일(인종인쇄(주)회장)
" 한석준(광성종합(주)회장)
전무이사 : 최인범(경기대학)
실행이사 : 윤병열(경기대학)
" 고흥환(연세대학교)
" 박동기(동국대학교)
" 송요식(동아대학교)
" 이규석(유도학교)
" 이승국(한국체육대학)
" 정찬모(스포츠과학연구소)
" 조근중(한양대학교)
" 정행도(명지대학)
" 한상준(강원대학교)
" 최영열(경희대학교)
이 사 : 김계홍(동양공전)
" 김주훈(조선대학교)
" 배영상(계명대학교)
" 오현환(단국대학교)
" 임미자(이화여대)
" 정만순(청주대학교)



부 회 장
노 회 덕



부 회 장
박 중 일



부 회 장
한 석 준



전무이사
최 인 범



실행이사
윤 병 열



실행이사
고 흥 환



실행이사
송 요 승



실행이사
이 규 석



실행이사
이 승 국



실행이사
정 찬 모



실행이사
정 행 도



실행이사
조 근 중



실행이사
최 영 열



실행이사
한 상 준



이 사
김 계 홍



이 사
김 주 훈



이 사
배 영 상



이 사
오 현 환



이 사
임 미 자



이 사
정 만 순



이 사
정 순 천



이 사
정 윤 배



이 사
최 상 배



감 사
신 광 군



감 사
박 해 만

이 사 : 정순철(세종대학)
" 정윤배(성균관대학교)
" 최상배(홍익공전)
감 사 : 산광군(서울시립대학)
" 박해만(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 안대준

선수권대회
일 시 : 1982. 9. 23~24
장 소 : 국기원
참가대학수 : 전국 21개대학
참가인원 : 남자 182명, 여자 22명
나) 연맹회장 이취임식
일 시 : 1982. 9. 16
장 소 : 롯데호텔 사롯데홀
4대 정범모 회장(충북대 총장)이임
5대 신임 이상주회장(강원대 총장)취임

1. 1982년도 한국 대학태권도연맹 사업실적 및 특기사항

가) 제 6 회 회장기쟁탈 단체전, 제 9 회 개인

다) 대학연맹 신입집행부 구성

일 시 : 1982. 12. 18

장 소 : 종로장원회의실

부회장단 추대식 및 이사 임명식

라) 이주상 회장 아시아 태권도연맹 회장피선

일 시 : 1982. 12. 8

장 소 : 싱가포르 아시아연맹 총회

82년 9백여만원 집행

2. 1983년 주요 사업계획

가) 83. 6. 제10회 전국 대학 개인선수권대회
국기원

나) 83. 9. 제 1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예정)

다) 83. 11. 제 7회 회장기쟁탈 전국 대학대학
태권도대회 국기원

라) 년 간 : 태권도 연구 논문집 발간 및 세미나(수시)

태권도 뉴스레터 발간(계간)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준비

'83. 세계대회를 개최할 경우 체육부 보조
금 및 조직위원회 찬조금 4,000여만원을 포함
5,600여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
다.

제 1 회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일 시 : 1983년 9월 24일~25일(2일간)

장 소 : 국기원

한국대학태권도 연맹에서는 대회전 9월21일~22일(2일간)까지 국
제 사범강습회를 개최하고 9월23일엔 태권도 학술세미나(올림픽피아
호텔)를 개최한다.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서독, 이태리, 영국, 스페
인, 브라질, 알제틴, 에쿠아돌,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
라비아, 벨지움, 훈드라스, 덴마크, 요르단, 필리핀, 네델란드, 모
로코, 뉴질랜드, 홍콩, 베네쥬엘라, 이란, 쿠라사오, 오스트랄리아
등 30여개국에 초청장을 보내고 대학연맹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세
계대회에 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에 여념이 없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치도록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

한국 중고 태권도연맹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 삼양학원 406호)



회장 김영웅

82년도 사업 실적

1. 대 회

'82년 본 연맹
이 주최 주관한
제 9회 중고연맹
회장기쟁탈전에
중등부 110명, 여

고부 46명, 남자 고등부 536명으로 총인원 692명
이 참가했으며 제18회 협회장기 쟁탈전에서는
남자 중등부 125명, 여자고등부 48명, 남자고등
부 403명으로 총인원 576명이 참가해 많은 우수
선수들을 배출해냈으며 특히 이들중 8명을 선
정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 멕시코 친선방문

중고연맹에서는 멕시코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
난 82년 8월달에는 김한선(국회의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5명이 멕시코를 친선방문차 다녀왔
다.

3. 예산 총 집행액

28,787,370원을 집행하였다.

83년도 사업계획

- 제10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
맹회장기쟁탈전 (5월 9일~13일)
- 제1회 체육부장관기쟁탈전(7월 18일~22일)
- 멕시코 자매결연 초청 친선경기 (8월경)
- 제19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겸 제10회 중고연
맹개인선수권대회 (9월 19일~23일)

연맹을 이끌어갈 회장 방침

-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주력한다.
- 창의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 해외친선경기를 통한 기술교류에 힘쓴다.
- 유능한 선수의 장학지원에 힘쓴다.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이사명단

| 직 위 | 성 명 | 현 지 업 |
|-------|-------|----------|
| 회 장 | 김 영 웅 | 동국탄광대표이사 |
| 부 회 장 | 한 완 수 | 홍순탄광대표이사 |
| 전무이사 | 박 창 덕 | 영등포교교사 |
| 일반이사 | 김 진 수 | 정성약품대표 |
| " | 이 상 범 | 동국탄광이사 |
| 종무이사 | 이 현 갑 | 대성교교교사 |
| 경기이사 | 김 찬 희 | 대성중교교사 |
| 섭외이사 | 김 부 영 | 고려중교교사 |
| 실행이사 | 조 현 길 | 한성중교교사 |
| " | 윤 태 곤 | 당곡중교교사 |
| " | 정 해 주 | 은광여교교사 |
| " | 이 충 구 | 성암여상교교사 |
| " | 최 권 열 | 문영여중교교사 |
| " | 최 재 혁 | 배명중교교사 |
| 감 사 | 이 태 명 | 시경사법 |

중고연맹 가입학교별 현황

| 중학교 | 성 | 읍 | 지 | 방 |
|-------|---|---|-----|---|
| 남자중학교 | | | | |
| 강동중 | | | 부평중 | |
| 마포중 | | | 경일중 | |
| 경수중 | | | 구월중 | |
| 영등포중 | | | 낙생중 | |
| 한성중 | | | 문산중 | |
| 동대문중 | | | 평리중 | |
| 동성중 | | | 예산중 | |
| 잠원중 | | | 사상중 | |
| 보성중 | | | 향도중 | |

| 서 | 울 | 지 | 방 |
|------|---|-------|---|
| 대성중 | | 배명중 | |
| 한영중 | | 송도중 | |
| 서울체중 | | 영남제일중 | |
| 대신중 | | 풍생중 | |
| 고려중 | | 상인천중 | |
| 덕원중 | | 인천동산중 | |
| | | 시온중 | |
| | | 안중중 | |
| | | 영북중 | |

고등학교

| 남자고등학교 | 서 | 울 | 지 | 방 |
|--------|---|-------|---|---|
| 장훈고 | | 덕원고 | | |
| 경기고 | | 신령고 | | |
| 마포고 | | 낙생고 | | |
| 위례상고 | | 제천상고 | | |
| 명지고 | | 영북중고 | | |
| 영등포고 | | 청주신흥고 | | |
| 충암고 | | 광성고 | | |
| 신진공고 | | 문산종합고 | | |
| 한성고 | | 진주동명고 | | |
| 동도고 | | 경북체고 | | |
| 원양공전 | | 송도상고 | | |
| 승일고 | | 대전체고 | | |
| 안흥전자공고 | | 울산남고 | | |
| 동대문상고 | | 대구공고 | | |
| 동성고 | | 예산고 | | |
| 대성고 | | 대구배영고 | | |
| 서라벌고 | | 경남공고 | | |
| 한영고 | | 부산체고 | | |
| 성동상고 | | 반월상고 | | |
| 성동기계공고 | | 대동고 | | |
| 서울체고 | | 진주상고 | | |
| 동평상고 | | 사천농고 | | |
| | | 함도실고 | | |
| | | 풍생고 | | |

| 지 | 방 |
|--------|---|
| 청주기계공고 | |
| 남한고 | |
| 전북체고 | |
| 수원농림고 | |
| 성도고 | |
| 인천성현 | |
| 동산고 | |
| 시온고 | |
| 고양중고 | |
| 안중중고 | |
| 남대전고 | |
| 인천체고 | |
| 한광고 | |
| 신령고 | |
| 삼천포고 | |
| 삼천포공고 | |
| 전남체고 | |
| 광주동일실고 | |
| 브니엘고 | |
| 수성고 | |

| 여자중학교 | 서 | 울 | 지 | 방 |
|-------|------|---|-------|---|
| | 한강여중 | | 법원여중 | |
| | 대방여중 | | 상인천여중 | |
| | 은평여중 | | 평택여중 | |
| | 송인여중 | | | |
| | 금호여중 | | | |

| 여자고등학교 | 서 | 울 | 지 | 방 |
|--------|------|---|---------|---|
| | 은평여고 | | 예덕여자실고 | |
| | 청산여상 | | 청운여자실업고 | |
| | | | 배영여상 | |
| | | | 부평여상 | |
| | | | 문성여상 | |
| | | | 비봉고 | |
| | | | 승선여고 | |



부 회 장
한 완 수



전무이사
박 창 덕



이 사
김 진 수



이 사
이 상 범



이 사
이 현 갑



이 사
김 찬 회



이 사
김 무 영



이 사
조 현 길



이 사
윤 태 곤



이 사
정 해 주



이 사
이 중 구



이 사
최 권 열



이 사
최 재 혁



감 사
이 맥 영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장
송봉성



부위원장
임춘길

전국의 태권도인구의 4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의 각종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기술전문위원회 임원은 전무이사 송봉성을 위원장, 사무국장 임춘길 부위원장으로 12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송봉성

“ 부위원장 임춘길

기획분과위원장 홍정부

부위원장 전판선 · 김용태

경기분과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 박용국

심사분과위원장 강영복

부위원장 유병호 · 이진오

심판분과위원장 고국환

부위원장 전만식

상별분과위원장 최중수

부위원장 김종오 · 정찬진

도장관리분과위원장 전성환

부위원장 조규학 · 조환우

연구분과위원장 송경섭

부위원장 김영곤 · 엄홍섭

시설분과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김태균 · 연성희

섭외분과위원장 안인식

부위원장 장재성 · 김갑용

시범분과위원장 이택명

부위원장 최재무 · 이종관

홍보분과위원장 장기승

부위원장 나용경 · 강동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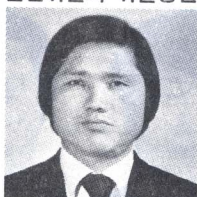
교육분과위원장 오부용

부위원장 박창선 · 이철수

전문위원회 위원장단



기획
분과위원장
홍정부



경기
분과위원장
김정기



심사
분과위원장
강영복



심 판
분과위원장
고 국 환



상 별
분과위원장
최 중 수



도장관리
분과위원장
전 심 환



연 구
분과위원장
송 경 십



시 설
분과위원장
김 영 삼



교 육
분과위원장
오 부 웅



시 범
분과위원장
이 택 명



홍 보
분과위원장
장 기 승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위원장

~~~~~ 김 봉 기 ~~~~~

83년도의 태권도선수의 등용문인 종별선수권대회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친 5일간 국기원에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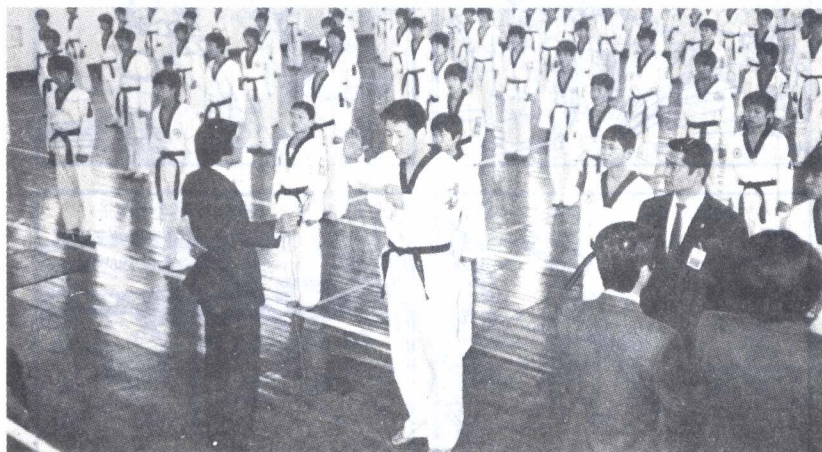
본 대회에는 총 758명이 참가하였다. 참가현황을 부별로 보면, 중등부 28개교, 고등부 91개교, 대학부 8개교와 55개의 일반체육관이 참가하였다.

예년에 비해 참가인원은 다소 적었으나 일반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은 많이 향상되어 거의 평준화되었음은, 태권도 경기인구가 확대되고 있음으로 표현되었다. 특기할 경기로는 목포대의 라이트급 박영석선수가 대림공전 김시경선수를 2회 1분 10초에 뒤돌아차기로 얼굴을 강타 KO시켰고, 계속 상승세로 라이트급 우승을 하였다. 그리고 인천체대는 8체급중 7체급을 석권하여



신인 대학부 선수권대회를 휩쓸었다고 하겠다.

경기장의 경기운영은 질서정연하게 잘 운영되었으며 격렬한 경기에 부상한전 없이 무사히 마쳤다.





대학부 우승자



일반부 우승자

## '83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입상자명단(대학부)

| 성명<br>체급 소속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급         | 한진구 | 인천전대  | 이길선 | 인천전대  | 우하성 | 대구보천  | 정명호 | 인천전대  |
| 플라이급        | 소병국 | 인천전대  | 임석규 | "     | 강동훈 | 인천전대  | 김태봉 | 대구보천  |
| 밴 탐 급       | 최광진 | "     | 박종만 | 세종대학  | 이경택 | 유 도 대 | 최병갑 | 인천전대  |
| 페 터 급       | 이원형 | "     | 양형찬 | 유 도 대 | 최무훈 | "     | 황선호 | "     |
| 라이트급        | 박영석 | 목 포 대 | 우형승 | "     | 김광환 | 인하공전  | 의현석 | "     |
| 웰 터 급       | 강호일 | 인천전대  | 강신재 | "     | 설호필 | 인천전대  | 김경훈 | 유 도 대 |
| L미들급        | 우종정 | "     | 오병무 | 유 도 대 | 정창호 | "     | 마재의 | "     |
| 미 들 급       | 이병희 | "     | 정태준 | 인천전대  | 곽성주 | 인하공전  | 김희섭 | 인천전대  |

## '83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입상자명단(일반부)

| 성명<br>체급 소속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급         | 이경석 | 인 천 체육관 | 이동욱 | 양 남 체육관 | 서키초 | 경기제일체육관 | 김학균 | 경기청도체육관 |
| 플라이급        | 김종근 | 비 룡 "   | 유재준 | 신 일 "   | 서창원 | 구 리 "   | 홍명운 | 쌍 용 "   |
| 밴 탐 급       | 유영근 | 경 기 "   | 홍의수 | 칠원한무 "  | 남기정 | 서산중의 "  | 김성학 | 경 남 "   |
| 페 터 급       | 이승범 | 합 평 "   | 김세균 | 한 국 "   | 박명규 | 동 아 "   | 한명신 | 영 동 "   |
| 라이트급        | 이성형 | 청 무 "   | 신병현 | 경기청도 "  | 송복천 | 구 룡 "   | 최병창 | 서산중의 "  |
| 웰 터 급       | 송운덕 | 간 석 "   | 염광우 | 강 화 "   | 김광규 | 서산중의 "  | 강동규 | 경 남 "   |
| L미들급        | 이해권 | 동대문 "   | 이기범 | 목 포 "   | 연제원 | 원 도 "   | 유성기 | 효 성 "   |
| 미 들 급       | 조성술 | 반 여 "   | 김기정 | 안 면 "   | 오인환 | 강 동 "   |     |         |
| L레비급        | 송응관 | 서산중의 "  | 우진영 | 간 석 "   | 김신일 | 경기청무 "  |     |         |





중등부 우승자



고등부 우승자

'83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입상자명단(중등부)

| 성명<br>체급 | 등위 | 1 위 |         |  | 2 위 |         |  | 3 위 |         |     |          |
|----------|----|-----|---------|--|-----|---------|--|-----|---------|-----|----------|
|          |    | 성 명 | 소 속     |  | 성 명 | 소 속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급      |    | 김도은 | 풍 생 중학교 |  | 최시호 | 시 은 중학교 |  | 고지형 | 제주중앙중학교 | 이승철 | 문 산 동중학교 |
| 플라이급     |    | 오병철 | 제주서귀 "  |  | 정희철 | 한 성 "   |  | 일현진 | 풍 생 "   | 정해구 | 성 수 "    |
| 밴 탈 급    |    | 신지호 | 배 명 "   |  | 조규식 | 경 수 "   |  | 박태동 | 백 제 "   | 최영우 | 경 수 "    |
| 페 터 급    |    | 서용석 | 백 제 "   |  | 김병갑 | 경 수 "   |  | 정 한 | 한 성 "   | 최창만 | 풍 생 "    |
| 라이트급     |    | 이종현 | 경 수 "   |  | 이종은 | 경 수 "   |  | 이기환 | 한 성 "   | 이태구 | 상인천 "    |
| 웰 터 급    |    | 최용배 | 백 제 "   |  | 전광수 | 풍 생 "   |  | 오정용 | 한 성 "   | 김태연 | 목포칠호 "   |
| 미 들 급    |    | 정홍주 | 덕 원 "   |  | 이천우 | 경 수 "   |  | 송시경 | 제주신창 "  | 최준철 | 백 제 "    |
| 헤 비 급    |    | 황정환 | 경 수 "   |  | 김태복 | 한 성 "   |  | 이상훈 | 풍 생 "   | 이덕영 | 상인천 "    |

'83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입상자명단(고등부)

| 성명<br>체급 | 등위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성 명 | 소 속      | 소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핀 급      | 양광모 | 성동상업고등학교 | 이선립 | 남대전 고등학교 | 신재동 | 목 포 고등학교 | 한동수 | 향도실업고등학교 |  |
| 플라이급     | 정현준 | 성동 "     | 김인호 | 남대전 "    | 김충일 | 아 산 "    | 김성환 | 성동상업 "   |  |
| 밴 탈 급    | 김현배 | 전남체육 "   | 김광식 | 송 실 "    | 양병구 | 성동상업 "   | 김재민 | 삼천포공업 "  |  |
| 페 터 급    | 박범수 | 수 성 "    | 이현태 | 전남체육 "   | 김용섭 | 향도실업 "   | 이창배 | 경기한광 "   |  |
| 라이트급     | 연기호 | 송 실 "    | 하태은 | 마 포 "    | 김성진 | 한 성 "    | 김우종 | 풍 생 "    |  |
| 웰 터 급    | 전광기 | 남대전육 "   | 한권희 | 마 포 "    | 박홍서 | 경 문 "    | 이한규 | 한 성 "    |  |
| L미들급     | 김재승 | 전북체육 "   | 진윤환 | 인천체고 "   | 지치현 | 대구공업 "   | 이화상 | 문산종합 "   |  |
| 미 들 급    | 이병찬 | 향도실업 "   | 강수광 | 풍 생 "    | 강봉재 | 전남체육 "   | 이성우 | 삼천포 "    |  |
| L헤비급     | 김진호 | 전남체육 "   | 박재준 | 덕 원 "    | 최진성 | 전북체육 "   | 정재서 | 경기한광 "   |  |
| 헤 비 급    | 김광섭 | 동 성 "    | 김영주 | 경상공업 "   | 정명호 | 경 문 "    | 정택주 | 동일실업 "   |  |

# 1983국가대표 1차 선발전

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 김 봉 기



동일 시 취급하여 치루는 경기로 선수나 코치, 모두가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였다. 특히 지방팀으로는 경기도 풍생고등학교가 3명이나 1위입상하여 새로운 강팀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대표자회의시 코치부장 및 경기장질서에 관하여 강조를 한 성과가 있어 코우치席에 코치는 추레닝과 운동화를 착용 시합에 임하는 태도가 바람직했고 상대선수를 격려하는 등, 화기애애하였다. 그리고 경기장에서서의 금언은 선수와

83년도 한국을 대표하는 1차선발전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각팀들의 우수선수들의 열전장 다음게 고등부 23개교, 대학부 21개교, 일반부 16개 체육관 등 60개팀이 출전하여 한국대표선수가 탄생되는 產 苦(산고)를 겪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듯 하였다.

이 대회에는 전국규모대회 3위이상의 입상 전적이 있는 선수들로서 핀급 32명, 플라이급 37명, 밴텀급 47명, 페터급 47명, 라이트급 52명, 웰터급 39명, L미들급 25명, 미들급 19명, L헤비급 22명, 헤비급 19명 등 총 338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개최식에는 李永鎬 체육부次官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여주시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더우기 본 경기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가리지 않고

임원, 관객등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것 같아 계속 장려할 일이라 생각되었다.



## 83년도 국가대표 1차선발전 입상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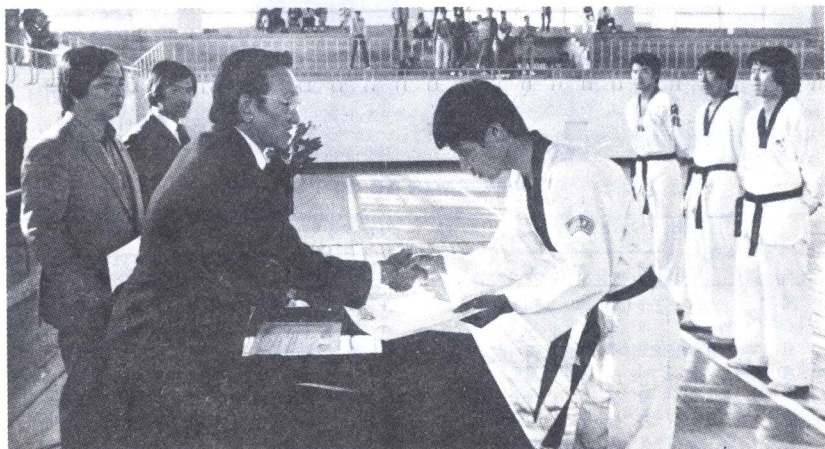
1983. 4. 13~15

| 성명 | 소속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 급  | 김철기 | 풍 생 고 | 왕광연 | 전 남 체 고 | 최용덕 | 서울체고  | 이창석 | 청 주 대 |
| 플  | 급  | 김기호 | 한국체대  | 김준태 | 동 성 고   | 오영주 | 서울체고  | 지민규 | 청 주 대 |
| 라  | 급  | 박기성 | 한국체대  | 박종권 | 동 성 고   | 한규상 | 유 도 대 | 권기문 | 한국체대  |
| 벨  | 급  | 이우선 | 풍 생 고 | 이경식 | 한국체대    | 김재권 | 조 선 대 | 정호영 | 한국체대  |
| 페  | 급  | 양형수 | 양형수   | 이종호 | 한국체대    | 서종찬 | 유 도 대 | 박기용 | 성균관대  |
| 라  | 급  | 이준명 | 한국체대  | 박천재 | 한국체대    | 정정국 | 명 지 대 | 이효주 | 한국체대  |
| 헬  | 급  | 최찬웅 | 유 도 대 | 김병삼 | 동 아 대   | 김양기 | 조 선 대 | 김양우 | 한국체대  |
| L  | 급  | 장길환 | 한국체대  | 이정진 | 경 회 대   | 박종율 | 한 양 대 | 이계행 | 조 선 대 |
| 미  | 급  | 강용구 | 명 지 대 | 김명근 | 한국체대    | 황선두 | 유 도 대 | 김종석 | 용 비   |
| L  | 급  | 용영록 | 유 도 대 | 최호성 | 웅 비     | 박형대 | 조 선 대 | 최남규 | 동 아 대 |
| 해  | 급  |     |       |     |         |     |       |     |       |



# '83 국가대표 최종선발

〈협회경기분과제공〉



'83한국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전이 4월 22일 국기원에서 거행되었다. 아침 7시 30분~8시까지 제체를 마치고 의례적으로 8시 30분까지 대표자회의를 끝내고 9시에 경기에 들어갔다. 경기는 단일코트에 심판규정은 5심제로 실시하였다. 참가선수는 제 5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82년도 최우수 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83년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의 1위, 2위 입상자 등 4명이 리그전으로 1, 2, 3위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제 5회 아시아선수권대회의 우승자 최천선수의 부상으로 최종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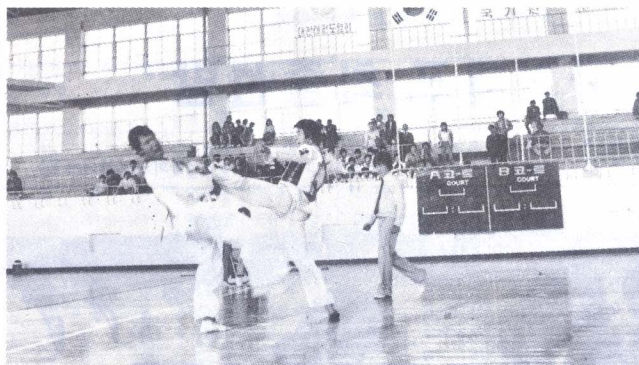
참가선수는 39명으로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하는 제 6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2위 입상자는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할 예정이 있는 대회가므로 각팀의 감독, 코우치는 물론, 출

전선수는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다. 특히 할 사항은 82년도 국가대표선수가 5명이나 탈락이 되었고 경기중 KO승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경기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겠다. 또한 한국체육대학은 이번 대회에 5명이 우승을 하여 한국체육대학 축재라도 여는듯 하였다. 당당히 국립체육대학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우수선수가 되는 지름길임을 말해 주는 듯 하였다.

우리는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은 목전에 두고 있다. 태권도선들의 상비군 제도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체계있고 조직적인 관리도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겠다.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에게는 병역의무면제, 국민주택우선분양, 공로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체육진흥연구연금도 지급될 전망이다.





우리 태권도도 여  
발전하여 실업팀등 대  
중속에 뿌리내려 선수  
들의 내일에 진로가  
더욱 넓혀지기를 바라  
는 마음이다.

본 대회의 최종선발  
자명단은 다음과 같고  
본 대회의 최연소 신  
인으로는 편급에 전남  
체고의 **왕광연**선수의  
출현이라 하겠다. 내  
일을 기대해 본다.

83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자 명단

1983. 4. 22

| 성명<br>소속 | 등위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 체급       |    |       |      |       |       |       |      |
| 핀        | 급  | 왕 광 연 | 전남체고 | 지 용 석 | 청주기공  | 김 철 기 | 동성고  |
| 라 이      | 급  | 고 정 호 | 한국체대 | 김 기 호 | 한국체대  | 김 준 태 | 동성고  |
| 밴        | 급  | 한 홍 식 | 경희대  | 박 기 성 | 한국체대  | 김 중 기 | 동아대  |
| 페        | 급  | 이 재 봉 | 한국체대 | 장 명 삼 | 경희대   | 이 경 식 | 한국체대 |
| 라 이      | 급  | 한 계 구 | 청주대  | 정 우 용 | 한국체대  | 양 형 수 | 동성고  |
| 웰        | 급  | 최 광 근 | 한국체대 | 이 준 명 | 한국체대  | 곽 용 수 | 경희대  |
| L        | 급  | 정 국 현 | 한국체대 | 최 찬 용 | 유도대   | 오 일 남 | 대구대  |
| 미        | 급  | 이 동 준 | 충북도장 | 장 질 환 | 한국체대  | 박 중 울 | 한양대  |
| L        | 급  | 문 종 국 | 한국체대 | 고 영 철 | 유도대   | 김 명 곤 | 한국체대 |
| 해        | 급  | 장 승 화 | 해 동  | 하 용 성 | 서사체육관 | 윤 영 록 | 유도대  |

성명 : 왕 광 연

생년월일 : 1965년 12월 15일생

소속 : 전남체육고 재중

체급 : 핀 급

전적 :

82. 4. 28 제 9회중고연맹회장

기쟁탈전

핀급 3위

82. 6. 15 제17회대통령기쟁탈전

핀급 1위

82. 10. 18 제63회전국체전

핀급 3위

83. 4. 15 83국가대표선수선발 1차선

발전

핀급 2위

83. 4. 22 83국가대표선수선발최종전

핀급 1위



성명 : 한 홍 식

생년월일 : 1963년 1월 15일생

소속 : 경희대학교

체급 : 밴턴급

전적 :

79. 5. 20 제14회대통령기쟁탈

전국단체대항전

플라이급 1위

81. 9. 26 제17회협회장기점

제 8회중고개인전

플라이급 1위

81. 10. 14 제62회전국체육대회

밴턴급 3위

82. 4. 17 1982년도한국대표선수

선발최종전

밴턴급 3위

82. 10. 18 제63회전국체육대회

밴턴급 3위

83. 4. 15 1983년도한국대표선수

선발최종전

밴턴급 1위



성 명 : 이 동 준

생년월일 : 1961년 3월 5일생

소 속 : 충북체육관

체 급 : 미들급

전 적 :



78. 10. 19 제59회 전국체육대회 미들급 1위  
 79. 10. 17 제60회 전국체육대회 미들급 1위  
 80. 11. 26 1980년도 전국우수선수대회 미들급 1위  
 81. 3. 28 1981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미들급 1위  
 81. 7. 31 제 1 회 월드컵태권도대회 미들급 1위  
 81. 10. 14 제62회 전국체육대회 미들급 1위  
 82. 5. 14 1982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미들급 1위  
 82. 6. 15 제17회 대통령기쟁탈전국단체대항전 미들급 1위  
 82. 10. 18 제63회 전국체육대회 미들급 1위  
 82. 12. 13 제 5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83. 4. 15 1983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미들급 1위

성 명 : 최 광 근

생년월일 : 1961년 3월 8일생

소 속 : 한국체육대학

체 급 : 웰터급

전 적 :



80. 3. 15 1980년도 전국신인선수권대회 웰터급 3위  
 80. 9. 19 제 7 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웰터급 2위  
 80. 10. 25 제 4 회 연세대학교총장기쟁탈전 웰터급 2위  
 83. 4. 15 1983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웰터급 1위

성 명 : 장 승 화

생년월일 : 1959년 7월 8일생

소 속 : 해군복무중

체 급 : 헤비급

전 적 :



80. 4. 2 1980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1차선발대회 헤비급 1위  
 80. 11. 25 1980년도 한국우수선수대회 발대회 헤비급 1위  
 81. 6. 13 제16회 대통령기쟁탈전국단체대항전 헤비급 1위  
 81. 9. 20 제 8 회 대학연맹개인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82. 4. 16 1982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발차전 헤비급 1위  
 82. 5. 14 1982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발최종전 헤비급 1위  
 82. 6. 15 제17회 대통령기쟁탈전국단체대항전 헤비급 1위  
 82. 10. 18 제63회 전국체육대회 헤비급 1위  
 82. 12. 19 제 5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83. 4. 15 1983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발최종전 헤비급 1위

성 명 : 이 재 봉

생년월일 : 1961년 6월 9일생

소 속 : 한국체육대학

체 급 : 페더급

전 적 :



77. 11. 26 1977년도 전국우수선수대회 발대회 밴던급 1위  
 80. 10. 12 제61회 전국체육대회 페더급 1위  
 80. 11. 26 1980년도 전국우수선수대회 발대회 페더급 1위  
 82. 6. 12 제17회 대통령기쟁탈전국단체대항전 페더급 1위  
 82. 9. 24 제 9 회 대학연맹개인선수권대회 페더급 3위  
 82. 11. 5 1982년도 전국우수선수대회 발대회 페더급 1위  
 83. 4. 15 1983년도 한국대표선수대회 발최종전 페더급 1위

◇ 경 기 ◇

성 명 : 한 재 구

생년월일 : 1962년 12월 10일생

소 속 : 청주대학

체 급 : 라이트급

전 적 :

80. 7. 4 제15회대통령기쟁탈전  
국단체대항전 페더급 2위
80. 10. 12 제61회전국체육대회 페더급 1위
82. 5. 14 82년도국가대표선수선  
발최종전 라이트급 1위
82. 12. 13 제 5 회 아시 아태권도선  
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83. 4. 15 1983년도국가대표선수  
선발최종전 라이트급 1위



성 명 : 고 정 호

생년월일 : 1964년 5월 26일생

소 속 : 한국체육대학

체 급 : 플라이급

전 적 :

80. 3. 15 1980년도전국신인  
선수권대회 핀급 1위
81. 3. 14 1981년도한국대표 1차  
선발대회 핀급 1위
81. 9. 26 제17회협회장기검  
제 8 회 중고연맹전 플라이급 1위
81. 10. 14 제62회전국체육대회 플라이급 2위
81. 11. 6 1981년도전국우수선수  
선발대회 플라이플 1위
82. 8. 21 제18회중고연맹회장기  
쟁탈전 급약식급 1위
83. 4. 15 1983년도국가대표선수  
선발최종전 플라이급 1위



성 명 : 문 종 국

생년월일 : 1963년 2월 7일생

소 속 : 한국체육대학

체 급 : 라이트헤비급

전 적 :

80. 10. 12 제61회전국체육대회 웰터급 2위
81. 6. 13 제16회대통령기쟁  
탈전국단체대항전 라이트미들급 1위
81. 10. 14 제 62 회 전 국 체 육 대  
회 라이트미들급 1위
82. 6. 15 제17회대통령기쟁  
탈전국단체대항태  
권도대회 라이트헤비급 1위
83. 4. 15 1983년도한국대표  
선수선발최종전 라이트헤비급 1위



성 명 : 정 국 현

생년월일 : 1962년 3월 15일생

소 속 : 한국체육대학

체 급 : L. 미들급

전 적 :

79. 4. 26 제 6 회 중 고 연 맹 회  
장기쟁탈개인선수  
권전 라이트미들급 1위
79. 10. 16 제60회전국체육대  
회 라이트미들급 1위
81. 3. 28 1981년도한국대표  
선수선발최종전 라이트미들급 2위
81. 6. 13 제16회대통령기쟁  
탈전 라이트미들급 1위
81. 10. 14 제62회전국체육대  
회 라이트미들급 1위
82. 10. 18 제63회전국체육대  
회 라이트미들급 1위
82. 11. 5 1982년도전국우수  
선수선발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82. 2. 27 제 5 회 세 계 태 권 도  
선수권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83. 4. 15 1983년월일년도한  
국대표선수선발최  
종전 라이트미들급 1위



## 제1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전주 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1983년 5월 21일 ~23일까지 전국 13개 시도협회의 중등부선수 8체급에 13명씩 204명이 출전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열전 2일간의 경기에 들어갔다.

각 시도선수들의 기량이 백중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가 속출하는 등, 많은 발전을 보였다.

21일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전북 태권도협회 강성원회장(전주시장)이 배운 환영만찬이 오후 7시에 있었으며 22일 오전 9시부터 경기를 질서 정연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23일 시상식에 앞서 금번 대회를 주관하여 태권도발전에 기여한 문창균부회장과 장한철전무이사에게 김운용 회장을 대신하여 염운규 부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하고 시상을 하였다.

종합성적 1위 서울특별시, 2위 전라북도, 3위 전라남도, 4위 경상북도, 5위 충청북도, 6위 제주도를 하였다.

인구 40만밖에 안되는 제주도가 13개팀 중에 6위에 입상함은 태권제주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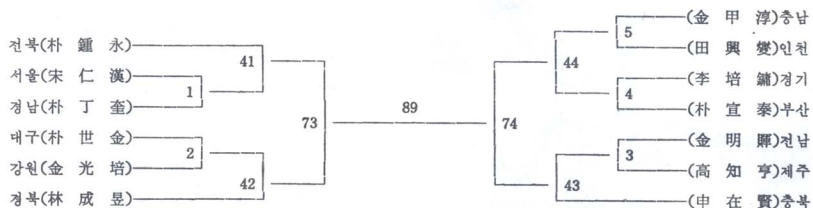


이라 하겠다.

선수의 대진표  
와 단체 입상과  
개인전적은 다음  
과 같다.



## 핀 급(37kg이하)



Phylogenetic tree showing relationships between 12 taxa based on 10 morphological characters. Bootstrap values are indicated at the nodes.

- Node 90 (Root)
  - Node 75 (Left)
    - Node 45
      - Node 6
        - 전남(金 性 哲)
        - 전남(金 祥 哲)
      - Node 46
        - 경북(李 相 旭)
        - 대구(金 漢 鐵)
        - 제주(吳 秉 喆)
    - Node 48 (Right)
      - Node 10
        - (朴 眞 永)경기
        - (朴 光 植)충남
      - Node 9
        - (崔 勝 皓)인천
        - (金 台 恒)강원
      - Node 8
        - (金 容 奭)부산
        - (李 在)경남
      - Node 47
        - (鄭 奎 植)서울

밴 텀 급(43kg까지)

|           |    |    |    |  |  |  |  |  |    |           |
|-----------|----|----|----|--|--|--|--|--|----|-----------|
| 전북(李 勳)   |    |    |    |  |  |  |  |  |    | (池 龍 植)전남 |
| 경북(林 鍾 洛) |    |    |    |  |  |  |  |  | 15 | (朴 鍾 範)충북 |
| 부산(曹 建 華) | 11 |    |    |  |  |  |  |  |    | (姜 哲 規)대구 |
| 인천(朴 閔 相) |    |    |    |  |  |  |  |  | 14 | (尹 福 采)경기 |
| 충남(朴 泰 炯) |    | 12 |    |  |  |  |  |  |    | (李 光 魯)서울 |
| 경남(金 濟 經) |    |    | 50 |  |  |  |  |  | 13 | (金 承 赫)강원 |
|           |    |    |    |  |  |  |  |  | 51 | (秦 正 雨)제주 |

페 더 급(46kg까지)

|         |    |    |    |    |    |         |         |
|---------|----|----|----|----|----|---------|---------|
| 전북(朴俊永) | 53 | 79 | 92 | 80 | 56 | 20      | (郭英俊)경기 |
| 제주(姜東均) |    |    |    |    |    | 16      | (廉峻皓)강원 |
| 부산(金泰亨) | 17 |    |    |    | 19 | (金德龍)경북 |         |
| 대구(金軍謂) |    |    |    |    |    | (李正杓)경남 |         |
| 충남(徐庸碩) | 54 |    |    |    | 8  | (朴昞秀)충북 |         |
| 서울(張赫郭) |    |    |    |    |    | 55      | (許東明)인천 |
|         |    |    |    |    |    | (池茂辰)전남 |         |

라이트급(49kg까지)

|           |    |    |    |    |    |           |           |
|-----------|----|----|----|----|----|-----------|-----------|
| 전북(金 鍾 煒) | 57 | 81 | 93 | 82 | 60 | 25        | (崔 哲 昊)충남 |
| 충북(成 樂 炯) |    |    |    |    |    | 21        | (李 鍾 玄)서울 |
| 경남(金 鐵 圭) | 21 |    |    |    | 24 | (鄭 宇 植)전남 |           |
| 부산(孫 鴻 翼) | 22 |    |    |    |    | (金 光 範)경북 |           |
| 인천(李 泰 求) | 58 |    |    |    | 59 | 23        | (劉 東 守)경기 |
| 대구(石 宗 祐) |    |    |    |    |    | (明 京 仁)제주 |           |
|           |    |    |    |    |    | (鄭 在 輪)강원 |           |



◇ 경 기 ◇

웨 터 급(55kg까지)

|           |    |    |    |    |    |    |           |
|-----------|----|----|----|----|----|----|-----------|
| 전봉(鄭 秉 卷) |    |    |    |    |    |    | (金 賢 錫)대구 |
| 경기(朴 在 錦) | 26 | 61 |    |    |    | 64 | (權 慶 泰)서울 |
| 경남(朴 寶 應) |    |    | 83 | 94 | 84 | 29 | (金 炳 哲)인천 |
| 강원(朴 相 讀) | 27 |    |    |    |    |    | (李 正 民)충북 |
| 경북(李 熙 永) |    | 62 |    |    |    | 28 | (千 永 鐵)부산 |
| 제주(金 昌 賢) |    |    |    |    | 63 |    | (崔 龍 培)충남 |
|           |    |    |    |    |    |    | (田 在 枯)전남 |

미 들 급(56kg까지)

|           |    |    |    |    |    |    |           |
|-----------|----|----|----|----|----|----|-----------|
| 전북(千 炳 烈) |    |    |    |    |    |    | (梁 大 承)서울 |
| 충북(金 榮 春) | 31 | 65 |    |    |    | 68 | (姜 相 喆)경기 |
| 전남(金 承 在) |    |    | 85 | 95 | 86 | 34 | (朴 峻 暉)대구 |
| 제주(柳 鍾 寶) |    |    |    |    |    |    | (柳 鍾 寶)경남 |
| 충남(金 春 植) | 32 |    |    |    |    | 33 | (全 範 植)강원 |
| 경북(李 庚 辰) |    | 66 |    |    | 67 |    | (張 壽 鉉)인천 |
|           |    |    |    |    |    |    | (李 在 沃)부산 |

헤 비 급(56kg이상)

|           |    |    |    |    |    |    |           |
|-----------|----|----|----|----|----|----|-----------|
| 전북(安 泰 원) |    |    |    |    |    |    | (高 辰 洙)경기 |
| 대구(李 康 熙) | 36 | 69 |    |    |    | 72 | (裴 順 梅)인천 |
| 부산(尹 章 碩) |    |    | 87 | 96 | 88 | 39 | (河 成 浩)충북 |
| 서울(尹 建 成) |    |    |    |    |    |    | (左 元 奉)제주 |
| 전남(林 根 男) | 37 |    |    |    |    | 38 | (崔 眞 源)강원 |
| 경북(金 炳 燦) |    | 70 |    |    | 71 |    | (金 成 三)경남 |
|           |    |    |    |    |    |    | (吳 大 寧)충남 |

제1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종합점수표

| 시도명   | 구 분 | 개인점수 | 종합점수  | 메달점수  | 총 합 계  | 등 위 | 비 고 |
|-------|-----|------|-------|-------|--------|-----|-----|
| 서울특별시 |     | 84   | 1,050 | 300   | 1,350  | 1   |     |
| 부산지할시 |     | 55.5 | 694   | 0     | 694    | 8   |     |
| 대구지할시 |     | 51   | 638   | 40    | 678    | 9   |     |
| 인천지할시 |     | 43   | 538   | 120   | 658    | 10  |     |
| 경기도   |     | 45   | 563   | 20    | 583    | 12  |     |
| 강원도   |     | 51   | 638   | 60    | 698    | 6   |     |
| 충청북도  |     | 54   | 675   | 60    | 735    | 5   |     |
| 충청남도  |     | 49.5 | 619   | 2     | 639    | 11  |     |
| 전라북도  |     | 76   | 950   | 160   | 1,110  | 2   |     |
| 전라남도  |     | 65   | 813   | 220   | 1,033  | 3   |     |
| 경상북도  |     | 64   | 800   | 180   | 980    | 4   |     |
| 경상남도  |     | 39   | 488   | 40    | 528    | 13  |     |
| 제주도   |     | 51   | 638   | 60    | 698    | 6   |     |
| 합 계   |     | 728  | 9,104 | 1,280 | 10,384 |     |     |

## 제1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입상자명단

| 체     | 급 | 등 위 | 성 | 명 | 소 학 교 | 속 명     | 학년반 | 생 년 월 일    | 비 | 고 |
|-------|---|-----|---|---|-------|---------|-----|------------|---|---|
| 핀     | 급 | 1위  | 임 | 성 | 육     | 경북체육중   | 3   | 68. 5. 24  | 경 | 북 |
|       |   | 2위  | 전 | 홍 | 섭     | 부 평 중   | 3   | 68. 7. 18  | 인 | 천 |
|       |   | 3위  | 송 | 인 | 한     | 동 성 중   | 2   | 69. 5. 8   | 서 | 울 |
|       |   | 3위  | 고 | 지 | 형     | 중 앙 중   | 3   | 68. 9. 1   | 제 | 주 |
| 플 라 이 |   | 1위  | 김 | 양 | 식     | 완 산 중   | 1   | 70. 9. 27  | 전 | 북 |
|       |   | 2위  | 조 | 규 | 식     | 경 수 중   | 2   | 68. 4. 9   | 서 | 울 |
|       |   | 3위  | 오 | 병 | 철     | 서 귀 포 중 | 2   | 69. 5. 5   | 제 | 주 |
|       |   | 3위  | 김 | 태 | 환     | 완 주 중   | 3   | 68. 4. 10  | 강 | 원 |
| 밴 팀 급 | 급 | 1위  | 지 | 용 | 식     | 북 성 중   | 3   | 69. 7. 5   | 전 | 남 |
|       |   | 2위  | 이 |   | 훈     | 완 산 중   | 3   | 68. 5. 22  | 전 | 북 |
|       |   | 3위  | 김 | 제 | 경     | 울산중앙중   | 2   | 70. 11. 10 | 경 | 남 |
|       |   | 3위  | 진 | 정 | 우     | 서 귀 포 중 | 2   | 69. 3. 25  | 제 | 주 |
| 페 터 급 | 급 | 1위  | 장 |   | 혁     | 체 육 중   | 2   | 69. 10. 3  | 서 | 울 |
|       |   | 2위  | 심 | 무 | 진     | 전 남 중   | 3   | 69. 3. 21  | 전 | 남 |
|       |   | 3위  | 박 | 준 | 영     | 중 앙 중   | 3   | 68. 3. 5   | 전 | 북 |
|       |   | 3위  | 김 | 덕 | 용     | 경북체육중   | 3   | 68. 5. 21  | 경 | 북 |
| 라 이 트 |   | 1위  | 정 | 우 | 식     | 해남하원중   | 3   | 69. 10. 5  | 전 | 남 |
|       |   | 2위  | 석 | 종 | 우     | 평 리 중   | 3   | 69. 8. 15  | 대 | 구 |
|       |   | 3위  | 성 | 나 | 형     | 청 주 남 중 | 3   | 68. 4. 20  | 충 | 북 |
|       |   | 3위  | 정 | 재 | 운     | 고 한 중   | 2   | 69. 1. 15  | 강 | 원 |
| 웰 터 급 | 급 | 1위  | 김 | 병 | 철     | 부 평 중   | 3   | 68. 5. 1   | 인 | 천 |
|       |   | 2위  | 이 | 회 | 영     | 경 북 체 중 | 3   | 68. 7. 3   | 경 | 북 |
|       |   | 3위  | 박 | 재 | 금     | 안 중 중   | 3   | 68. 7. 13  | 경 | 기 |
|       |   | 3위  | 최 | 용 | 배     | 백 제 중   | 3   | 68. 10. 6  | 충 | 남 |
| 미 들 급 | 급 | 1위  | 양 | 대 | 승     | 동 성 중   | 3   | 69. 2. 15  | 서 | 울 |
|       |   | 2위  | 이 | 경 | 진     | 홍 해 중   | 3   | 69. 3. 10  | 경 | 북 |
|       |   | 3위  | 김 | 승 | 재     | 장흥판산중   | 3   | 69. 9. 13  | 전 | 남 |
|       |   | 3위  | 전 | 범 | 식     | 강원고한중   | 3   | 68. 11. 13 | 강 | 원 |
| 해 비 급 | 급 | 1위  | 윤 | 전 | 성     | 배 명 중   | 3   | 68. 4. 1   | 서 | 울 |
|       |   | 2위  | 한 | 정 | 호     | 청 주 남 중 | 2   | 68. 4. 5   | 충 | 북 |
|       |   | 3위  | 안 | 태 | 원     | 신 태 인 중 | 2   | 70. 6. 18  | 전 | 북 |
|       |   | 3위  | 김 | 성 | 삼     | 남해고원중   | 3   | 68. 7. 1   | 경 | 남 |



# 제12회 전국 소년체전 서울대표 최종선발대회 제3회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장기 쟁탈결



김 정 기  
(서울시협회경기분과위원장)

서울 영등언덕에 우뚝 자리한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에서 1983년 3월 9일 11시 제3회 서울시 초·중·고 협회장기와 전국 소년체전 서울대표선발대회를 알리는 새마을본부의 취주악단의 우렁찬 광파르가 국기원에 울려 퍼지며 송병섭전무이사(사)의 개회선언, 엄윤규대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임회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세계속으로 응비하는 우리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국가정책의 지표아래온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결집되어 가는 즈음에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향하는 민족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두의 뜻을 한곳에 모아 민족의 전통과 슬기를 세계단방에 과시하여야 되겠다고 전제하고 또한 이 대회는 전국소년체전에 서울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임으로 선수는 물론 경기 운영을 하는 모든 임원들도 최선의 노력으로 선수는 담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멋진 대회를 치루어 달라고 당부하며, 소년체전에 참가할 대상은 곧 '88올림픽에 꿈나무들이라고 격찬하며 선전을 부탁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경기가 속개되면서 경기장과 응원석의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선수들은 시합에서 한점, 한점, 득점을 노리는 선수들의 기술은 예리하였고 정확한 심판원의 판정 등 모두가 바람직하게 진행되었다.



2일간의 대회기간중 일각의 불화음 없이 대회를 치루도록 협조 여주신 임원 선수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태권도발전을 위해 더욱 더 분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대회는 국민교부 161명, 중학교부 183명, 고등학교부 74명, 총 418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회전적은 다음과 같다

| 입상순위                                     |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 체급별<br><br>플라이트<br>라이트<br>웰터<br>미들<br>헤비 | 원 | 대림국교 | 신성수 | 풍남국교 | 한형민 | 금옥국교 | 김성현 | 풍남국교 | 김현용 |
|                                          | 라 | 대림국교 | 허석태 | 대림국교 | 김성남 | 광희국교 | 박종윤 | 광희국교 | 맹성재 |
|                                          | 이 | 연복국교 | 권영수 | 잠원국교 | 오용남 | 연복국교 | 정태인 | 창서국교 | 이광희 |
|                                          | 타 | 광희국교 | 윤정호 | 광희국교 | 송진호 | 잠원국교 | 구정욱 | 풍남국교 | 김성진 |
|                                          | 미 | 대림국교 | 박진철 | 회계국교 | 김우진 | 백산국교 | 오규식 | 백산국교 | 박정수 |
|                                          | 트 | 남산국교 | 박종승 | 백산국교 | 류 결 | 광희국교 | 김광식 | 남산국교 | 신상현 |
|                                          | 어 | 대림국교 | 강윤석 | 연복국교 | 박진석 | 광희국교 | 권순정 | 대림국교 | 김두원 |
|                                          | 비 | 남산국교 | 이현석 | 남산국교 | 이호철 | 광희국교 | 박정락 | 회계국교 | 신용현 |

100

| 입상순위                                           |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
| 체                                              | 급 | 별     |     |     |     |      |     |     |     |  |
| 출<br>판<br>페<br>라<br>이<br>트<br>러<br>블<br>미<br>비 | 원 | 동성중   | 송인한 | 동성중 | 조준원 | 배명중  | 양정서 | 한영중 | 백의현 |  |
|                                                | 라 | 경수중   | 조규식 | 동성중 | 조영남 | 배명중  | 최효서 | 장안중 | 서승희 |  |
|                                                | 탐 | 서울체육중 | 강혁  | 보성중 | 양춘열 | 동대부중 | 신재택 | 동성중 | 윤정욱 |  |
|                                                | 미 | 동성중   | 이광로 | 한영중 | 김태경 | 배명중  | 고용계 | 경수중 | 김병갑 |  |
|                                                | 트 | 경수중   | 이종현 | 동성중 | 민태남 | 동성중  | 송병철 | 한성중 | 안진식 |  |
|                                                | 러 | 배명중   | 관경태 | 경수중 | 김태국 | 덕원중  | 최환찬 | 한성중 | 조상근 |  |
|                                                | 블 | 동성중   | 양대승 | 배명중 | 김희호 | 중앙중  | 이동운 | 경수중 | 이천우 |  |
|                                                | 비 | 배명중   | 윤건성 | 동성중 | 김성호 | 상도중  | 이의용 | 충동중 | 조광천 |  |

## 고 이 학 교

| 채 급 별 | 입상순위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
| 핀     |        | 한 성 고 | 박윤삼 | 한 성 고 | 심창수 | 영등포고  | 김경태 | 신진공고  | 이성립 |  |
| 플 라 이 |        | 한 성 고 | 윤병삼 | 영등포고  | 조홍희 | 영등포고  | 김병권 | 위례상고  | 김후근 |  |
| 판 탐   |        | 한 성 고 | 최영규 | 경 기 고 | 양일중 | 한 성 고 | 심지현 | 청구상고  | 김용강 |  |
| 페 더   |        | 영등포고  | 박종수 | 한 성 고 | 신동일 | 한 성 고 | 최한근 | 마 포 고 | 김창홍 |  |
| 라 이 트 |        | 대 성 고 | 김용수 | 한 성 고 | 김성진 | 마 포 고 | 하태은 | 성동상전  | 홍의만 |  |
| 셀 터   |        | 구 로 고 | 최현수 | 대 성 고 | 김이환 | 한 성 고 | 명원석 | 명 지 고 | 양덕춘 |  |
| 라이트미들 |        | 경 북 고 | 김명호 | 마 포 고 | 한권희 |       |     |       |     |  |
| 미 들   | 안흥전자공고 |       | 최민호 | 마 포 고 | 전병준 |       |     |       |     |  |
| 라이트헤비 |        | 위례상고  | 김용전 | 신진공고  | 박 현 |       |     |       |     |  |
| 해 비   |        | 명 지 고 | 나광복 | 한 성 고 | 유명배 | 경 문 고 | 정명호 |       |     |  |

# 제 4 회

##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 전국국민학교단체대항겸개인선수권

한 구 상

(서울숙신국민학교 교사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총무이사)



전국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 4 회 어린이태권도왕겨루기대회가 본연맹과 서울남산청년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방송공사(KBS)의 후원으로 1983년 4월 30일~5월 1일까지 2일간 실시 되었다. 이번대회는 남산JC(청년

회의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방에서 출전한 선수들(129명)전원을 영동유스호스텔에 투숙, 숙식을 제공하였고, 벽지학교인 전남 함평국민교, 강원도 진부국민교, 제주도 서귀포에 법환국민교생들에게 서울의 명승지를 이주일(코메디언) 아저씨와 같이 관광을 하였으며, 5월 30일 아침에는 국기원에서 대회상황이 KBS TV의 "상쾌한 아침입니다"에 생방송되는 등 태권도홍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

또한 남산 J.C.의 준비위원장인 안병균씨는 태권왕대회 준비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회실행은 4월 '29일 오후 3시 계체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칠 지도자 교육을 국기원에서 실시중이라 국기원식당에서 계체를 하였다. 570명계체에 불합격 96명으로



지방선수유스호스텔숙식



6%의 불합격이 되었다.

문젯점으로는 한창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승부욕으로 무리한 감량을 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임은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 30일 경기에 입한 850여명의 선수(겨루기 570명, 품세 280명)들의 경기가 시작되어 준준결까지 경기를 마치고 5월 1일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나머지 경기를 치루었다. 15,000명의 어린이들이 운집한 성대한 경기였다.

이날 개회식에서 남산JC 이덕형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태권여린이는 나라의 기둥”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닦은 기량을 승부와 관계없이 마음껏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5월만이 어린이 여러분의 달이 아니고 1년내내 여러분의 날이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태권도도 열심히 수련하여 튼튼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김운웅 대한태권도협회회장을 대신하여 엄윤규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어린이는 태권도를 통하여 정의를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며

평소 학업에 충실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범적인 학생들임을 믿는다”고 전제하고 우리 교유의 무술인 태권도의 정신으로 장차 남북통일의 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청년회의소 민만기 중앙회장은 한국JC는 국내최대의 민간청년단체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전제하고, 이 대회를 통하여 체육진흥운동 일환으로 86, 88올림픽 꿈나무를 가꾸는 서울 남산JC의 선도적 목표가 이루어져 태권여린이의 긍지를 드높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치하하고 스포츠정신을 발휘하여 우수한 기록을 남기고 향상된 태권도 기술이 세계 각국 어린이들에게 보급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어린이 대잔치는 인기연예인 이주일, 하청일, 서수남, 천하장사 이만기 등이 나와 다수의 어린이를 위한 잔치가 배풀어졌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시범단의 저변확대를 위해 미동, 남산국민학교의 합동시범대회는 매우 바람직하였다.

본대회에는 3년째를 한 광희국민학교를 제치고 신예의 매립국민학교(임윤택사범 지도)가 종합우승, 성남제 2국민학교(최국환사범 지도)가 준우승.



특히 이번 대회는 광희국민교 어린이들의 질서정연한 응원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한층 돋보



# ◇ 경 기 ◇

이게 하였다.

또한 본대회에 다녀출전한 제주도의 법환국민 학교는 품세부분에서 6학년 최우수, 우수 4명 등이 수상하였고 경기부분에서는 감투상을 받는 등 태권제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전적은 다음과 같다.

| 단 체 성 적 표 |             |   |       |
|-----------|-------------|---|-------|
| 순 위       | 학           | 교 | 명 비 고 |
| 1 위       | 서울대림국민학교    |   |       |
| 2 위       | 성남제 11 국민학교 |   |       |
| 3 위       | 서울광희국민학교    |   |       |
| 장려        | 서울남산국민학교    |   |       |
| 감투        | 제주법환국민학교    |   |       |



## 체급별 입상자 명단

| 체 급   | 등위 | 성            | 명 |
|-------|----|--------------|---|
| 핀 급   | 1  | 정 동 현(광 회)   |   |
|       | 2  | 김 인 경(성남제 2) |   |
|       | 3  | 김 효 중(남 산)   |   |
| 플라이급  | 3  | 김 성 남(대 립)   |   |
|       | 1  | 안 성 철(남 산)   |   |
|       | 2  | 권 양 훈(광 회)   |   |
| 밴 립 급 | 3  | 신 성 수(대 립)   |   |
|       | 3  | 장 대 진(성남제 2) |   |
|       | 1  | 김 상 민(고 천)   |   |
| 페 터 급 | 2  | 강 의 준(제주법환)  |   |
|       | 3  | 오 용 남(잠 원)   |   |
|       | 3  | 이 정 우(백 산)   |   |
| 해 비 급 | 1  | 이 현 철(용 인)   |   |
|       | 2  | 윤 정 호(광 회)   |   |
|       | 3  | 김 주 호(대 립)   |   |
| 라이트급  | 3  | 양 학 수(미 동)   |   |
|       | 1  | 박 진 철(대 립)   |   |
|       | 2  | 박 정 학(광 회)   |   |
| 웰 터 급 | 3  | 김 규 광(강 동)   |   |
|       | 3  | 이 현 석(남 산)   |   |
|       | 1  | 박 지 영(성남제 2) |   |
| 미 들 급 | 2  | 이 창 일(수 색)   |   |
|       | 3  | 이 기 철(인천간석)  |   |
|       | 3  | 김 인 태(광 회)   |   |
| 미 들 급 | 1  | 김 순 택(성남제 2) |   |
|       | 2  | 심 기 훈(마 천)   |   |
|       | 3  | 김 호 승(방 이)   |   |
| 미 들 급 | 3  | 장 영 석(충 렬)   |   |
|       | 1  | 김 도 완(대 립)   |   |
|       | 2  | 박 진 석(면 목)   |   |
| 미 들 급 | 3  | 김 정 민(용 인)   |   |
|       | 3  | 윤 대 중(용 인)   |   |

# 東洋人최초 제퍼슨賞 受賞

김영군 사범



82년도 제퍼슨상 수상자들중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영군 사범

미국이주 (년생인 교포태권도인이 동양인 최초로 제퍼슨 상(Jefferson Award)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전국의 주역이자 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마스 제퍼슨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존 F.케네디 대통령이 재직당시 창설한 제퍼슨 상은 미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중에서 미국시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한 후 언론인들이 임명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 봉사상이다.

무도경력 27년인 김사범은 지난 77년 미국체육회의 초청으로 미국에 발을 디딘후 야채가게, 의류상, 문방구등. 곳곳에서 미국사회의 삶의 철학을 익힌후 78년 6월 태권도의 신개척지를 찾아 후로리다로 단신 이주하여 태권도를 개척 보급함은 물론 소아마비 교아원생들을 돌보고 불

우대학생들의 학비보조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민국의 평론가 찰스 리즈씨는 자신의 저서 「Common Sense for the 80's」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미 3개의 현대식 체육관을 설립한 가라메와 막대한 광고전략으로 나오는 쿵후계가 판치는 후로리다에서 1백30파운드의 자그마한 한국인은 학생을 가르치고 자신의 무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영어를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몸과마음을 수련생지도에 몰래운 그(김사범)는 수개월후 약간의 돈이 모여지자 직접 선전유인물을 제작 수련생을 돌려보낸후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태권도보급에 주력하였고...(중략)」

결론적으로 그(김사범)는 미국의 개척정신을 일깨워 준 신념의 동양인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영군사범은 무도인으로서 올바른 무도의 정



왼쪽 지방부검찰총장 발위티커, 중앙 김영군사범, 오른쪽 전국 평론가 찰리 리스

김종규 한인회장 중앙홀로리다주 이병문 경제인협회장, 학부형 등 개인이 주관한 행사로는 참가인사의 범위나 행사내용에 있어서 전례없이 성공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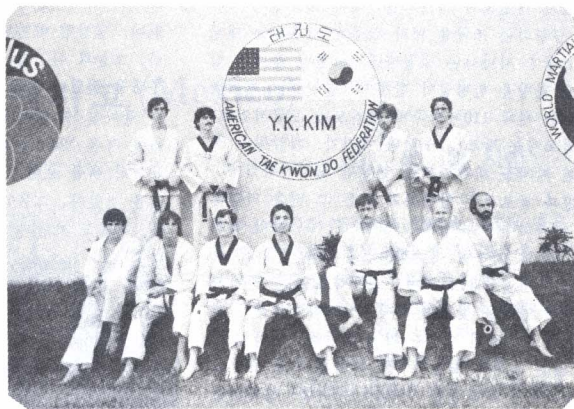
전국적인 평론가 찰리 리스씨는 양국의 국가로 시작된 성장에서 「미국을 건설하는 꿈을 다시 일깨워 준 동양에서온별이라고 극찬하였고 이어서 김준식 경제인협회장으로부터 국위선양과 경제인 회원으로서 공로

신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약간의 결실을 맺은것뿐이라고 말하며 태권도 보급 초창기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도록 적극도와준 장연준, 박연희, 박동균씨등 선배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제는 1년365일24시간 문을 여는 최신식 종합체육관을 개관한 김사범은 매년 정기적으로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고아원과 지체부자유 아동센터에 보내고 있으며, 태권도장학회를 따로 결성 대학생 2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83년 3월 26일에는 김사범이 영문판 태권도지침서(총 184페이지)를 출판한 기념으로 「홀로리다 감사의 밤」의 행사를 개최 홀로리다주 출신의 주 상 하원의원 및 법조계, 사회단체등, 미국의 각계 지도급인사 3백여명과 한국측에서는

에 대한 감사패와 각지역 태권도사범과 제자들이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김사범은 이번 저서의 첫 수입금 3천 3백 75달러를 이곳 갱생원(에자웃 인슐레지)에 회사했다 「우리는 한국인이며, 결코 미국인은 될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국을 알고, 미국을 이해하고, 제2세들을 위한 교육에 정열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유단자들과 함께 중앙 김영군사범

한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2세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태권도는 곧 한국인을 상징하므로 태권도대사의 외교관으로써 조국

을 잊지않고 교포를 잊지않고 우리 2세들이 장래를 잊지않는 희망찬 한국인이 되자고 오늘날도 열심히 뛰고 있다.

## 태권도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기 정 사범  
(Pan am연맹 기술위원장)



이 기 정 사범

무엇이 그렇게도 우리들을 매혹의 도가니 속으로 이끌어 들이고 있는 것일까? 기억속에서 찾아내려고애를 쓰나 역시 확실한것을 접하거나되 찾을 길이 없다 하얀 도복에 검은띠가 나의 인생을 태권도라는 길로 안내를 하였음이라. 긴세월속의 침묵——.

하나 둘씩 생각키우는 수년여의 추억들...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인생의 마라톤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뉘에게 뒤질세라 뒤보지않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정든친지 가족이 생활하는 조국을 떠나 외롭게 맘홀리는 태권도인들! 지나가는 세월속에 그들이 홀리는 맘방울 한방울 한방울이 한개의 「밀알」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 110여개국에 태권도가 보급되었고, 태권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국가가 계양되고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착된 느낌되었다.

말과 글로서는 형언하기 힘든 그 많은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자신과 가정과 우리나라의 협회를 가꾸어 키우며 대국적으로는 국위선양이라는 보람과 멋있음을 느끼며, 소국적으로는 자신과 가정의 안정을 찾으며 자칫, 망각하기쉬운 세계연맹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의 도움에 머리숙여 감사사를 드린다 세계속에 우리들은 우리의 주위를 정리하며 미진했던점들을 보완해서 “육당”이라는 단어를 우

리것으로 만들어 정진에 정진을 계속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해외사범의 길이 지루하고 외롭고 길게 느껴질때 형언하기 어려운 감상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번민을 여러번 겪었다. 서서히 경제와 명예란 욕망을 탈피하려고도 해보았다.

경제와 명예의 두길은 자주 거리가 멀어져가는 느낌이다. 내 자신만이 아는 나만이 만족할 수 있는 명예로운 도전의 길로 매진하다가 채우지 못하고 은퇴의 길로 쓸려들어가려 하고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진한 고통의 여로인것 같다이 쓸어지려는 무책임함에 채찍을 가하여 다시 세워야한다. 이 모든 상황들이 많은 해외동료사범들이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때로 지쳐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다 굳혀 마음을 갖는다. 냉정한 비판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한점의 부끄러움없이 투쟁을 하였다.

“돌아설 수 없는 환경과 돌아갈 수 없는 입장에서 혹은 “24시간내의 추방명령”을 감수하면서 무던히 애를 쓰며, 생과 병행한 태권도 보급의 길을 걸었다. 그동안 스웨덴, 콜롬비아, 파나마 등, 태권도 보급과 연맹결성등 세계연맹 가입에의 길등, 노력은 반드시 빛을 보게될 날이 오리라. 설명,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아는 이들은 기억하고 기록하여 줄 것이다. 태권도사의 새아침을 넘겨 대낮처럼 느끼는 것에서 있다. 그와 비례하여 우리사범들의 내일은 예측하기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해외사범들이 본인의 명예와 영리추구에 급급해온



사실들을 그저 미화시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자신 그러한 길을 걸어온것을 부인하지못한다. 고된세파를 헤쳐나가느나구 손마디가 굳어졌고 얼굴엔 주름살이 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남을칭찬할줄 모르는 인색하고 작박함을 떠나지 못했다. 우리 사범들 사회에서는 서로위하고 이끌어 칭찬하는 아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뜻있고 양식있는 사범 아니 한국적을 갖고있는 사범들은 각국에서 협회를 구성하여 세계연맹에 가입시키

는데 전력질주를 하여서 태권도사의 디딤돌을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야 하겠다. 시간이 흐르면 호를수록 우리들은은퇴의 길로 다가서고 있다. 우리가 자의이든 타의이든 물러서야 하는 길을 걷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소홀히 하기 쉬운 태권도의 각종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한테 모아 공평정대하게 평가를 내려 태권도 세계사를 정립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서 후대의 태권도인에게 태권도세계사를 한눈으로 보며 태권도의 방향을 제시할수 있는 기회를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태권도를 만안목으



로 보고 세계속에의 태권도에 가치관을 확립하고 태권도가 국가에 기여하는 가치평가도 보다 신중한 결론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120여 국에 뿌리내린 태권도

이 태권도가 타인기종목보다 더많은 경기인구를 확보하고 각국에서 안착을 할때 우리사범들은 해외의 고전분투의 피땀을 보람으로 승화 할 것이다. 양보와 이해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해외 모든사범들의 우정의 결속은 태권도의 미래를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닮으리라 확신하며 태권도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 멕시코 (Mexico)

〈이 석 원 사범〉



태양의 나라 멕시코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1982. 2.16.대한태권도 협회 총무부장으로 재직시 현재의 김영진사범의 초청을받고 방문을 하게되고 부터였다. 간혹 영화에서 보던 사보멧과 무법자의 도시는 아니었고 인정과 친절이 넘치는 도시였다. 태권도란 아직도 멕시코에서는 미 개척지였고 가라테와 쿵후에 속해 있는줄 아는 사람들에게 김영진 사범의 피나는 노력으로 태권



좌로부터 Alejandro Cardemes, 박노대사범, Ricardo Chave Percz 회장, 김보영사범

도의 우수성 독립성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것을 볼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며 숨은 의외관에게 고개가 숙여지었다. 그곳 Guadalajara 협회장 Alejandro Cardenas와 Zapopan시장 Ricardo chavez perez를 김사범의 안내로 방문하여 감사장을 전달하고 태권도 현황에 대하여 아는대로 설명하게 되었고 이들이 종주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듣고 주선했다고는 약속을 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당시 제 5회 세계태권도 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릴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에쿠아돌에서 열렸고 이를 참관하고 돌아온 엄윤규 협회 부회장과 황춘성 전무이사께 소상히 보고하게 되었고 중·고연맹과 멕시코 Jalisco협회와 자매결연을 주선 그들이 동년 4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춘계 중·고연맹전이 경북 김천에서 열리고 있어 이를 지켜본 이들은 뛰어난 경기기술에 감탄을 금치못하였고 특히 어린이 시범단의 절도있는 행동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태권도의 우수성에 반해버린 그들의 초청을 받고 망설였지만 태권도의 볼모지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김영진 사범을 생각하고 참 태권도인이란면 이또한 진정한 보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동년 6월 출국하게 되었다.

막상 결심과는 달리 도착하자 마자 교난의 연속 속에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언어의 장벽 풍습의 차이... 이모든 것은 해외주재 사범들이면 누구나 겪는 공통이지만 정말 나는 이처럼 절실하게 깨달아 보기는 처음이었으며 절로 해외 사범들에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었다. 좌절만 하고 있을수는 없었다. 한국에서 지켜본 선배동료를 생각하고 부끄러움에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체육관 LEE's ACADEMIA를 신설하고 경찰서와 클럽을 오가며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고 틈이 나는 데로 씨미나를 개최 태권도와 타 무도와의 차이점을 이론과 실기로 알려 주었고 현지 사범들과 대화를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때의 멕시코는 선거기간이었고 나를 초청하여준 Ricardo씨가 시장직을 사표낸후 멕시코 여당 P.R.I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동분서주 하였고 (지금은 하리스코주 의장이 되었음) 협회장 Alejandro는 시장과의 친분 관계로 이를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때였으므로 나도 이들과 같이 멕시코의 선거풍토를 구경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멕시코 경제가 형편이 없어 아마도 전세계에서 월회비가 제일싼 태권도 사범이 되었고 경제난에 부딪쳐 나를 정신

##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없게 하였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고 대한 태권도 협회의 도움으로 박노대, 김보영 사범이 나를 도우러 멕시코로 달려왔고 한국내에서도 유능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이들 사범이 몸을 돌보지 않는 활동속에 서서히 태권도가 멕시코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을 실로 기쁜일이었다. 넓은 땅속에 지방협회출장을 15.6 시간 자동차로 달려도 피곤한줄 모르고 열심히 겨루기, 기본기, 품세등을 코피를 쏟아가며 지도하는 박, 김 사범의 활약을 지켜볼때 참다운 대한의 아들임을 느끼게 되었다. 전교민회 회장이던 김종수씨의 도움으로 LEE's ACADEMIA를 또 하나 설립하게 되었고 이들의 끈진긴 노력끝에 자파로 난립하던 사범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었다. 중·고연맹과의 자매결연으로 한국중고연맹 임원과 협회 황전무이사의 멕시코 방문은 더욱 이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축진제가 되었음은 물론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멕시코에는 지난 1977년에 태권도협회가 발족되었으나 일부사람들의 작난으로 해산되었고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걸던 사범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협회를 구성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되어 멕시코 태권도 협회를 1983. 4. 15일 재구성하였고 83. 4. 16~17 3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제 1회 전멕시코 태권도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치게 되었다.

대회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태권도야말로 참다운 스포츠이며 무도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것을 볼때 김영진, 박노대, 김보영 사범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선수단과 시범단을 8월에 초청, 각주를 돌며 아직도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태권도를 알릴 예정이며, 아직도 통일되지 않는 기본기 및 품세, 용어등을 세비나를 개최 통일 시킬 예정이다. 이제부터가 첫걸음이고 첫걸음이 중요함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시한번 다져본다.

## 네 팔 (Nepal)

### 〈신재균 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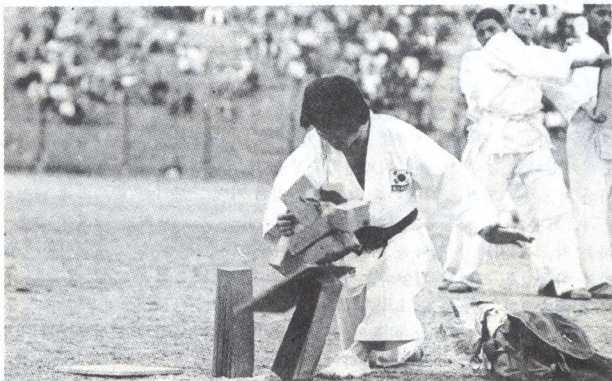


네팔은 동·서·남 삼면이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공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네팔은 양대국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및 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여왔던 정책으로 인하여 한번도 식민지가 된적이 없다.

네팔의 총면적은 14만 759km<sup>2</sup>로 우리나라 크



기의 0.7배정도이며 인구는 1,371만명(1979년 인구조사)이며 14개주로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높은 에베레스트산(8,848m)이 있으며 세계의지봉(The Top of the world)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주민이 설악산 꼭대기쯤 되는 높이에서 생활한다고 보면 이해가 되리라... 구름이 산 허리를 늘 감돌고 있어 설산이 구름인양 착각할때가 많다.



총 면적의 40%가 산림이며, 경작지는 17% 정도에 9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도인 카트만두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지가 없기 때문에 계단식 농업이 발달되었다. 기후는 해발고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년중 백설이 덮여 있는 고산지대가 많고 아열대성기후에 속하며 카트만두 인구는 37만 정도의 조그마한 시에 불과하다.

여름에는 비교적 덥고, 호린날씨가 계속되며 하루한번씩 소나기가 지나간다. 봄·가을·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하며 관광 시즌이 시작된다. 년중 평균 기온이 11℃ 정도며 겨울저녁은 0℃까지 내려갈때도 있다. 현지 교민수는 30여명으로 대사관직원, 식당업, 등산알선업, 토목공사 현장직원(교래개발, 삼부토건등)등이다.

교육수준은 낮은편이며 문맹율이 87%에 달하며, 5년제 국민학교 제도가 있으나 취학율은 30%정도다. 수도인 카트만두에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볼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신사숙녀가 있고, 소와 염소떼가 시가지를 활보하며 교통순경은 이들을 정리한다. 학생들은 핸드백 하나에 쓰레바를 끌고다닌다. 내가 홍콩, 미국에서 생활하다 이곳에 왔을때는 정신 쇼크를 받을 정도로 문명의 이질세계에 온 느낌을 받았다.

전국민의 90%가 힌두교를 믿고있으며, 불교,

회교등의 종교분포를 보이고 있다. 히말라야 왕국, 네팔의 주요수입원은 관광객과 영국 거카 직업군인들의 송금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2년 포클랜드 전쟁때는 네팔의 거카부대(영국군 직업군인으로 영국 각 식민지에서 근무하고 있음)가 참전하여 200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다고한다 네팔왕국은 국민에게 무술보급을 원칙적으로 금하여 오고 있는바, 이유인즉 점조직이 구성되어 왕권에 도전할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군·경에는 유도, 가라테가 일찌기 보급되었고, 400여명의 관원을 확보하고 이들 일본사범에 대한 체재비는 일본정부가 지원하여 주고 있다.

태권도가 이곳에 까지 선을 보이게 되기까지는 많은 숨은 이야기가 있으나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내가 네팔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1977년 당시 홍콩에 재직시 영국군 Gurkha(거카) 군부대에서 태권도를 가르키면서부터 인연이 맺혀졌다. 홍콩 국경지대에는 영국군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네팔군 3000여명이 있는데 이곳에 300여명의 제자(유단자 30여명, 유급자 270여명)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중 상당수가 제대물하여 본국에 돌아갔으나 태권도 수련을 할수가 없어(이 왕국에서 무술을 가르키는것은 불법임) 인도의 동북쪽 시킴(Sikkim), 다르링(Darzeling), 갈림봉(Garlimong), 칼카타(Calcutta), 뉴델리,



##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마드라스 등지로 이주하여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다.

1979년 1월 이들의 태권도 현황을 파악코저 이들 지역을 방문하였었다. 칼카타, 뉴델리, 마드라스를 제외하고는 총통 빌 밑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 히말라야 끝까지까지 우리의 태권도가 보급되었다는 점에 난생처음 뿌듯한 기쁨을 느낄수 있었다. 이제는 태권도가 국제 스포츠로 발돋움하여 이곳 정부에서도 후원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시설도장은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태권도 유단자 대부분은 인도의 북쪽 네팔 인접도시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네팔과 인도는 여권없이 자유롭게 거주할수 있음)

본인이 이곳에 오기까지에는 세계태권도 연맹과 체육부의 후원에 힘입어 1982년 12월 이곳에 도착하였다. 현재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육군특수부대요원 76명, 경찰학교 82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인도의 시킴(관원 176명), 다즈링(관원 132명), 갈림봉(관원 165명), 칼카타(483명) 뉴델리(78명), 마드라스(148명)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제자 사범들의 권유로 월 1회 사범강습도 겸하고 있다.

네팔올림픽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네팔 태권도협회가 구성되었으며, 회장에는 현재 올림픽 위원장인 Mr. Sharad Chundra Shaha(왕족)씨가 피선되었다. 83년 3월부터 군·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4월13일(4월14일은 네팔의 신정) 국립경기장에서 왕제, 대법원장, 국회의장, 문공장관, 외국대사 및 귀빈 그리고 2만3천여 관중앞에서 치러 태권도 시범을 가졌다.

군·경 합동시범을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시범 2일을 앞두고 정책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경찰만 시범을 하였다. 처음소개되는 태권도 시범을 보기위해 18시간이나 배스를 타고 상경한 시골 청년들도 많았다.

시범은 성공리에 끝나고 히말라야의 설경을 배경으로 저녁노을에 반짝이는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꽃님이 자꾸만 시큰거리는것은 왜일까? 멀리 경기장 입구쪽에서 “태권도”라 외치며 돌아가는 꼬마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종종 시장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이거 하우마치가? 하는 이복친구가 인상을 쓰면서 지나간다.

네팔은 태권도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시키는것을 잠정적으로 금하고있다. 그 이유는 체육관미비 및 조직이 이루어져서 왕권에 도전할것을 우려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설혹 일반시민에게 보급된다 할지라도 체육관의 일체의 수입은 체육회로 입금되며 사범은 체육회에서 봉급을 주기로 되어있다. (사범월봉은 US\$ 50.00정도) 코로 시설도장운영은 현실점에서 불가능한 상태이다.

네팔체육회 강당에서 1983년 4월30일 네팔올림픽위원장(태권도협회장)·군인·경찰간부 및 내외귀빈을 모시고 제 1회 승급심사를 실시하였다 경찰 58명 군인 60명 여자 12명이 응시하여 성황리에 치루었고 앞으로는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한 공개심사는, 물론 태권도시범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소 : SHIN, J.K

P.O.eBOX 999

KATHMANDU, NEPAL

## 희망과 보람 (Malaysia)

노 수 길 사범



(1982. 9. 1)하면서 중 주국인 면모를 갖추어 가며 Maaysia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스포츠)를 수련시키면서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있게 정화하면서 참된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 하고자 하며, 태권도인의 예절과 겸양의 미덕을 으뜸으로 하는 태권도 정신

무도 생활 23년에 이제야 무엇인가 조금 알 것 같은 태권도인의 생활이 이제 나의 직업이 되었으니 외길로 가는것이 선배님들의 뜻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희망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1971년 서울 영등포구에 태권도 도장을 개관 하면서부터 군태권도부 교관(공군) 특수기관 무술사범 등이 나에게 하나의 여가 취미 생활이었는데 태권도가 세계의 태권도로 발전하면서 나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관직생활도 79년 말로 인하여 공직을 떠나면서 여가선용으로 태권도를 가르키면서 IRAQ, Kwait, Saudi Arabia등 옛 추억이 이제 동남아시아 Malaysia에 정착 Hyun Dai산하 Training Taekwondo Center에 필수과목으로 I.T.I기관에서 필수과목으로 선택된 국기인 Taekwondo가 이제 면모를 다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옛직업을 다시찾으면서 Instructor로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Malaysia Penang에 Taekwondo Center를 개관

을 실천 불굴의 신념 으로 훈련생 1기생을 수련하고 있으며 제 2기생 165명을 입교시키면서 가끔 웃어넘길수 없는 에피소드를 남기는 것이다.

얼굴막기가 「얼루마기」 몸통막기가 「몸통마기」 아래막기가 「아리마기」 등으로 1개월이 지나 2개월이 되면서 부터 제대로 발음하게 되는것을 볼 때 가끔 쓴웃음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온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된방이된 Malaysia Bom들은 경제발전이 저하되면서 무엇인가 해야되겠다는 신념으로부터 Malaysia인들은 한국의 발전사항을 본받으려고 무척 노력하는것을 볼 때 또한 긍지를 갖게된다.

태권도의 수련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개조와 인내 협동 근면 자조 자립등을 원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기후타인것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듯 실증을 느끼는듯 하면서도 태권도 「씨」를 바꾸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 정열적으로 하는것을 보니 이제 터전을 잡은듯 보람을 느끼게 된다.

##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차렷(Baris-sedia)—열중쉬어(Senang-diri)—경  
맷(Hormat)—좌양좌(Pusing-kiri)—P우양우(Pus  
ng-kanan)등 용어로 시작 한국어가 70%이상인  
태권도 용어로 구령을 부치면 절도있는 동작에  
무척 기록하다 생각하면서 절로 웃음이 나오곤  
한다. 스승과 제자 시절이 엇그제 었은데, 이젠  
내가 스승이되고 제자가 배출되니 어언 10년 생  
활에 스승의 마음을 조금은 알것같고 부모가 자  
식에게 너 또한 부모가 되보면 알리라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재삼 떠오르곤 한다.

끝과 종말이 없는것이 인간 생활이 라면 태권  
도의 무인들도 끝과 종말이 없을텐데 나의 스승  
님과 옛선배님들은 노쇠기가 접어들면서 삶의  
행복을 무도로부터 찾으려고 하는것을 볼 때 안  
타갑지만 하고 즐겁고 배곯것지 체육인들 이니  
라 하던 옛말이 자꾸만 되새겨진다 잠직, 질서

창조 의식개혁운동의 3대실천요강이 체육인들은  
언제부터인지 武를 배우고 익히면서 배움이 그  
언어 들인데 새삼스럽게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  
태권도 인들에게는 옛말인듯 싶다. 우리태권도  
인의 가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3대 실천요강은  
태권도 도복을 입으면서 스스로 하고있다고 자  
부한다.

끝으로 Malaysia 청소년들을 수련시키며 태권  
도 정신을 강조하며 청년들을 바라볼때 삶의 긍  
지와 어린시절의 태권도를 재삼 회고하게 된  
다. 국기인 중주국의 태권도를 승화 발전시키면  
서 유단자들의 끈기있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태권도와 나의 건강을 함께 같이 살아  
갈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요, 나의 희  
망이며 보람이라 생각한다.

## 오스트리아 (Austria)

김 정 판 사범

지난 4월 7일~10일까지(4일간) 인스브르크에  
서는 82년에 이어 금년에도 취미(Hobby)박람회

가 개최되었다.

취미박람회는 시민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가고



##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있어 4월11일자 이곳의 주 신문 티롤 타게스자이퉁(Tiroler Tagesteitung)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관객을 제외한 성인관객이 28,000명이 관람을 하였다. 82년에 이어 올해도 김 사범이 경영하는 도장(Innsbrucker Taekwondo Center)에서는 도장의 수련생들과 함께 4일동안 6회의 태권도 시범을 하였는데 받드려 놀 틈이 없이 성황을 이루었으며 박람회극장(영화관)에서는 문화공보부에서 제작한 80년도판 태권도 영화를 상영하여 한국의 태권도를 시민들에게 소개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박람회를 주최하는 회장 클라우스포르커(Klausu Forcher)씨께서는 우리 태권도에 관심이 지대하여 매년행사에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며 행사시 태권도 시범을 적극 도와주고 있어 고마웁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주소 : KIM CHOUNG KWAN

Postfach 170

A-6010 Innsbruck AUSTRIA

## 스 페 인 (Spain)

### 이 승 구 사범

이 사범은 74년 11월 스페인 김중성사범의 초청으로 출국하였다.

스페인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태권도가 보급이 되어있었고 남쪽세빌리아(Sevilla) 쪽에는 태권도의 불모지였다. 당시 같이 출국한 서태석사범은 그라나다(Granada)에 배속 북쪽은 까다루니아(Cataluña) 남쪽은 안다루시아(Andalucia) 중심부 카스티야(Castilla) 남쪽에 거주 태권도 지도사범 윤완근 박준식 김태 명김정식등 10여명의 사범이 태권도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본인이 안착한 곳은 전혀 한국인이 없는 곳이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태권도에 대하여 전혀 상식이 없는 불모지에서 5년여의 고행의 과정이 흐른후에야 자리가 잡혔다.

스페인지방은 남쪽지방이 북쪽에 비하여 수준이 낮으나 운동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대단하다. 통상 “스페인”하면 전통적인 “홀라밍코”와 투우사의 원산지가 남쪽인 세빌리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아랍국의 800여년간 예측되어 오다가 스페인 연합군이 그라나다

성을 점령함으로써 아랍국의 종식을 고하고 지금의 스페인이 되었다고 한다. 스페인의 초단십사까지는 3년을 수련하여야 하며 십사는 지정품세 한가지 자유품세 하나와 기술면으로 공격기술 5~6가지를 배합시켜서 공격자세 및 방법 방어동작을 만들고 품세시험도중 아무때고 중단시켜서 동작에 대한 이론적인 질문을 하는등 철저를 기하며 겨루기는 3년을 다른상태를 선정하여 2회 이상 이겨야(협회규정대로의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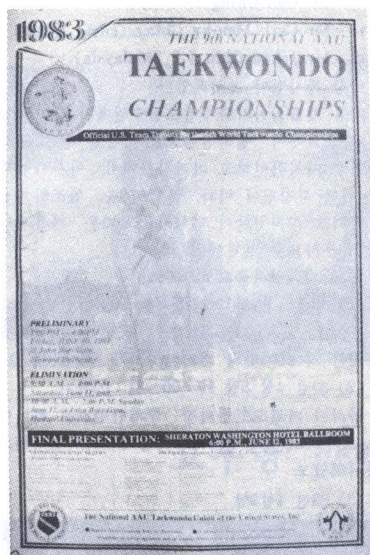
이렇게하여 지금까지 유단자 15명을 배출하였다. 이사범은 지금의 본인이 있기까지는 김중성사범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사범은 스페인 여성과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다.

세빌리아에 Lee G.Y.M이란 체육관을 2개 운영하고 있으며 Pineda크럽에 전속사범으로 오늘도 땀의 보람을 찾아 뛰고 있다.



## A.A.U 태권도 선수권 대회개최

(Amateru Athletic Union T.K.D Championship)



미국 워싱턴시에서는 제 9 회 내쇼날 A.A.U.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6월9일~12일까지 실시하였다. 9일에는 심판세미나와 계체를하고 10일경기를 시작하여 11일 김운 용총재를 비롯한 귀빈을 모시고 개회식을 하고 12일까지 경기를 진행한다.

## 아시아태권도연맹임시총회

### (Extraord Inary General Assembly Meeting Asian Tae Kwon Do Union)

1982년 12월 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3 회 아시아태권도연맹총회에서 전임회장(자유중국태권

도협회장) 서거에 따라 공적인 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 선출에서 한국의 이삼주박사(강원대학교

## ◇이런일 저런일◇



개회사를 하는 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  
이 상 주 박사

총장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가 만장일치로 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본 총회에서는 새로선출된 회장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결의되어 83년 4월9일~10일(2일간)까지 서울 남서울호텔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거행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규약 개정 임원보선 및 제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국인 필리핀의 준비사항을 보고받았으며, 금번 임시총회 참가국은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요르단, 홍콩, 마카오, 한국등 10여개국에서 참석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다.

### ★의결사항★

1. 아시아태권도연맹 규약 제 8 조 2항의 부회장 2명을 5명 이내로 개정
2. 규약제 8 조 3항 사무총장 1명에 대한 조항을 규약 제 9 조 1항, 회장의 임무에 1-3항으로 회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토록 개정
3. 규약개정에 따른 부회장 3명에 대한 보선 결과는

가. Lt. Gan Ching Lo (Republic of China)

나. Mr Carl Men-ky Ching (Hong Kong)

다. Mr Jahan Chin J.P (Malaysia)

이상 세사람이 보선되었다.

다음 제 6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사항은 순조로우며 필리핀항공을 이용할 경우 50% 할인을 다시확인하고 기타사항에서 아시아연맹을 위해 회장단이 미화 \$1,000을 찬조하기로 약속하고 각회원국이 연회비 \$200을 빠트실일내 납부하도록 전원이 동의하였다.

### 주요일정(임시총회일정제외)

- (1) 83년 4월8일 12:00~14:00까지

체육부차관 주최오찬으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약 50여명의 회의참석자가 참가하였으며

- (2) 83년 4월 8일 19:00~21:00까지

아시아 태권도연맹회장 주최만찬으로 하이얏트 호텔 로스트룸에서 40여명의 회의참석자가 참여하였고

- (3) 83년 4월9일



## ◇이런일 저런일◇

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 초청으로 각국대표자와 관계임원이 강원대학을 방문하여 강원대학에 대한 소개를 받고 강원도 도지사 주최오찬에 참석 후 소양강댐과 소양호의 이스라엘 잉어장견학등

으로 하루를 보냈다. 대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금번 임시총회는 여러가지면으로 보람이 있었다고 말하며 아시아태권도연맹의 발전에 기대를 모았다.

## 감사패 전달

구 본 석

(서울시교육위원회교육감)



본회에서는 평소 국기태권도 발전에 공로가크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본석 교육감과 한우택 사회체육과장께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김운용 회장을 대신하여 엄운규 부회장이 전달하였다. 제 회 서울특별시교육감기쟁탈전 구본석 교육감님은 태권도 중교연맹시합장에 몸소참석하시는 등 태권도 우수선수 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 고우영 화백 태권가족으로

본회에서는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인사에게드리는 명예 회원증을 김운용 회장을 대신하여 엄운규 부회장이 지난 4월 국기원에서 전달하였다.

고우영 화백은 만화 “대야당” “팔비당” 등 태권도만화를 제작 태권도 저변확대는 물론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켰으며 본회 계간지 “태권도”에 만화를 게재하여 태권도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 程萬琦아시아연맹 부회장

(Asian Union Vice President Mr. Carl Ching Men-ky)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1983년 4월 아시아 태권도연맹 임시총회후 국기원을 방문한 程萬琦氏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고 기념뱃지를 김운용총재가 달아주었다.

程부회장은 현재 홍콩 구룡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 감 사 패 전 달

손 선 익

(부산태권도협회 회장)  
(주식회사 왕표 대표이사)

본회에서는 평소 국기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스포츠타인사 방한시 적극적인협조와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본회 김운용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손회장은 부산협회장으로 부산협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성장된 지금의 협회가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공로패 수여

이 용 복  
(부산협회 전무이사)



본회에서는 부산협회 전무이사로 재임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공이 크며 국제스포츠 유명인사방한시 헌신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국위를 선양한 공을 치하하는 뜻에서 김운용 회장이 4월 13일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공로패 수여

박 창 덕 (영등포고등학교 교사  
한국중고연맹 전무이사)  
남 상 덕 (성동상고교사 이사)

지난 5월 13일 국기원 남상덕(성동상업학교 교사, 한국중고연맹 실행이사)에서 거행한 중고연맹 시상식장에서 본회회는 1973년 중고연맹 발족시 이사로 취임 1981년 전무이사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은 물론 영등포고등학교 교사로서 태권도 저변확대와 후배육성에 공이 지대한 박창덕 전무이사와 1980년 1월 중고연맹 이사로 취임후 실행이사로서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이행한 남상덕이사에게 김운용회장을 대신하여 협회 황춘성 전무이사가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캐나다 알버타 주립대학 태권도부 내한 (Canada Alberta Univ.)



연세대학교 태권도부와 자매결연(82년 12월)을 한 캐나다 알버타(Canada Alberta)주립대학의 태권도부 학생들이 내한하였다.

이들은 1983년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르며 태권도는 물론 한국의 모든 것을 배우고 우정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來韓한 학생은

Philip Clark(3단), Arthur Tsen(2단), Robert Williams(1단), Clandio Caamano(1단), Ross Cook(1단), Mark Sirios(빨간띠), Linda Kwan(파란띠), Todd Waish(녹색띠), Yvonne Juneau(노란띠), Agnes Tsen(1단) 외1명, 11명이 내한했다.

필립 크라크(P. Clark)코치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서울시내도 깨끗하고 훌륭하고 한국사람들 모두가 친절하여 인상이 깊다”고 하며 “중국인 태권도 한국의 선수들을 보니 발차기가 굉장히 빠르고 테크닉면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극찬을 한다.

또한 5월 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한 어린이 시범 및 시합을 보고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게 놀랐다고 말하며, 캐나다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중고생이상이 태권틀 하는 데 한국체육관에는 왜 어린이들만 하느냐고 묻는 데는 종주국 태권도인으로 대답이 좁은 궁색 하였다.

캐나다에서 태권도에 관한 관심은?

젊은층(중·고·대)에게 인기가 좋고 쿵후나 카라테 보다 10년 늦게 시작한 태권도가 쿵후, 카라테보다 인기도 좋고 더 좋은 운동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답하며, Ross Cook(1단)은 태권도를 수련한지 3년 되었고 한국에 와서 좋은 친구를 만났고 새로운 기술습득 등 좋은 계기였다고 말하며, Arthur Tsen(2단) 트레이너는 태권도 지도에 어려움점은 무도정신을 지도하기가 가장 어렵고 격파 등 도의 차원에서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2년전에는 태권도경기를 격투기 스타일로 하였으나 이제는 한국의 태권도경기 “물”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며, 태권도인구는 남녀 비율이 3:2정도로 여학생에게 태권도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캐나다대학생 모두들, 한국에와서 태권도를 많이 배우고 가기를 희망하여, 어린이 태권도 시범 및 시합을 보고 느낀점이 많아 캐나다에 가면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학생들을 인솔한 전덕기 사범은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에게 캐나다와 한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뜻에서 기념패를 김운용회장을 대신하여 임윤규 부회장께 전달하였다.

## 태권도 연구교육차 내한

(인도네시아협회임원)



인도태권도협회에서는 3명의 선수를 4월 한국에 파견하여 태권도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 6 회 세계대회의 참가준비로 3개월간 머물며 심판교육과 기술지도를 서울 상륙도장 장성동사범의 지도를 받으며, 종주국의 태권도를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내한한 3명은 Jimmy R. Jagiani, Vishnu K. Sharma, Anand P. Srivastava.로 제 6 회 세계대회의 좋은 전적을 기대해 본다.

## 김일성사범 일시귀국

74년 도미한 김사범은 시카고에서 8년간 태권도를 보급 10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고 81년 4월 썬에틀에 타이거 킴(Tiger Kim's)이란 체육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벨레헬대학(West wasington city)에서 태권도지도를 하고 있다.

성대태권도부에서 4년간 선수생활을 하였으며 해병대 태권도부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배대회의 5연승을 기록하는 데에 주역이기도 한 김사범은 가정문제로 일시귀국하여 5월 19일 협회를 방문하였다.



## 캐나다진출

〈백남식 사범〉



백사범은 76년 지도자교육, 심판자격(3급) 등을 취득하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태릉체육관을 운영하며 태권도 저변확대와 후배육성은 물론 중앙심판원으로 6년간이나 각종대회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심판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1971년 전국체육대회 웰터급 우승, 다음해는 미들급으로 한체급 올라 연 3회 우승, 전국종별 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권대회, 개인선수권대회 등을 고루 입상한 선수출신의 사범으로서 78년도에는 전북 경찰대표선수로도 활약을 하였다. 심판의 활동이 미약한 국제무대에 발을 디딘 선수출신 백사범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1983년 5월 27일자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레밍턴시로 객창선씨의 초청으로 취업이민차 출국하였다.

주소 : NAM SIK, BAIK

30 OAK. STREET EAST  
LEAMINTON ONTARIO  
N8H. 2C2 CANADA.



## 53 세 에 5 단 응 심

(김 구 봉(광주서광여중교사) 김 은 석(광주교대교수))



국기원에서 1983년 6월 11일 오후 1시 고단 자심사(5, 6, 7단)를 실시하였는데, 이날 전남협회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응심자 26명(5단 9명, 6단 9명, 7단 8명)과 협회임원 등 40여명이 상경하였다. 이날 5단에 응심한 53세의 김구봉씨와 김은석씨, 이 두분은 심사를 보게된 동기를 태권도의 계속적인 수련은 체력단련 및 정신 건강에 좋으며 승단을 하므로 그에 따라 기량도 발전되며, 60세가 되기전에 6단, 70세가 되기전에 7단을 목표로 계속수련을 하시겠다고 두분의 결의가 대단하다.

응심번호 537번의 김구봉(규봉)씨는 1931년 3월 2일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녀와 두명의 대재생과 고등학생 등 1남 3녀의 가장으로 현재 광주서광여중 국어교사로 재직중이며 전남수필문학회 회장으로 사회 문단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며 응심번호 538번의 김은석씨는 1931년 8월 17일생으로 군복무하는 아들과 서울음대재학중인 따님을 둔 1남 1녀의 가장으로 현재 광주교육대학의 음악교수로 재직중이다. 일찍 早老(조로)하는 경향이 있는 무도계에 체격을 가하는 좋은 본보기로 두분의 진투를 기원한다.

## 한국스포츠 실업팀 창단



한국스포츠주식회사에서는 성동상고 졸업생을 주축으로 한국태권도에서는 3번째로 실업팀을 83년 6월 24일 발족하였다.

발족동기는 성동상고 졸업생들이 성동 OB팀으로 대통령기 정탈대회에 참가시 (株)한국스포츠 대표 이상일씨가 후원을 하여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83년 6월 21~24일(4일간)까지 국기원에서 거행한 대회에서 밴텀급 윤준철 1위, 라이트헤비급 하용성 1위, 라이트미들급 김현덕 3위 등 처녀출전한 실업팀으로 당당 단체 3위에 입상하는 좋은 전적을 올렸다.

팀의 구성은

부장 : 이상일((株)한국스포츠대표)

감독 : 임성근(성동상고태권도부동문회장)

코치 : 조남수(전. 해군대표팀주장)

선수 : 하용성, 윤준철, 김한노, 오배균, 김현덕, 장승화

특히 금번 해룡팀에서 제대한 국가대표(헤비급)인 한국의 간판스타인 장승화군이 한국스포츠 실업팀에 입단함은 팀의 발전에 촉진제가 되리라 기대된다.

실업팀의 활성화로 태권도 발전에 기대를 한몸에 안고 출범한 한국스포츠 태권도부의 발전을 기원한다.

## 제36기 지도자교육

국기원에서는 1983년 4월 28일~5월 7일(10일간)까지 제 36기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수강 인원 128명중 104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사범자격증을 받았다. 본교육은 31개 과목에 강의 시수는 72시간이었다.

1. 교육기간 : 83년 4월 28일—5월 7일 (10일간)

2. 교과목수 : 31과목

3. 강의시수 : 72시간

4. 등록자수 : 128명

5. 이수자수 : 10명

6. 재수자수 : 6명

7. 불합격자수 : 6명

8. 합격자수 : 110명

☆ 합격자명단(무: ) ☆

|     |     |     |     |     |
|-----|-----|-----|-----|-----|
| 박기인 | 강순정 | 박수열 | 김정술 | 이동우 |
| 강형원 | 임연우 | 손영배 | 김신희 | 임판혁 |
| 조장옥 | 박종삼 | 남궁명 | 권태구 | 여삼동 |

|     |     |     |     |     |
|-----|-----|-----|-----|-----|
| 최중근 | 한윤교 | 이석진 | 장창렬 | 서진석 |
| 김희석 | 이태경 | 설복단 | 조복재 | 이재성 |
| 이상재 | 이상은 | 박상원 | 장성모 | 정영인 |
| 정봉근 | 김남수 | 최상균 | 윤맹효 | 이재성 |
| 홍순태 | 양정식 | 변귀중 | 강성철 | 서동균 |
| 이석효 | 최용배 | 김병호 | 김진태 | 정현판 |
| 문태원 | 이재도 | 박재관 | 정영환 | 이영희 |
| 신성철 | 송인호 | 임효근 | 윤창진 | 이성환 |
| 차상혁 | 황종철 | 한선재 | 박철우 | 최일용 |
| 오원갑 | 이성희 | 장효수 | 김영환 | 이호열 |
| 구운도 | 정기수 | 이진수 | 박창국 | 손창용 |
| 김태근 | 강언희 | 김재두 | 이상배 | 이권영 |
| 김기남 | 윤병호 | 이대현 | 김용근 | 이득만 |
| 장준호 | 김성식 | 김형태 | 윤준철 | 김성호 |
| 김홍기 | 김상훈 | 이용우 | 서상태 | 이병이 |
| 이경진 | 김홍우 | 강종만 | 이은수 | 박천재 |
| 최진  | 한성철 | 문승우 | 정주철 | 정병준 |
| 서춘희 | 김성만 | 차석봉 | 신귀태 | 방현강 |
| 임보순 | 박상학 | 조현주 | 이영식 | 신언기 |





## 태권도 교기(校技) 대성중학교



교장 강 석 재

「할수있다. 하자. 하면된다」의 진취적인 행동  
강령하에

1. 학교설립정신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이  
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  
이요, 선(善)임을 인식하고 이 선을 충성히 행하  
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 2. 경영방침

1) 공부하는 학풍조성으로 우선, 질적 우(優)

사립의 명물 대성중  
학교는 1968년 개교시  
부터 태권도를 교기로  
선정하여 15년이 흐른  
지금도 중학교 전교생  
이 태권도 수련을 실  
시하고 있다.

학교설립자 강석규  
(姜錫圭)이사장은 교  
훈을 근면 성실로서

를 꾀하고 이에 바탕한 양적 발전을 기한다.

2) 성실성과 기강을 존중하며 모든 일을 실질  
적 과학적으로 처리한다.

3) 승리의 삶을 목적으로 경영자와 교직원 학  
생이 다같이 공진하는 길을 택한다.

위와 같은 강석규이사장의 교육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강석재(姜錫在)교장은 태권도를 교기  
로 삼고 태권도 교육의 목표를

1) 태권도 교육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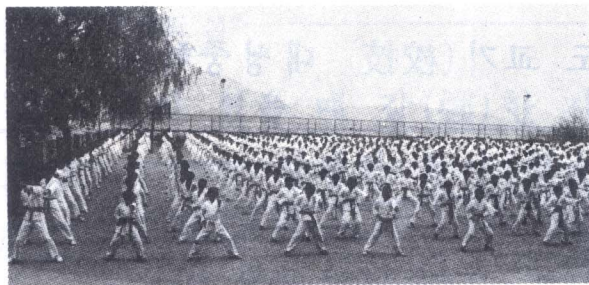
2) 태권도 교육을 통하여 보건에 대한 지식을  
높여 안전에 대한 능력을 기른다.

3) 태권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호신기능을  
길러 사고를 예방한다.

4) 태권도를 통하여 민첩성 순발력, 조정력을  
길러주고 책임감, 복종, 예의, 극기, 자제심 등  
사회적 성격을 길러준다.

5) 태권도의 경기개요, 방법, 규칙을 이해하  
고 학교생활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한다.





6)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를 보색하고 1교(一校) 1인(一人) 1기(一技)의 운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위의 6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1970년에 김찬희(金贊熙) 체육주임(공인 6단)선생이 14년간 태권도지도와 선수육성등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 김용희(金用熙)교감선생은 본교생은 졸업할때 한손엔 졸업장 한손엔 태권도 초단의 자격증을 쥐고 졸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태권도의 정신으로 각종 시험(試驗)을 치룰때 무감독고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본 기자가 학교에 당도하였을 때가 마침 중학교 2학년 전교생이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었다. 넓은 운동장에 흰도복을 입은 학생들로 packed 교정을 보니 태권도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앞을 섰다.

태권도 지도교사 김석련(金錫蓮)체육선생은 대학에서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였으며 군(軍)에서도 태권도 시범요원등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태권도인으로 81년부터 본교 태권도 중등부 시범단을 만들어 각종대회에 시범을 보이는데 태권도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태권도실적을 보면

1. 유단(품)자 배출(197

4~1982. 12월말) 졸업생 8,985명 중 5,760명 유단자 배출  
3,225명(1급~3급) 배출

## 2. 대회전적

1) 전국대회: 제 1회 중고연맹전 2위  
제 2회 중 고연맹전 3위  
제 4회 중 고연맹전 2위

## 2) 시도단위대회

제 20회 서울시 학교체육대회 우승  
제 22회 제 23회 제 24회 학교체육대회 우승  
제 26회 서울시 학교체육대회 준우승

## 3) 시범대회

1977년 6. 25 서울시고교합동교련실기대회의 의도광장 시범 1,000명 참가

1978년 5. 5 어린이날기념 태권시범  
효창운동장 1,000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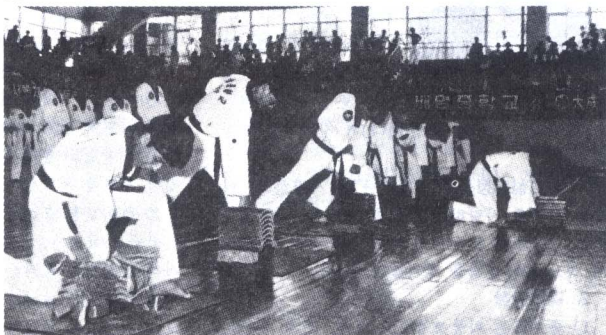
1979년 5. 5 어린이날태권도시범  
효창운동장 1,000명 참가

## 3. 연구발표

서울시 서부 교육청지정 태권도 연구발표  
(태권도 초보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

## 4. 중등부 시범단 창단시범

제 9회 중 고연맹 태권도대회(김찬)시범



# 청산 여자 상업 학교

지도 김영인 선생



고 종 성 교장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전통무술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공인 스포츠로 급속히 뻗어 나가고 있다.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태권도는 실용면에 있어서나

정서면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으며 건전한 인격 도야와 강인한 체력, 나아가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새마음 정신의 바탕이 되어 있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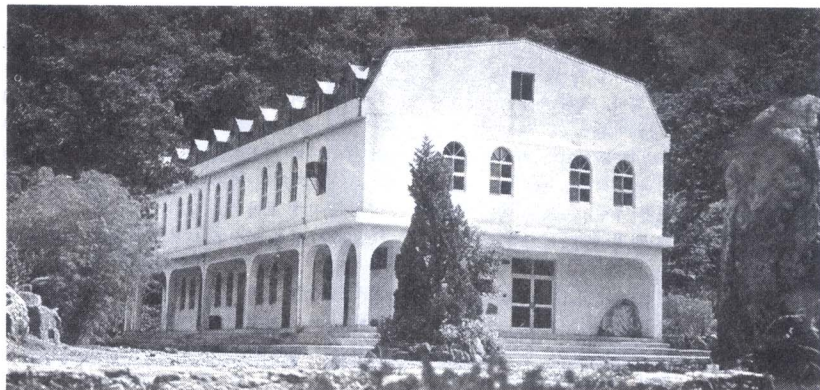
모든 방면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요청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태권도는 남자들만의 무술로서 자리를 굳혀 왔고 여성들에게는 거의 도의시되어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긴 본교의 **고종성 교장** 선생님은 우리 나라 여성 태권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지난 '76년 3월 청산 여상의 교기로 태권도를 채택했다. 70명의 학도 호국단 제대장 및 부 차장을 주축으로 실시된 태권도 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신력을 강화시키며 체력 단련은 물론 간부 상호간의 협동심 및 단결력 애교심의 함양, 나아가서는 '우리의 것'을 알고 배워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를 키워주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격렬한 남자들의 운동을 여학생에게 시킨다하여 일부 학부모는 물론 외부인들까지도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조치일관으로 성실하게 시킨 교육의 효과가 심신 양면으로 나타났고 학생들도 만족해하자 요즘 들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가 거의 대부분이다.

학교의 간부 학생들을 주축으로 시작되었던 태권도 교육이 현재는 전교생에게 확산되어 1학



생활관겸 태권도 합숙훈련장

년의 경우 주당 1시간씩 체육시간에 김영인(5단)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또한 태권도에 특별히 재질을 보이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들의 소질을 발견하고 키워 8년의 연륜이 쌓인 지금은 그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화려한 전적을 남기고 있다.

1976년 12월 처음으로 유단자 30명을 배출하였고, '77년 10명 '78년



15명, '79년 24명, '80년 20명, '81년 18명, '82년 20명 등 총 137명의 유단자를 육성 배출하였으며, 아울러 크고 작은 각종 대회에 42회나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국 중고 연맹전 춘계 대회는 '78년 '79년 '81년 3년간 3연승을 거두었으며, 중고 연맹전 추계 대회는 '79년 '80년 '81년 '82년 대망의 4연패를 달성 하였다. 또한 '78년 프레월드 경기에서는 해비급의 안 선기 선수를 '79년 대만 원정 경기에서는 페더급 이 진영, 웰터급 이 미향, 해비급 안 선기 등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였으며, '82년도 1차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는 페더급 김 소영, 미들급 전 오순을, 2차 선발대회에서는 판타급 백 시오, 라이트급 김 지숙, 윤 영분, 웰터급 피 옥윤, 미들급 정 영숙, 해비급 김 미자 등이 선발되기도 했다. 특히 최종 선발전에서는 페더급 김 소영, 미들급 전 오순 선수가 선발되어 '83. 1.20부터 27일까지 자유중국에서 거행된 한·중 친선여자 태권도 대회에 본교의 조성교장 선생님을 부단장으로 김영인 선생을 코치로 선수들과 함께 원정 경기를 다녀온바 있다.

그 외에도 연세대학 총장기 쟁탈전에서는 '79년 '81년 2회에 걸쳐 우승한 바도 있으며, 주한 외국인 및 한국여자 개인 선수권 대회에서는 유단자 F조에서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연속 5년간 금메달을 획득 하는 기록도 세우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승리의 기록들을 남겨 명실공히 한국여성 태권도의 첨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고 종성 교장** 선생님은 이들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평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장학금도 주는 등 큰 배려를 해주고 있다.

**태권교기 8년의 결실**을 보면 이들 선수들은 졸업 후 각 대학으로 진학하여 우리나라 여성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후진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사회 여러분야에서 그 활동이 대단하다.

처음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며 시작된 청산여상의 태권도 교육은 학교 기강의 정립은 물론 학생 개인의 인격 도야나 체력 단련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태권도부는 우리나라 여성 태권도로는 최초로 창설되었다는 선구자적인 자부심으로 해서 날로 그 발전이 눈부시게 드러나고 있다.

오늘도 청산 여상은 민족혼이 담긴 교유의 전통무도인 우리의 태권도를 육성시킴으로써 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제 교류를 확대해 세계 여성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작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 마포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사범 유 병 호



교장 박인출



조창호 감독

본교에는 1981년 4월 22일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창단한 그해 9월 26일 중·고연 맹전에 처음

출전하여 단체 장려상 10월 31일 제 5회 연세대 총장기대회 단체감투상등을 받으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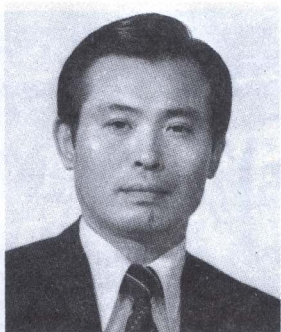
· 본교 박인출 교장선생님을 위시하여 김대환 서무과장의 적극적인 배려로 조창호 감독선생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간 태권도부를 필두로 야간 고등학교에도 태권도부를 둘 계획이다.

본교는 타 학교처럼 선수를 스카웃을 하지 않고, 고교생들중에서 우수선수를 선발 육성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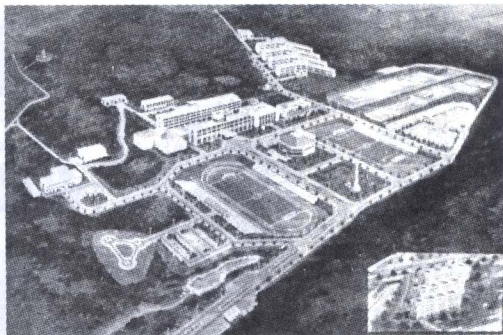
졸업생중 다수가 대학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여 학교에서 기대가 크다.

## 국립경찰대학

지도사범 이영근·김노원



경찰대학장 이균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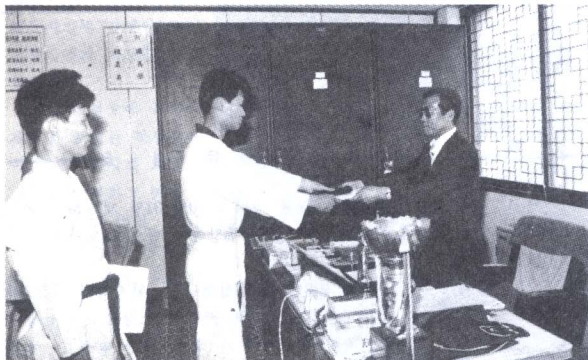


학교 조감도

1972년부터 존속하였던 경찰대학이 4년제 대

학으로 기틀을 마련하여 1981년 3월 9일 제 1기





체육학과장으로부터 단증과 검은 띠를 수여받고 있다.

생 (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을 정규대학교와 같은 전형방법으로 모집하여 출범을 하였다. 전교학생들의 모든 학비와 숙식 기타 모든것을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경찰 사관학교이다.

본교의 입학생들의 성적도 속칭 일류대학의 입학성적에 준하는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들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학하였으며, 타 대학보다 신체검사가 엄밀하여 더욱 어려운 과목을 통과하여야 경찰대학생이 될수있다 하겠다.

본 대학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언남리 산 13번지 일대의 27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7,000여평의 현대식 각종 시설을 공사중에 있으며 84년 완공할 예정이다.

본 대학의 **李均範(지안검감)**학장은 「말은바 일을 충실히 수행하자! 말은바 일을 수행하였으면 찾아서 일을 하자! 찾은 일을 다 하였으면 만들어서 하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고 이영근 사범은 전한다.

記者가 찾아뵈은 敎授部長 **田錫麟**경무관은 경찰대학에서 체육 의의 무

도(태권도, 유도, 검도) 수련을 실시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은 지식의 함양, 정신의 수양, 체력의 배양과 함께 이루어질때 비로서 人格의 完成을 이룰수 있으며, 지식이 높고 두뇌가 좋다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굳건히 할 정신적 지주가 확고해지려면 그 원동력인 체력과 정신이 뒷받침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장이 무도를 지정 학과에 넣어 실

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본교를 졸업하면 “경위”라는 경찰간부보 사회에 진출하여 국민생활의 안녕 질서를 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며, 어느직업보다도 다각적인 기능을 갖춘 공무원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일을 처리하여야 할 완전에 가까운 人格體를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본교에 있다고 전제하고 무도를 수련시킴은 무도의 근본 정신인 예의와 정의감 굳센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범범자(폭행, 강도 등)**들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강력범죄들을 제어하고 자신을 보호할 기본기로서 무도 수련은 필



태권도 수련모습



전석린 교수부장

3~4학년은 주 2회로 졸업할 때 2단의 자격을  
의 무화하고 있으며 3개부의 무도중에서 태권도  
부 지방학생이 많으나 각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  
하여 40명선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고.....

태권도를 하는 鄭容基(행정학과 3년, 태권도  
부장)君은 태권도는 건강 증진운동으로는 물론이  
고 국기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으며  
앞으로 실제의 경찰 임무수행에도 언제 어느때고  
멘손으로 강력법을 제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보  
호하는 호신운동으로 꼭 필요하여 열심히 수련  
을 하고 있다고 하며,

박 형식(행정학과 3년)군은 태권도는 우리고  
유의 조상들의 슬기와 열이 담긴 무도라 태권도  
를 택하였으며, 수련을 하면서 무도의 희열을  
느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경찰로서의 정신  
적인 자세도 좀더 확고히 되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윤재욱(법학과 3년)군은 경  
찰대학을 선택한 것은 우선,  
男子는 社會生活에서 어차피  
조직생활을 하게 마련인바,  
경찰조직은 활동범위가 광범  
위한 뿐만 아니라 아직 발전  
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매  
력이 있었다.

특히 경찰대학은 2000년대의 민주경찰의 정예  
간부를 육성하는 道場으로 新設되었으므로 초창  
기 멤버로 비록 교생이 될지 모르나 노력한 만  
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겠기에 경찰대학을 선택하

수과목이라고 강조하신다.

평소 경찰은 「비둘기처럼  
평화스럽고 온화하여야  
하나 때로는 독수리처럼  
민첩하고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갖춘 양면성을 지녀  
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교에서는 1학년은 주 4  
회 무도수련을 실시하고

게 되었다.

##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

경찰관은 직무수행상 반드시 무도를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다른 운동보다 태권도가 가장 적  
합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맨손으로 흉기를 든 범죄자들과의  
충돌에서 발차기 기술이나 방어자세를 활용하여  
가장 손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운동 일뿐  
아니라 옛부터 내려오는 교유의 무술이며 또한  
보편적인 무도이므로 익히기도 우리 체질에 적  
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태권도를 하면서 느낀점

태권도 수련을 통해 날로 기술이 향상되어 감  
에 따라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자  
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가지 스스로 아쉬운 것은 다소 노력이 부족할  
때에는 발전이 없다는 점에서 열심히 꾸준히 노  
력하여야겠다는 반성이 될 때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운동을 할수록 기술의 발전도 중요  
하겠지만 정신적인 면을 배워야겠기에 항상 겸  
손한 자세로 열심히 운동에 정진해야겠다는 생  
각이다.

본교에서는 3월 12일 40명이 승단심사를 보았  
으며 태권도부는 오병국(행정학과 3년)군을 중  
심으로 정규수업외에 새벽에 30분, 화요일은 일  
과후 1시간씩 특별수련을 실시하는등 수련에 열  
중하고 있다.

한창 피어나는 교교시절을 대학입학이라는 압  
박감속에서 극도로 쇠약해진 건강을 대학생활에  
서 회복시키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경찰사관생도로서 태권도  
의 수련은 어느곳에서 보다도 값진 수련이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친절하고 정의로움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경찰대학생들의 건승을 기원  
한다.

# 한국 체육대학 태권도부

이 승 국 지도교수



1976년 12월30일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거 설립된 본교는 체육학과와 경기지도과 내에 20개 부에 속해 있는 태권도부는 교내생활에서 패활하고 모든면에 모범적으로 총 학생회 **학생회장도 태권도부의 장권**君이 선출될 정도로 선후배의 우의가 깊고 기숙사의 분위기가 가정적에 가까울게 좋다고 한다.

**박철빈 학장**은 **용자필승(勇者必勝)**의 철학으로 학생들의 생활신조를

1. 우리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운다.

2. 우리는 끊임없이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여 경기에 임할 태세를 갖춘다.

3. 우리는 언제나 민간사관생임을 긍지로 삼는 다를 신조로 활기찬 생활을 진작시키며,

태권도를 교내의 정채 종목으로서 적극 육성하도록 배려를 하며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며

근래 태권도경기 성적이 우수하여 타종목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지도자 **이승국교수**는 80년 8월에 **이규석교수** 후임으로 본교에 부임.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다. 태권도부는 81년부터 승기를 잡아 승승장구하여 국내의 최강팀으로 군림하였고 대학연맹기 4연패, 대통령배 3년패등을 확보하고 있고, 83년 4월 22일 **국가대표 최종선발**에서 **5체급**을 석권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본교는 체육전문인인 체육학사를 배출하는 학교로 각부분의 전문실기로서 44명이 태권도를 하고 있다.

전교생이 국비장학생으로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개인체력을 년 2회 분석 그결과로 개인에게 운동의 부하(負荷)를 처방하고 있으며, 새벽에 체력훈련 1시간30분 실시하며 교과과정을 마친 오후 2시30분~5시30분까지 3시간을 수련 매일 4시간 30분씩 태권도 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대회 경기를 비메오촬영을 하여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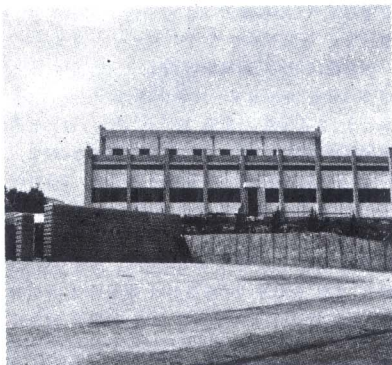


선수의 장단점을 분석함은 물론, 상대선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음 경기에 임하는등, 태권계에서는 최첨단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겠다.

수련방법면에도 정신적인 면을 충실하게 국기에 대한 맹서에 이어 5분간 좌선하여 정신통일을 하며 운동을 마친 후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눈을 감고 각 선수들의 대적자인 상대선수들을 영상에 실어 검토 분석하며) 필승을 다짐하는 시간을 10여분간 갖는다.

뿐만아니라 여름방학기간에는 해양훈련, 겨울 방학엔 동계합숙훈련을 실시하며 2월초순에는 대만전지훈련을 15일간 실시하는등, 선수들 사기 진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본교는 본교졸업후 정교사 자격증 취득하며 80%이상 취업이 되며 졸업시까지 일체 국비로 교육을 받는다 본대학의 입학은 전국대회의 입상자와 체육특기자중 선발하여 입학 할 수 있다.

이승국교수는 선수 스카웃을 위하여 경기장을 직접 다니며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한국체육대학의 모든 선수들은 본적지(출신지역)의 선수로 전국체전선수로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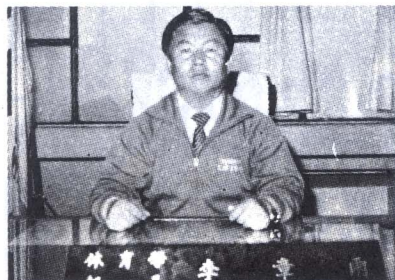
할 수 있다.

태권도 체육관에는“필승”한국체육대학 국가대표 5체급은 우리의것 덴마크에서 만남시대의 슬로건을 걸고 수련을 하여 83년 4월 5체급을 석권하였고 84년에는 **몽치자!** **7체급을 향하여 화이팅!**

영원한 한국체대 “불가능”에 도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도 뛰고 있다.

## 인 천 체 육 전 문 대 학

<지도사범 박수복>



체육학 부장 이 장 우

단일체육학교로는 동양의 최대의 규모를 자랑

하는 학교로서 실내에 들어서니 그 웅장함과 पै기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은 체육인으로 마음 든든하였다.

태권도부는 28개의 운동부중에서 상위구름에 속해 있으며 태권도의외에도 본교 출신 중에 뉴벨리 아세안게임에 안정래, 정상용 대표선수 등이 선발되었고 지도상, 연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같은 재단의 선인고등학교는 대학학력고사 자연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학업에도 열중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의 부분은 국가대표의 1/2정도가 체전에서 배출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며, 본교출신은 국내에서 40여개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파견된 사범도 다수 있어 명실공히 태권도 보급 발전에 기여함이 지대하다.

**李章雨(이장우)체육학부** 부장은 「교내에 체육진흥기금을 세워놓고 기금이 확보가 되면 개인종목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메달권내에 들어가는 종목으로는 태권도 복싱, 사격 등 개인종목이 우월하나 학제가 2년이라 선수의 기량이 훈련을 통해 수준급에 이르면 졸업을 하여 학교로서는 문제가 있으나, 한국체육계에는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정책적인 면에서 본교 졸업후 4년제대학에 편입이나 국민학교 등에 취업이 보장된다면 보다 활발히 체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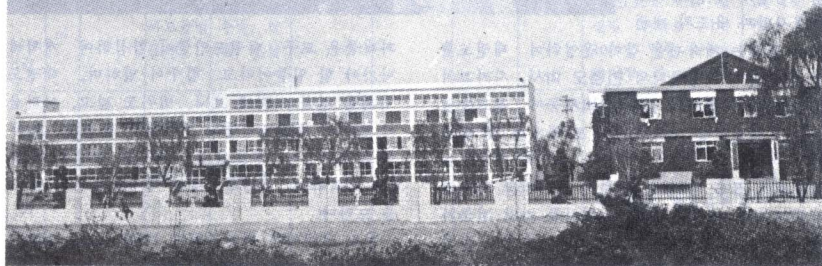
만 전념하리라고 본다면 아쉬워한다.

**李章雨부장**은 58년 아세아 역도선수권대회의 금메달리스트로 52才의 실제보다 10여년이나 젊어보이는 40代 초반의 인자한 모습으로 28개 경기부를 德과 仁을 信條로 자율적이며 능동적이며 매사에 합리성을 찾아 일을 처리하는 학자풍의 체육인으로 선수들의 트레이닝 강의를 맡고 계시다. 태권도부를 맡고 있는 **박수복교치**는 엄격한 선생님이라기 보다는 부원들의 선배이자兄으로 선수와 호흡이 잘 맞으며 격이없어 융화가 잘 되고 있다며. 태권도부에 거는 기대가 대단하다.



# 大韓柔道大學

자도 이 규 석 교수



본 유도대학은 30년전인 1953년 6월 15일 설립 2년제 초급대학과정으로 출범, 56년에 4년제 과정으로 학제를 변경, 이후 계속 발전하여 71년엔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1980년 제 4대 교장인 **이상관 학장**의 취임후 **이원수재단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획기적인 학교발전계획

을 수립하고 학교이전계획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용인에 12만평의 대지를 확보 가칭 **화랑체육대학**으로 인가신청을 하고 활발히 공사가 진행중이며 84년에는 용인으로 캠퍼스를 완전히 옮길계획이다.

특히 **이상관 학장**은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1982년 1월 9일 태권도학과를 신설하여 태권도 지도자 양성의 **선구자**가 되었다.

**태권도학과 설치목적**을 우리나라 고유 전통무술이며 국기인 태권도는 무술로서는 물론 호신술, 그리고 건강증진의 방법으로써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각광을 받고있다. 이와 같은 태권도의 양적인 팽창에 비하여 종주국으로서 이를 뒷받침하여 줄 기량이 뛰어난 선수와 지도자가 요청될 뿐만아니라 태권도 전반에 걸친 학문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함으로 우수한 태권도인의 육성 및 지도자육성, 태권도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여 태권도를 연구발전 보급시켜, 태권도 학과를 설치하였다고 말씀하며,

본 대학의 **이규석** 교수가 태권도 학과신설시 주역이었으며 지금도 4명의 조교와 합심하여 태권도학과와 경기과를 시설도 미비한 학교에서 지도하느라 교수하고 있다며 이 교수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학장**은 과거 유도 선수시절에 태권도의 조영태사범과 유도과 태권

도를 겸하는 체육관을 같이 운영하여 태권도를 잘 알고있다며 버클리의 **민경오 박사**, 시카고의 **신경선씨**, **양동자씨** **김대식 박사**등이 본교출신들로서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 세계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바 크며, 이제는 유도와 태권도는 께을해야 께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유도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전문기관(유도대학)이 있어 어느정도의 수준에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태권도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저변확대가 훌륭히 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전문기관이 많지 않아서 그 일부분이나마 본교에서 맡아서 4년동안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겸허하게 말씀하며,

태권도의 뿌리를 찾고 체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 지도자로서 훌륭한 기능과 지식을 갖추게 하는데에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다 바람직할려면 태권도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보다 알찬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쨌든 시작한 일로써 국내외의 태권도인들의 도움을 자 방면으로 청해서 대학 태권도학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신다. 그리고 태권도학과를 나와서 사회에 취업하는 길도 우리태권도인들은 길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과로 하는 학교가 많아져야 되겠다고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모두 태권도인들이 합심하여 개척해 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태권도 학과를 신설 시작해 보니, 범위도 넓고, 어려움이 많으며 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강조하신다. 유도인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이상찬학장께 태권도인으로 감사 를 드린다.

현재 유대에는 태권도학과 1학년 200명(100명 경기학과) 2학년 150명 3,4학년(경기학과) 20명으로 550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이교수와 합심하여 태권도지도도를 하는 조교로는 **정연주, 진중의, 김의영, 강성철** 4명이다. 이 교수는 태권도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경기장에서 시합을 한 선수가 객관적으로 우세했고 본인 자신도 승리했다고 믿었던 경기가 판정에서 졌을 때 지도한 선생의 입장에서 무어라고 답을 하여야 하겠는가? 그 예는 태권도 지도자가 된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하다고 표현하며 경기규칙의 특점제도차등을 두어야 태권도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겠으며 공명정대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정진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이규석교수는 「태권도학과와 4년간 강의 계획서를 보여줄수 있느냐고 묻자 강의계획서를 복사를 해주며 요점을 태권도인들에게 보여 비판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다며 자료를 제공하여 월별계획 하계(동계)합숙훈련계획, 학기간훈련단계획, 일일수업시간계획을 제외한, 교육구성제

획표를 기재하니 태권도인들의 참고자료는 물론 발전적인 건의도 아울러 부탁드린다.

## 태권도학과 4년간 강의계획서

### 1학년

#### ○교육목표

태권도 역사에 관한 지식 및 세계스포츠와 무도에서 태권도의 위치를 이해하게 한다.

#### ○교육내용

씨족사회로부터 현재까지의 태권도 및 세계무도 그리고 스포츠의 역사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 학<br>년 | 학<br>기      | 이<br>론   | 체<br>력                                       | 기<br>술                                             |                                  |                                  |                   |                         |                                                                                                   |                                              |
|--------|-------------|----------|----------------------------------------------|----------------------------------------------------|----------------------------------|----------------------------------|-------------------|-------------------------|---------------------------------------------------------------------------------------------------|----------------------------------------------|
|        |             |          |                                              | 기본동작                                               | 약 속 겨 루 기                        |                                  | 자 유<br>겨루기        | 호신술                     | 격 파                                                                                               | 품 세                                          |
|        |             |          |                                              |                                                    | 세번겨루기                            | 한번겨루기                            |                   |                         |                                                                                                   |                                              |
| 1      | 1<br>학<br>기 | 태권도<br>사 | 기초체력<br>을 육성<br>주 3회실<br>시하도록<br>카드를만<br>든다. | 고정요표<br>— 고정자<br>세 : 발차<br>기, 무릎<br>주먹, 발<br>꿈, 손날 | 좌, 우,<br>손, 발 기<br>술 4가지<br>색 지도 | 좌, 우,<br>손, 발 기<br>술 4가지<br>색 지도 | 약속겨<br>루기 지<br>도  | 5가지<br>이상의<br>기술을<br>지도 | 발—원발, 오른발,<br>무릎엮이기, 돌려차<br>기로 송판격파를 할<br>수 있도록 지도 • 정<br>권 및 손발로 기와<br>10장 및 벽돌 1장을<br>격파할 수 있도록 | 폼세 — 5가<br>지 지도 태<br>극 1장 2장<br>3장 4장 고<br>려 |
| 2      | 학<br>기      |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자 유<br>겨루기<br>지 도 | 상 동                     | 지도<br>발—원, 오른발, 후<br>려차기, 뒤돌아엮차<br>기, 뒤후려차기지도<br>손—손날, 팔꿈으로<br>송판 격파를 할수있<br>도록 지도한다.             | 5가지 지도<br>태극 5장 6<br>장 7장 8장<br>고려           |

### 2학년

#### ○교육목표

무도로써 그리고 스포츠로서 훈련방법을 연구 분석하고 개개인의 체력 및 기술 그리고 정신력  
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 ○교육내용

체력육성과 기술 기능 및 강인한 정신력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방법을 좀더 합리적으로 연구하  
는데 있다.

| 학<br>년 | 학<br>기      | 이<br>론 | 체<br>력                                            | 기                              |                      |                       | 술                                |                                     |                                          |
|--------|-------------|--------|---------------------------------------------------|--------------------------------|----------------------|-----------------------|----------------------------------|-------------------------------------|------------------------------------------|
|        |             |        |                                                   | 기본동작                           | 한번겨루기                | 자유겨루기                 | 호 신 술                            | 격 파                                 | 품 세                                      |
| 2      | 1<br>학<br>기 | 태권도 원리 | 전문체력육<br>성 (태권도<br>인의 특성<br>을 살릴 수<br>있는체력육<br>성) | 고정 목표—<br>이동발차기<br>주먹 팔꿈<br>손날 | 좌, 우손<br>발 4가지<br>지도 | 겨 루 기<br>지 도<br>(시합식) | 특수겨루기<br>(단도 겨루<br>기, 앉아겨<br>루기) | 기술발차기<br>로 5가지격<br>파할 수 있<br>도록 한다. | 6가지지도(태<br>극 1장, 2장<br>3장, 4장, 태<br>극강백) |
|        | 2<br>학<br>기 |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특수겨루기<br>(탁상 겨루<br>기, 의자겨<br>루기) | 기술발차기<br>로 4가지격<br>파할수있도<br>록 지도    | 6가지지도(태<br>극 5장, 6장<br>7장, 8장, 태<br>극강백) |



### 3학년

#### ○교육목표

체육대학생으로서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할때 태권도의 이론 및 실기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교육내용

실기수업 과정에서 지도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에 중점을 두고 강의한다.

| 학<br>년                  | 이<br>론              | 체<br>력     | 기          |                                               |                             | 술                                            |              |                       |                                             |
|-------------------------|---------------------|------------|------------|-----------------------------------------------|-----------------------------|----------------------------------------------|--------------|-----------------------|---------------------------------------------|
|                         |                     |            | 기본동작       | 한번겨루기                                         | 자유겨루기                       | 호 신 술                                        | 격 파          | 품 세                   |                                             |
| 3<br><br>학<br><br><br>년 | 1<br><br>학<br><br>기 | 태권도지도<br>법 | 전문체력<br>육성 | 이동목표<br>—고정발차<br>기쿠를<br>이동목표<br>—고정정권<br>손발말굽 | 좌, 우손<br>발기술 6<br>가지 지<br>도 | 특수겨루<br>기 (2:1<br>또는3:1<br>총결겨루<br>기)        | 3가지 기술<br>지도 | 응용격파 6<br>가지 기술<br>지도 | 6가지지도(태<br>극 1장, 2장<br>3장, 4장, 태<br>백 평원)   |
|                         | 2<br><br>학<br><br>기 |            | 상 동        | 상 동                                           | 상 동                         | 특수겨루<br>기 (권총<br>겨루기,<br>발차는것<br>을잡아트<br>리기) | 3가지 기술<br>지도 | 응용격파 4<br>가지 기술<br>지도 | 6가지지도(티<br>극 5장, 6장,<br>7장, 8장, 태<br>백, 평원) |

### 4학년

#### ○교육목표

세미나를 통하여 태권도의 이론 및 실기를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

#### ○교육내용

세미나 과정에서 또는 평소 수업시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중점 토론한다.

| 학<br>년                                  | 이<br>론              | 체<br>력                                               | 기                            |                                           |                             | 술                     |                |                 |                                                                                                               |
|-----------------------------------------|---------------------|------------------------------------------------------|------------------------------|-------------------------------------------|-----------------------------|-----------------------|----------------|-----------------|---------------------------------------------------------------------------------------------------------------|
|                                         |                     |                                                      | 기본동작                         | 한번겨루기                                     | 자유겨루기                       | 호 신 술                 | 격 파            | 품 세             |                                                                                                               |
| 4<br><br>학<br><br><br><br><br><br><br>년 | 1<br><br>학<br><br>기 | 세미나를통<br>한 세계 각<br>국의 무도<br>및 태권도<br>에 관한 이<br>론을 정립 | 전문체력에<br>대한 교수<br>방법을 지<br>도 | 이동 목표—<br>이동발차기<br>정권, 거리<br>조정교수방<br>법지도 | 좌, 우손<br>발기술 8<br>가지씩지<br>도 | 특수겨루<br>기 (교수<br>방법지도 | 호신술 교<br>수방법지도 | 응용격파 5<br>가지 지도 | 태극 1장, 2<br>장, 3장, 4장<br>5장, 6장, 7<br>장, 8장, 고<br>태, 평원, 태<br>백, 평원 동안<br>한편 품세를<br>복습하고 품<br>세에 대한 문<br>헌 연구 |
|                                         | 2<br><br>학<br><br>기 | 지도론 통<br>하여 이론<br>과 실기의<br>문제점을파<br>악연구              | 전문체력육<br>성지도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 태권도의 구성요소

**\*정 신 :** 신의, 인내, 겸손, 예의

**\*체 력 :** 기초실력  
전문체력

**\*기 술 :** 기본동작  
품 세  
겨루기  
격 파  
호신술

**\*기본동작**  
기본서기  
기본막기  
기본손기술  
기본발기술

**\*품세**—태극 1, 2, 3, 4, 5, 6, 7, 8장 고려, 태백,  
금강, 평원(계 12)

**\*겨루기 :** 한번겨루기  
세번겨루기  
약속겨루기  
자유겨루기  
시합겨루기  
옛날식겨루기3(1:2 및 1:3)

**\*호신술 :** 꺾 기  
낙법 및 좌겨루기  
탁상겨루기  
의자겨루기  
단도겨루기  
봉겨루기  
총검겨루기

**\*기본발차기**

1. 앞차기
2. 옆차기
3. 돌려차기
4. 비껴차기
5. 내려찍기

6. 후려차기

7. 뒤돌아엎차기

8. 뒤돌아후려차기

**\*기술발차기**

1. 뛰어 두발모아앞차기
2. 뛰어 앞차기
3. 뛰어 두발모아옆차기
4. 뛰어 옆차기
5. 뛰어 돌려차기
6. 뛰어 후려차기
7. 뛰어 뒤돌아 옆차기
8. 뛰어 뒤돌아 후려차기
9. 뛰어 가위차기

**격 파**

**\*기본격파**

주먹, 손끝, 손날, 팔굽, 무릎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뒤돌아엎차기  
뒤돌아후려차기

**\*기술격파**

뛰어 두발모아 앞차기, 뛰어 앞차기, 뛰어 두  
발모아 옆차기, 뛰어 옆차기, 뛰어 돌려차기,  
뛰어 후려차기, 뛰어 뒤돌아엎차기, 뛰어 뒤  
돌아 후려차기, 뛰어 가위차기, 주먹격차

**\*응용격파**

원통통파차기

어깨넘어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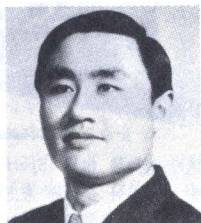
삼방축, 사방축, 오방축

고축+원통통파

후려차기+뒤돌아후려차기+돌려차기+옆차기  
+어깨넘어차기+뒤돌아엎차

머리위에 사파를 올려놓고 돌려차기, 뒤돌아  
후려차기 뛰어 가위차기+주먹+발기술

# '83 審判 講習會를 마치고



金正大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부위원장)

'83년도 2급, 3급 審判講習會가 3月 22일부터 24일까지 國技院에서 開催되었다.

이번 講習會는 서울特別市跆拳道協會主管으로 100名 制限으로 實施하러던 當初 計劃이었으나 全國 各地에서 많은 參加人員이 應試코져 하여 貳級 31名 參級 232名 合計 263 名의 受講生들이 教育에 參加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번 教育은 國內審判講習會이기는 하지만 '86 Asian Game과 '88올림픽 유치국이며 跆拳道 宗主國으로써의 긍지와 自負心을 가진 審判員의 敎養과 役割등의 理論과 競技規定, 審判規定, 採點方法, Sign方法等 講議와 함께 實技에 重點을 두고 이루어졌다. 22日 10時 入所式後 嚴雲奎副會長님께서 人事말을 통해 이번 教育에 參加한 受講生들은 열심히 배워 훌륭한 審判員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審判敎養時間의 朴海滿(協會 專門委員會 議長) 講師는 國內에서는 물론 全世界에서 가장 훌륭한 審判이 되기 위해서 “公明正大”라는 네 글자를 풀이까지 하시고 熱講하였고 餘餘時間은 競技規定: 金奉基(協會競技委員長) 講師가 코치와 選手의 資格과 의무, 服裝등에 대해서 競技場에 대한 說明, 競技方式, 體級과 重量 競技의 始作에서부터 終了에 이르기까지 競技規定 全般에 걸친 說明은 勿論 82年度 全國 初, 中, 高, 大, 一般 選手登錄狀況등 補充資料까지 提供하면서 상세히 說明하였고

셋째時間은 審判規定: 李榮根(協會審判委員長) 講師擔當으로 審判委員會의 目的과 事業, 審判員의 構分及 資格, 主 副 陪審等 審判員의 임무, 得點部位와 用語解說, 警告, 減點事項等 반

칙종류와 녹다운과 녹아웃의 정의, 그리고 녹다운 발생後の措置, 부상으로 인한 競技 中斷에 대한 措置, 主審의 Sign種類과 方式 등에 대한 解説後 採點方法까지 세시간에 걸쳐 점심시간을 늦추면서 熱講하였다.

점심시간후 Sing方法을 배움으로 첫날 教育을 하였다.

23日, 2日째에는 전날 배운 內容을 實際로 應用하는데 하루를 보냈는데 午前에는 Sign演習을 주로 하고 午後에는 名 한팀 五審制型으로 集合하여 實際 競技에 입하듯 主·副審을 돌아가며, Game始作에서부터 各種 警告, 減點宣言등, 반칙을 범하는대로 지적해가며 受講生들끼리 Game을 운영하는 方法 등을 익히거며 審判實技를 배워 나갔는데, 人員關係로 첫날 첫교시부터 講義室을 使用 못하고 競技場內에서 理論 講議도 받았고 全體人員 263名은 參個班으로 나뉘 壹班(貳級 全員과 參級 應試生 壹番부터 五拾番)班長은 김태균수강생이 맡고 貳班長은 양동열수강생 參班은 정찬진수강생이 各各 맡아 手苦하였다.

24日, 3日째에는 첫시간에 筆答試驗을 치루고 곧이어 三個班으로 나뉘 壹班試驗官(朴明壽, 金龍吉) 貳班試驗官(朴海滿, 高國煥), 參班試驗官(權京旭, 金正大)이 各各 擔當하여 採點하는 實技試驗이 實施되었다.

各班別로 五名씩 集結하여 한사람씩 主, 副審을 돌아가며 施行하여 나갔다.

24日午後 263名이 參席한 가운데 修了式이 舉行되었는데 受講生을 代表하여 俞炳浩受講生이 修了證을 받았다.

教育後 아쉬웠던 몇가지를 생각해 보면

1. 2日째되는날 名한팀씩 實施한 實技演習時間이 너무 짧아 한번씩 겨우 實習하여 뒷날 實技試驗에 응하게 되어서 演習不足과 긴장감등으로 인하여 實技試驗에서는 各受講生들이 Gam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警告나 減點事項을 그때그때 지적 못하는 등 充分한 實力發揮이 되지 못한 듯하였고,

2. 大部分 모든 受講生들이 熱心히 教育에 應했는데 과연 全員이 一切했는가 하는점

3. 理論에 대한 筆答試驗 結果 試驗問題 수준으로 봐서 좋은 點數를 기대했으나 成績이 좋지

않았는데 理論上 充分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實際競技場에 나서면 어려운 狀況이 전개되는데 理論을 모르고 어떻게 實際競技場內 수많은 觀衆이 지켜보는 속에서 유능한 審判員으로써 Game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4. 筆答試驗을 採點하면서 느낀 事項인데 녹다운과 녹아웃을 혼동하여 反對로 答案을 記載한 受講生이 의외로 많았고

競技場에 대한 설명이 正答으로써 不充分한 경우가 많았고

得點部位를 상세히 說明하라는 問題에서는 대부분의 受講生들이 제대로 답을 못했고

특히나 採點表를 提示하고 승, 패를 判定하는 問題에서도 틀린 受講生이 많았음은 더욱 熱心히 해야 될듯 했으며

5. 처음 예상보다 많은 受講生들이 參加하므로 인하여 審判이 量産되어 앞으로 이들을 限定된 各種國內大會에 어떻게 골고루 消化하여 貳級, 나아가 壹級審判員으로 昇級하는데 必要한 15회, 20회이상 陪審及 主, 副審으로 參加토록 할 것이냐하는 이들에 대한 位置 등 몇가지 아쉬운 점을 안고 있으나,



國技 跆拳道가 힘차게 世界 Sports化한 以來는 不신 發展을 거듭하여 全世界 方方曲曲까지 널리 普及된 지금 우리審判員 모두가 눈앞의 私私로운 點을 초월하여 世界속의 跆拳道라는 大命題를 수행하는 선두 주자로서의 位置를 확고히 하는 “公明正大”한 審判員이 되어야 하겠다.



## 태권도像의 새정립

수원체육관 강 주 태사범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범님!”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힘찬 목소리와 함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꾸뻑” 숙이고 어린 유아부들이 힘차게 체육관에 들어선다.

나의 힘찬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참동안 정신없이 아우성치며 들어오는 유아부들을 볼때 대견스런 마음에 모두 다 껴안고 뒹굴고 싶을 정도다. 거의 다 모이게 되면 나 주위를 둘러싸고 “사범님, 저 이 딱았어요.” “손톱깎았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 했어요.” “밥 많이 먹었어요.” “어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라고 한 마디씩 뇌 깔리고는 입을 틀어 밀고, 고사리 같은 손을 내 놓고 손짓 발짓으로 내가 호응해 줄때까지 계속 어리광스런 얼굴로 필사적으로 다가든다.

나는 또 한번 정신없이 되고 만다. 이 감격한 얼굴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얼굴에 밥알을 묻힌 채로 온 아이. 장난감을 도복 품안에 감추어서 가슴이 불룩한 아이. 입 안에 사탕을 넣고 오물거리는 아이. 치약이 입가에 하얗게 묻어 있는 아이. 계속 코를 훌쩍거리는 아이. 여러 형태의 귀여운 얼굴들이 친진난만 하기만하다. “모두 다 착하고 대장들이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때서야 도복을 고쳐 입고 한 명씩 자기 자리에 가서 줄을 서기 시작한다. “차렷” 일단 구령이 떨어지면 모두 다 지시에 잘 따른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과 함께 모두 다 또렷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국기를 응시하며 왼쪽 가슴에 고사리 같은 손을 힘차게 얹는다. 이때마다, 새삼 국가관에 대한 몽롱한 마음에

가슴 벅차고 짜릿함을 느낀다. “바로”, “명상”, “태권”, 우렁찬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이며 볼 끈린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태극기와 태권 협회기 앞에 오는 하루를 대환의 아들로서, 능률한 태권도인으로서, 튼튼하고 착하며, 씩씩하게 보낼것을 다짐한다.

우렁찬 기압 소리는 체육관을 뒤 흔들고, 작지만 다부진 주먹과 발은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잇고 빛날 단단한 무기이며 끈 임을 역력히 과시한다. 하루를 태권도로 시작하는 이 작은 손들을 볼때 태권도 의 한 사람인 나는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뿌듯한가? 나는 대견스럽고, 친진난만한 어린애들을 볼때, 나의 미천함과 소홀함에 미안함을 금치 못한다.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소홀함과 미안함을 갖는 지도자의 인식을 바꿔, 성실하고 근면하여 보람된 새로운 태권도 정신의 인간상을 세웠으면 함에 있다. 나태한 정신은 학부형들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 국기인 태권도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 ☆ 회원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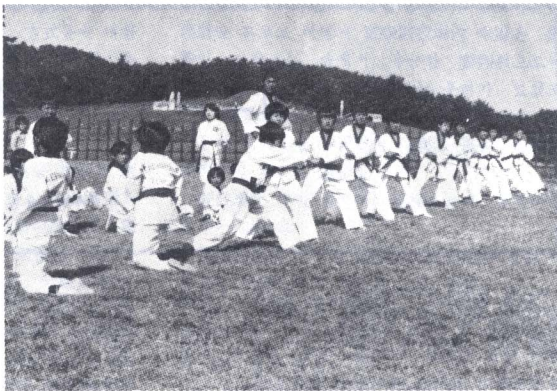
인기 종목 보다 국민이 인식하는 태권도의 필연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그리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태권도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까?

“메스미디엄”을 통한 모든 운동 경기의 화제거리 중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런 모든 문제 등을 놓고 볼때 일부 태권도인들의 무사 안일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보다 나은 국기 태권도를 위해서 중앙을 위시하여 하부조직까지 단결된 힘찬 박동을 원하고 있다.

첫째, 우리 태권도인은 모두 일심 단결 하여 보다 나은 새 태권도인의 상을 정립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여러 종류의 관들을 중앙에서 하나로 뭉치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 자 책임자들의 유대관계 및 이해를 넓혀야 하며 강력한 테두리를 형성해 단단하고 굳센 태권도를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 대립과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 주변 국제정세에 발 맞추고 국가가 원하고자 하는 점에 모두 합심하여 즉각 움직일 수 있는 태권도인이 되어야겠으며, 지도자들은 형식과 영리에 치우치지 말고 좀더 성의와 책임감 있는 지도와 배움으로서, 스승과 제자의 두터운 신의를 유지 발전시켜야겠다. 이는 곧 단결이며 나아가서 국기 태권도의 새 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앞서 국민이 태권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이며, 충효 사상과 반공, 민주 정신에 대한 투철함과 태권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자세히 지도해야 될 것이다



둘째, 태권도를 위한 필요한 모든 책자를 보다 알기 쉽게 편집하여 태권도인에 한해 국한된 배부가 아니라, 더욱 널리 선전 보급 되어서 국민 거의가 찾을 수 있는 책자가 되었으면 한다. 태권도 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사를 편성, 태권도 전반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 예리하게 분석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빠른 이해와 신뢰성을 높여줬으면 한다.

셋째, 전 국민이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태권도 체조를 만들어서 태권도의 기초를 알게 하는 함은 물론, 사람과 인기를 함유에 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 전 태권도인은 과감하고 광범위한 투자와 단결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태권도인이고, 태권도를 사랑할 수 있는 국민으로 이끌었으면 한다.

언제나 운동을 마치고 체육관을 나서는 어린 태권도인들에게 한국인의 의지와 태권도를 배운다는 자랑스런 생각을 갖게끔 노력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꼭 선정되어 세계적인 붐과 함께 대한민국 태극기를 전세계에 펼치기를 학수고대 한다.

## 태권도와 우리 아들

조 진 식 여사

(서울사대 부속국민학교 4학년 1반)  
김 동 혁 어 머 니

우리 동혁이 5살때 아직 나이도 어린때 태권도장 문을 들어섰었던건 요사이 흔히 말하는 과열 교육열이라던가 어른들의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위로 딸만 내리 다섯을 낳고 얻은 애 아빠(남편)에 대한 시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였고 그아들속에서 태어난 손자는 그야말로 핏줄을 이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었다.

지극을 넘어서서 손자에 대한 보호의식은 차라리 병적이었다. 잠시만 눈앞에 안보이면 유괴당한 것이 아니냐고 맨발로 내달리시고—그럴정도로 부자인 것도 아니면서—골목 골목 소리지르며 다니시며 몸살하곤 하셨다.

악극을 경영하는 나인지라 주부의 대역인 일하는 아줌마도 있었건만 따로이 우리 동혁이만 말을 큰 누나를 초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월급보다 어머니 약값이 더 드니 더 경제적이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동혁이가 한번 올면 할머니 큰 누나 셋이서 한꺼번에 올음바다가 되니 야단도 칠수 없고 참자니 성미급한 나는 뒤로 넘어 갈지경이었다. 넘어가는 나도 나이지만 외아들의 버릇과 성질이 제일 걱정이었다.

아빠하고 의논 끝에 태권도장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첫번째는 나이가 어려서 입관을 거절당하고, 무던히 참고 기다리다 5번째 생일되던날 드디어 입관허가가 떨어져, 그때부터 큰 누나랑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태권도 품세나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정신자세와 성격형성을 위해 보낸 것이라 관장님께 따로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동네 태권도장은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고 수련을 시켜서 마음이 놓이기는 했다. 같은 관원이 된 큰 누나는 나이 어린 동혁이가 배워온 동작을 잊어버린다고 열심히 눈에 익혀 외워가지고와선 다시 연습하곤 했었지만 그런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나에게는 우리 아들의 버릇과 성격만의 변화만이 관심사였다. 물론 노란띠니 빨간띠니에도 관심 쫘아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행동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빼뜨던 것과 우는 버릇이 없어졌다. 어면때는 아픈 것을 지나치게 참다가 다친 다리가 통통부어서야 알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가만있었냐고 야단 치기전에 참으려는 정신이 너무도 기록해 가슴속으론 감격과 안타까움에 나는 보이지않는 울음을 삼키곤 했다.

승급심사때면 잠시를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들쭉거리는 입마에 비해 몇시간이고 배고픔과





지루함을 참으며 의젓하게 정좌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감탄도 순간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속으로 얼마나 관장님을 원망했는지 모른다.

나중에는 인내도 훈련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십사매만 되면 내작은 가슴은 원망과 염민의 정으로 피가 마를 지경이었다.

병어리 병가슴 앓듯 엄마도 같이 인내수련을 쌓으며 인내를 배워야 했고 거기에 비해 잘도 견뎌주고, 점점의 견해지는 우리 아들을 보곤 대견하기만 했다.

그때부터 태권도가 그리도 위대해 보이고 주위에 남자어린이만 있으면 태권도 가르치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었다. 다행히도 우리아들 동혁이는 엄마가 자신을 가져도 좋을만큼 씩씩하고 의젓해졌다. 나는 다른 어머니들께 실제로 내 아들 얘기를, 사실 그 자체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해도 듣는 쪽에선 자랑으로 들릴 정도니——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대로 말술했다간, 정신 병자라 할 것이었다.

학교에 입학하니 학교생활 잘 적응해 주었고 공부도 상위였고, 매사에 자신있게 행동을 했다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말씀도 공부하는 수업태도가 썩 좋다는 것과 씩씩하고 남자답다는 이야기 이었으며, 나중에는 태권도 한 사실을 아시게 될 때면 대개는 태권도를 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힘자랑이나 태권도 한 티를 안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아들의 수업태도가 좋았다는 데 대한 대답이 되곤 했다.

이제 국민학교 4학년 올해로 태권도 7년째, 몸에 배어버린 태권도는 잠깐이라도 실락치면 체중이 늘어 자신이 태권도를 해 몸을 조절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이다.

아빠 엄마의 작은 체구에 비해 때때 굵고 튼튼한 우리아들은 부모에 어울리지않게 튼튼하고 크다. 어디를 가나 아빠 엄마 약하다는 소리보다 “아들 튼튼하다”는 소리가 좋아 자랑스럽고 또한 우리 부부의 기쁨이다.

제작년 부터는 피아노를 함께 하고 있지만(현재 “체르니 30”번 중간정도) 아직까지는 피로의 기색없이 체력이 잘 견뎌준다.

아마도 이래로만 자라준다면 훌륭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태권도를 가르친 것이 우리아들 장래나 성격형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 다시한번 태권도가 소중한데 얼마나 잘된 선택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안도의 숨을 쉰다.

학부형 누구든 나에게 자기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태권도를 가르치라고 권할 것이다.

남자는 남자답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키워 크게는 국가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고 작게는 우리 집안의 주춧돌이 되어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수많은 튼튼한 주춧돌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내 작은 기도를 바치곤 한다.

동혁동혁어린이는 82년 12월 3일에 응심하여 국민학교 3학년에 소년부 최고의 수준인 3품에 실력을 인정받았다.



# 태권도범어린이



김 대 일  
(서울우이국민학교 학년 반)

서울시태권도협회 제18회 승품심사대회(1983. 3. 27)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제18회 승품심사대회 개최식장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와 1문 1답식 대화를 기록한 것임.

**홍보실 :** 승품심사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몇품심사에 응심했으며 단 한명을 뺀 상을 받았었는데 기본은 어떤가요?

**김대일어린이 :** 3품심사에 응심을 하였고요. 상받은 기본은 매우 기쁩니다.

**기자 :** 태권도는 언제 시작을 하였나요?

**어린이 :** 국민학교 들어가기 1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6학년이니까 7년이 되었습니다.

**기자 :** 많은 운동종류 가운데 태권도를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요?

**어린이 :** 어머니께서는 저를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유치원보다는 태권도 도장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자 :** 지금 어느 도장에서 수련을 하고 있나요?

**어린이 :** 도봉구 수유리에 있는 우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체육관 관장님 성함은?

**어린이 :** 장동우 관장님입니다.

**기자 :** 그동안 태권도 경기에 나가서 다른 상을 받아 본 일이 있나요?

**어린이 :**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하는 경기와 도봉구 천선경기에 나가서 여러번 상을 받았습니다.

**기자 :** 태권도를 하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요?

**어린이 :** 방해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애들이 밖에서 놀때, 저는 도장에서 운동하고 다른애들 공부할때 저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요.

**기자 :** 어린이는 지금 생각해 보면 태권도를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예", 왜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어린이 :** 태권도 운동은 몸과 마음을 단련해서 몸과 마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해서 저는 무슨일이든지 자신이 있고 또 자신있게 일을 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아지기 때



문에 우리학교 전교어린이회 부회장 선거에서 부회장에 뽑혔습니다.

**기자 :** 어린이는 태권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여 학교에서 어린이이부회장까지 하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해 보세요.

**어린이 :** 남자는 한두가지 운동을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취미대로 운동을 택하여야 하겠지만. 태권도를 배워서 나쁜사람들의 공격도 막고, 나쁜 일 하는 친구들을 말려주고 또 커서 군인이 되면 공산군과 싸우게 될때 태권도로 무릎눌 수 있고, 또 삼국통일을 한 신라시대의 화랑도처럼 통일하는데 필요한 우리 태권도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자 :** 집안 식구중에 누가 또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린이 :** 아버지도 태권도 유단자이시고 삼촌은 월남에서 태권도 교육대장으로 계시면서 군인, 경찰아저씨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고 들었어요.

**기자 :**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몇단이고 삼촌

은 몇단인가요. ?

**어린이 :** 아버지는 2단이시고, 삼촌은 4단이라고 합니다.

**기자 :** 매일어린이는 장차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

**어린이 :** 지금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치료해 주고 새벽과 저녁시간엔 태권도를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유명 태권도선수이며 훌륭한 의사가 되었으면.....

**기자 :** 승품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공은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린이 :** 태권도를 가르켜주신 우리 도장의 관장님과 사범님이시고 또 저를 체육관에 보내 주시는 엄마, 아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태권어린이가 김대일 어린이처럼 씩씩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며....

◇ 위의 김대일 어린이는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특별시장이 수여하는 모범어린이상을 받았다.

# “安保體育으로서의 跆拳道役割”



六段 李 白 洙

(國軍跆拳道指導審査委員)

## 目 次

### 1. 序 論

### 2. 本 論

- 가. 跆拳道의 時代的 使命
- 나. 跆拳道의 精神의 意義
- 다. 跆拳道의 肉體的 價値性

### 3. 結 論

## 序 論

北傀는 南北分斷 三十餘年間 하지도 武力赤化統一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武力手段과 平和的手段을 적절히 構思 함으로서 사실상 侵略에 代한 野慾은 가일층 強化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는 七.四共同聲明과 六.二三一.二一平和統一宣言으로 北傀를 對話의 對象으로 삼고 平和共存을 追求하여 왔으나 北傀는 오히려 이를 逆利用 하여 南北韓對話를 理由없이 中斷시키고 韓半島의 危機를 더욱 造成하고 소위 決定的時期 執着에 狂奔하고 있다.

이와같은 正面的挑戰에 對備하여 힘을 培養한다는 根本的인 有備無患의 精神이 항시 要求되고 있으며 힘이 있는 곳에서만이 戰爭危險은 排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힘을 기르기 위한 次元에서의 跆拳道는 自主國防과 直結된 安保體育으로서 國力伸張의 前衛의 使命을 다하는 時代的要請에 副應할 뿐만 아니라 體力向上과 精神武裝強化에 크게 寄與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國際Sports로 外交

活動에 크게 貢獻함으로써 國威宣揚의 先鋒의인 役割을 하고 있는 위대한 韓國固有民族武道이며 우리의 國技인 것이다.

## 本 論

### 1. 跆拳道의 時代的 使命

군센氣像의 고구려는 만주를 포함한 廣濶한 領土를 支配하고 수많은 忠臣들의 出現으로 國力이 튼튼해졌으며 이때 이들은 民族의 武道인 “태권”의 修鍊이 크게 盛行되었고, 신라花郎道들도 三國統一을 위해 “태권”을 研磨하였다는 것은 歷史에 기록된 사실이다. 三國時代의 찬란한 文化가 오늘날에 빛나는 것도 그들이 護國하는 生活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고, 李朝五百年의 文尊武卑思想으로 國民의 體力과 精神이 懦弱했던 結果는 결국倭寇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恥辱의 歷史를 맞기에 이르렀다. 強했던 民族에게는 榮光의 記錄이 있듯이 弱했던 民族에게는 반드시 哀話의 記錄이 남는 法이다.

第五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全斗煥大統領閣下에서 天命하신 平和統一政策宣言에도 不求하고 南北對話를 外面 한채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秋毫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歸順한 이응평 大尉의 記者會見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런 現시점에서 우리는 기필코 有備無患의 힘을 培養해야 한다.

이는 對話의 뒤에도 힘의 背景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는 곳에 戰爭의 危險을 排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軍은 힘을 기르기 위한 安保體育의 하나로 跆拳道를 國防訓습에 의거 軍의 正規敎育課目으로 採擇하여 이제는 명실공히 눈에 보이지 않는 兵器로서 效果的인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跆拳道가 韓民族의 古有民族 武道로서 格려를 外侵으로부터 保護하고, 國民精神의 闡志와 身體를 強忍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自主國防에 直結된 安保體育으로 國力伸張의 前衛의 使命을 다하는 時代的要請과 存在意義를 實感하게 되는 것이다.

## 2. 跆拳道의 精神의 意義

자고로 人間은 肉體의 鍛鍊없이 進진한 精神을 創造할 수 없다.

跆拳道는 強忍하고 勇氣있는 性品으로 變貌시켜 每事에 주저(踟躕)없이 앞장설 수 있는 統率力을 길러준다.

跆拳道를 통하여 統率力과 強한膽力을 培養하며 이는 곧 每事에 自信力을 불려일으키는 根本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또한 戒嚴한 態度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戒嚴한 態度는 忍耐性을 가져오고 忍耐는 謙讓을 낳게되며 謙讓은 犧牲의 精神으로 自我를 克服하게 되고 協同과 秩序를 維持하여 淨化된 社會를 이룩하여 卑屈하지 않은 新時代동반자로서의 뚜렷한 個性을 創造하게 되므로 跆拳道는 곧 움직이는 行動哲學인 것이다.

## 3. 跆拳道의 肉體의 價值性

跆拳道는 筋肉과 關節을 모두 使用하는 綜合運動이며 人體의 關節部分을 武器化하여 敵으로부터 不意의 攻擊과 國家의 危難時 防牌과 武器로 應用되는 것이 바로 跆拳道의 技術이며 肉體의 價值性이다.

## 結 論

주지하는 바와같이 國家安保란 國家의 生存에 대한 內外的威脅을 排除하여 그 生存權을 確保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는 國家의 內部와 外部에서 發生하는 變動, 變化, 緊張에 對處함에 있어서 使用하는 手段에 依存되고 있으며 國家安保의 手段은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精神의 手段등으로 大別할 수가 있다.

그 첫째로 國家安保의 軍事的手段은 곧 軍事力 확보며, 둘째로 政治的手段은 극히 安定된 政治狀況을 維持한이고, 셋째로 經濟的手段은 對外的인 經濟關係를 圓滑케 되고 國內經濟安定을 意味하며, 넷째로 精神的手段은 民族意識을 鼓吹함으로써 國民結束을 強化하고 國民의 團結된一體化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오늘날 한國家가 安定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國內外的으로 發生되는 모든 威脅에서 代하여 國家의 總力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安保體育으로써의 跆拳道役割은 심히 可恐하다할 수 있으며 現代에 있어서의 國家安保는 곧 總力安保인 것이다.





# 視 眼 鍛 鍊 技 法



金 桂 洪

(동양공전 교수)

태권도 수련생이 체력과 기량면에서 뛰어  
나도 상대자의 동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면 공격과 방어가 있어 적응성을 잃게 마련이  
다. 그러므로 상대의 눈을 주시하면서 움직임  
을 잘 관찰하는 것이 상대자와 겨루기에서 기본(基  
本)이 된다. 그리고 경기진행중 필요이상으로  
눈을 감거나 두려움을 보이면 상대방의 선제(先  
制) 공격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시안단련(視  
眼鍛鍊)은 더욱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와같  
은 관점에서 무술경기 겨루기의 방법에 대하여  
다섯가지 류식(類式)으로 나누어 기술코자 한다.  
축시련법(縮視鍊法) 산시련법(散視鍊法) 변시련  
법(變視鍊法) 조시련법(照視鍊法) 동시련법(動  
視鍊法)

가) 축시련법(縮視鍊法)=시력을 집중(集中)  
시켜 한 목적 지점을 중시하는 법을 단련하는  
방법이다. 시력은 살인광선(殺人光線)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여 상대를 압도하려는 실력이 일  
마든지 있다. 몇년전 해외 기사에서 미국의 소  
녀(少女)가 갑자기 14세때 두 눈에서 투시력(透  
視力)이 생겨 남의 집 담 넘어 벽을 가린 안방  
까지 볼수가 있어서 한때 FBI에서 소녀를 이용  
악당들을 일망타진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는가  
하면 결국 소녀는 1년후에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몇년전 인도의 한 젊은이는  
갑자기 습격하는 독사 한 마리를 보고 놀라 자  
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으로 필사적으로 뱀을  
노려본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 독사가 북  
떨어져 죽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원래  
병어리였기 때문에 구원의 소리를 낼 수 없어  
충격에 필사적인 눈으로 독사를 노려본 것이 그  
눈빛의 열기(熱氣)에 죽사했다는 이야긴데 두  
눈을 검사한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청년의 눈동  
자에서 이상한 변화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중에 미  
친 개에게 쫓겨 평소애 뛰어 넘지 못한 7m높이  
개울을 단숨에 뛰어 넘었다는 초인(超人)적인  
사실은 한국 전통 무술의 위인(偉人)들이 그랬  
듯이 인간에게는 단련에 따라 초인적인 힘이 잠  
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은 초력(超  
力)은 평소(平素)지닌 힘의 한계에 프라스가 되  
는 힘에 기인한다. 즉 심신일치(身心一致)의 기

(氣) 정(精) 영(靈)이 합치(合致)하여 통일(統一)되었을 때 신에 가까운 초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평소 태권도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이와같은 초력을 수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심신을 통일 시키는데 있다.

이렇듯 축소련법(縮視鍊法)의 원리(原理)는 심신통일(身心統一) 그리고 정(精) 기(氣) 영(靈)의 합치(合致)를 체득하는 수련법이다. 보기를 들면 검정콩 한알을 흰 종이 위에 올려 놓고 정신을 통일하여 정좌(正座)한 다음 두 눈을 일단 감았다가 서서히 떠서 콩알을 집중(集中) 시력으로 쏘아본다. 단 눈꺼풀이 깜박이거나 움직이어서는 아니되므로 되풀이 연습을 거듭하여 축소력을 배양하면 점차 숙달된다. 3~3일 동안 이러한 연습이 숙달되면 약 2m간격으로 그 콩알을 멀리 옮겨놓고 다시 수련에 들어간다. 이와같이 거듭 수련을 하면, 2m전방의 콩알이 바로 눈앞에 본 것과 같은 크기로 보인다. 그리고 차츰 거리(距離)를 넓히어 실시한다. 이런식으로 콩알이 약 20m 전방에서도 눈앞에서 본 것과 같이 보이게 되면 대성공이다. 이러한 방법은 축소시력을 키우는 단련법이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돋보기로 태양의 광선(光線)을 집중 축광시키면 돋보기를 관통하고 나온 태양광선은 조그마한 점이 된다. 이 광점의 열기와 열도(熱度)는 대단하여 무슨 물건이건 태울수가 있다. 이 이치(理致)가 축소법과 연관(連關)이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자는 시합전에 촛불과 향불을 피워놓고 실내를 어둡게하여 바로 앉아 그 빛을 쏘아 보면 정신통일로 안전감을 갖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나) 산시련법(散視鍊法)

산시련법은 일정한 표적에 시선을 일단 고정시켜놓고 자기 시선을 자기 앞 정면 1백 80도에 산시(散視)시켜 한 눈에 삼방(三方)또는 사방(四方)을 찰시(察視)할 수 있도록 취하는 시력 단련법이다. 앞서 상술(詳述)한 축소법(縮視法)과는 애초적으로 정 반대의 법인데 한 목적물에 집중하는 축소와는 달리 사방(四方)으로 산재해 있는 목적물 주변 상대의 동작을 한 눈으로 관찰하자는 의도(意圖)가 내포(內包)되고 있다. 이 시법(視法)은 많은 상대를 목표물로 삼는다

이것은 사방에 흩어진 상대를 시선, 행방(行方)을 다변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눈의 시향(視向) 신경을 쓰고 움직이면 피로가 빨리오고 당혹한 속도(速度)가 빨라진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패인(敗因)이 됨으로 이 영역(領域)을 벗어 나려는 법이 바로 산시법(散視法)이다. 연습 방법은 전방 12시 방향(方向)에 일정한 목표에 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고정(固定)된 목표 좌우안(左右眼)을 나눠 각각 삼방식(三方式)을 맡아서 틱플레이와 같이 취시(取視)하여 삼방 전, 우 좌, 우선을 살피는 연습을 한다. 두 눈동자는 움직이지 말고 두시관력으로만 나눠서 삼방(三方) 즉 앞과 왼쪽 옆 오른쪽 옆 방향을 살피는 습관을 키우는 법이다. 나중에 숙달됨에 따라 어느 한쪽을 고정시킨 눈이지만 주변을 고루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이렇게 예리한 시력을 키워나가면은 일단 유사시에 상대의 동태(動態)를 쉽게 파악할 뿐더러 안정된 행동을 취할수가 있게된다. 구체적 숙달방법으로는 좌, 우, 전방(左右前方)에 작은 물건을 나눠 옮겨놓고 그 물건을 한꺼번에 관찰하는 습관을 키우면 쉽게 주변에 흩어진 물동(物動)의 실정을 쉽게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수에게 둘러 쌓이면 산시법의 응용으로 상대방의 신체 부분중 단전(丹田) 배꼽 밑을 중심으로 주시하고 그 단전을 싹집으로 사방에 흩어진 상대의 동작을 살피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시선의 산시 방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응용해야 한다. 즉 왼쪽 눈은 왼쪽 앞면부터 왼쪽 뒷면까지의 백 이십도의 3방과 오른쪽 눈은 오른쪽 전면부터 오른쪽 뒷면까지의 백 이십도를 맡아서 다스리면 결국 전 방향 3백 6십도의 4방을 관찰하는 셈이 된다. 이와같이 숙달되면 최상의 산시법을 실시하는 셈이 된다.

#### 다) 변시련법(變視鍊法)

2, 3인의 상대와 맞설때 흔히 쓰는 시법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령 전방에 상대가 있을 경우 왼쪽에도 공격할 상대가 있고 뒤쪽에도 나를 둘러 싸고 있을때 이때 변시법을 써서 상대에게 임한다. 세사람 상대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상대에게 정면으로 자기 얼굴과 맞서게 된

다. 수기(手技)로서 대비할시 두번째 위험성을 지닌자를 노리고 반대쪽 수기(手技)는 위험을 방어하면서 빈약한자를 번시로서 대한다는 뜻인데 이 번시가 한쪽 눈동자만 상대의 방향에 완전 직시(直視)하자는 시법이다 요는 몇 사람의 상대와 겨룰때 필요한 속임수와 심리적 위험을 기르고자 하는 시법(視法)인 것이다. 마치 검사(劍士)가 몇 사람의 상대와 싸움에서 앞을 위협하면서 상대를 치고 옆을 찌를듯 하면서 앞을 찌르고 뒤로 물러날듯 하면서 옆으로 돌진(突進)하여 상대를 끌어버리는 유인(誘引)수법이며 배구나 축구경기에서도 전법상 많이 쓰는 동작이다. 상대의 속임수로 다양한 플레이를 구사(驅使)하는 이 번시법의 바로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시법이요 이 번시법의 수련은 한쪽 방향에 위험을 주는 자세를 취하면서 다른 방향에 눈동자를 한쪽으로 완전하게 옮겨 직시(直視)하는 반면 또 한쪽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눈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눈의 시향과 한쪽의 주기로 대비하는 시법이다.

연습방법으로는 방향 또는 사방향을 표적으로 삼고 연습을 하면 쉽게 통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 번시법은 일종의 심리법에 쓰이는 시법이고 또 전략적(戰略的)이며 고도의 두뇌 작전과 연관된 시법이다. 상대가 이 번시법을 봤을때 기술적 무력과 예측키 어려운 작전, 패인 트모션은 무슨 속셈인지를 헤아릴 수 없도록 혼들어 놓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재빨리 주위 상대를 판단하고 그 상대의 강약을 판단하여 표적의 단점과 장점을 취하고자할 판단아래 실수없도록 대처하는데 정확히 번시법을 응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상대가 다수(多數)일때는 먼저 공격 목표를 선택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유효함으로 더욱 깊이를 찾아 기술고자 한다.

#### 라) 조시련법(照視鍊法)

이 시법은 간접적인 시법인데 다른 직접적인 향시(向視)에 반해 어떤 물체 또는 환경상의 대상체에서 반사(反射)되는 조체(照體)를 간접적으로 취시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즉 자기가 소지(所持)하고 있는 무기나 상대방의 갑옷이나 단추에서 비치는 영체(影體)를 보고 주변의 사물을 알게되는 방법인데 이의 조시 대위물(對位

物)은 예를 들면 많다. 먼저 비치는 물체를 예거하면 건물의 유리창 거울 반짝이는 벽 목재의 당하, 천정에 매달린 전등체, 어항, 컵, 사기류, 가방등의 장식물, 철제물, 시계, 상대의 「테타이 핀」 연못, 숲통, 불, 바다, 개울, 그림자등 너무나 많다. 이와같이 우리생활 주변에는 얼마든지 산재(散在)하고 있다. 모두가 상대 또는 주변을 비쳐주고 또는 그림자 등 고도적(高度的)인 조시대위(照視對位)로서는 상대자의 안구에서 비치는 형체도 쓰임이 있다. 이러한 사물을 이용 주변환경을 재빨리 판독하는 방법이 유리한 시법(視法)이다. 그러나 만일 감각한 어둠속이라면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럴때 어둠속에서는 측시력을 발휘하여 전후 좌우 횡방(橫方)을 판독하여 이 조시법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 조시력의 단련은 주변의 조경체(照鏡體)를 찾아 거기서 나타나는 반사된 주변환경을 판독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쉽게 숙달할 수가 있다.

#### 마) 동시련법(動視鍊法)

동시법은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 ① 계단식 동시방법(階段式動視鍊法)
- ② 대방식 동시방법(對方式動視鍊法)
- ③ 이탐식 동시방법(移探式動視鍊法)

이 있는데 ①의 계단식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식으로 차례 차례로 시법(視法)하는 방법이며 ②의 대방식 동시법(動視法)은 전후 좌우 횡방의 각자 상대되는 방향으로 번갈아 시법(視法)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③의 이탐식 동시법(移探式動視法)은 지평식으로 종횡(縱橫)으로 나열된 상대를 차례로 진시하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방법으로 취하는 동시법(動視法)은 또 기억력과 빠른 판단력을 결드려 응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계단식의 동시 방법에서 ①②③ 순서대로 계단식으로 시법하여 지나면서 ①은 하수인급(下手人級) ②는 무엇 ③은 고수급 ④는 부 고수급 이런식으로 상대의 고하(高下) 강약(強弱)을 판별해 가며 동시하려는 방법이다. 고로 상당한 기억력을 추구하는 시법(視法)이기도 한데 이것도 평소의 꾸준한 연습과 수련으로 통달될 수가 있다. ②의 대방식(對方式)동시방법의 요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력과 판단력 그리고 빠르고 명석한 두뇌의 활약이 보조되는 도

시법이다.

보기를 들면 몇 사람의 상대방을 두고 있을때 앞 옆 등 뒤에 있는 상대방의 눈치를 판단하여 결과에 따라서 나의 자세와 방향과 대위기법(對位技法)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의 이탐식도 역시 ②나 ①과 같은 노력이 보조된다. 그리고 일상천리식인 종횡의 줄줄이선 상대를 한번 훑어 볼때 이미 이탐식 시법(視法)으로서 상대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A는 무슨 장점이 있고 B는 무슨 무기 C의 동작을 그중 누가 주도적인가 누가 강 약자인가 따위는 시독법을 익혀야 승패가 좌우된다. 고로 이동(移動) 시법(視法)은 한마디로 빠른

두뇌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시법(視法)이라고 보면 시법중에 제일 힘든 동시법(動視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법의 단련 방법으로는 어느 사람을 한번 보면 「체크」해 보는 방법으로 수시로 가정이나 회사 직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체크」한 것과 실제의 사물을 대조해 보는 식의 방법 또는 일초만에 전후 좌우를 쳐다보고 시선을 회수하여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하여 실제와 대조한다. 이것은 고도의 경지에까지 발전해 나가면 비단 태권도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천재(天才)는 99퍼센트의 탐과 1퍼센트의 영감(靈感)으로 구성된다.**

**<에 디슨>**

발명왕 에디슨의 말이다. 그는 인류의 은인(恩人)이요, 현대문명의 어머니다. 현대문명에서 에디슨의 발명을 모두 제거해 보라. 암흑(暗黒)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기가 없다면, 축음기가 없다면, 영화가 없다면, 전신기가 없다면 현대의 문명과 사회는 어두워질 것이다. 그는 일생 동안에 1,300종의 특허를 얻었다. 세계의 각국 교과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에디슨이다. 그는 미국의 많은 부(富)를 축적했고 인류에 한없는 문명의 혜택을 주었다.

우리는 에디슨을 발명의 천재라고 일컫는다. 그의 천재는 어디서 생겼는가. 99퍼센트의 탐과 1퍼센트의 영감(靈感)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땀을 영어로 퍼스피레이손(perspiration)이라고 하고, 영감을 인스피레이손이라고 한다. 두 단어의 말미(末尾)인 spiration은 같다. 영감은 땀의 산물이요 노력의 결정이다. 나타에서 영감의 빛은 솟지 않는다. 땀의 발에서 영감의 샘이 솟는다. 천재는 땀의 산물이다.

언제나 일하여라. 이것이 에디슨의 생활신조(生活信條)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생철학은 일하는 것이다. 우주(宇宙)의 신비(神秘)를 탐구하여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응용하는 것이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이상의 봉사의 방법을 나는 모른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시계를 보지 말라는 계명(敕命)을 남겼다. 퇴근시간만 기다리면서 시계만 들여다 보는 젊은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노는 향락(享樂)의 놀이터가 아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고 생산하는 창조(創造)의 일터다.

땀이 천재를 낳는다. 천재는 노력(努力)의 아들이다. 나는 에디슨의 말을 모든 한국인에게 보내고 싶다.



# 座擊破 修鍊記

— 돌擊破 小考 —

國技院새생활指導分科委員

建民體育館指導師範

李 完 培

## (I)

한 여름의 느낌이란 계절의 격렬함과 사회생활의 권태로움에서 누구나 숨가쁘게 느끼기 마련이다. 잠시 안정이 그리웠다. 집을 비운다는 「바캉스」의 맛을 느끼려고 모두들 도피행자인듯 싶다. 필자도 예의없이 천막과 배낭을 메고 가까운 산과 溪谷를 찾았다. 구태여 생생한 現實을 등지고 도피의 生活를 피함은 아니었다. 필자에게 피서의 妙法을 묻는다면 단연코 산과 溪谷이 으뜸이라고 말하고 싶다. 더위에 땀을 흘리니 그것 또한 시원함이고 頂上에 오를때 골짜기에 바람은 등골이 서늘 하리만큼 快感을 안겨다 준다. 인적이 드물고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친 편안한 곳을 찾았다.

참으로 이곳이 武陵桃園인듯 快感이 나왔다. 삼복중에 이런 自然을 찾음이 더위를 피하는 이유도 있지만 필자에게 더 貴한 값이 있었다.

평소에 跆拳道修鍊에서 오는 의문과 두려움인 擊破術을 터득 하겠다는 불타는 野心이었다. 모처에서 道場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 K관장과同行하게 되었다. 「擊破란 東洋武道の 힘과 精神에 結晶이요, 絶頂인 同時에 武藝의 極致이기도 하다」先人들의 말에 의하면 精神을 한곳으로 묶으면 쇠나 돌도 피뚫을 수 있다(精神一致



金石可透)나, 백번 연습하고 천번갈고 막는다(百練千磨)란 말도 있듯이 先人들의 表現속에 東洋思想의 진수를 끌어낼 수 있고 끈질긴 魔力을 느끼기도 하며 學文하는 길이나 武藝를 練磨하는 길이 어려운 반면 반드시 實現된다는 信念을 주는 힘찬 名句이다. 더더욱 武藝의 길은 피나는 努力의 產物이지 요행으로 얻어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많은 태권인들이 묵묵히 땀 흘

려 功들이는 소이언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본다.

천막을 정돈하고 修鍊계획을 세우고 現實에서 시달리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한곳으로 모우고 산 동성으로 동이트는 장엄함을 보며 맑은 새벽의 空氣를 흠뻑 마시고 壯하면서 숙연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鍛鍊石에 靜坐하여 俗된 마음을 虛空에 띄워 버리고 차가운 돌에 마음을 새기며 뼈가 저리는 修鍊이 始作된다. 돌을 사이에 두고 두사람이 마주 보며 치는 모습이란 과연 광인(狂人)의 姿態이리라. 쉽사리 미숙한 자신을 돌에 겨누워 보는 허황함을 시도하지 않기 위하여 천막 앞에 거북모양의 바위가 있는 그곳을 「거북바위 수련대」라고 명명하고 단련 場所로 定했다. 능선너머 절간에 세불공양 시간이 새벽수련시간이 되었고 저녁수련은 태양이 산마

루에 걸려 어둠이 질 무렵 그 포근한 自然의 품에 안겨 적막을 깨는 둔탁한 소리로 끝난다. 무더운 낮시간은 가까운 계곡에서 목욕도 하고 禪詩와 高僧들의 語錄과 禪問答集을 읽기도 하며, 유유히 오수를 즐기기도 한다. 수년전부터 필자는 擊破修鍊에 관심과 努力을 경주했다. 늘 呼吸에 對한 의문에 서적 탐독, 禪知識으로 生活하는 스님들과의 對話, 그리고 이 方面에 思索을 소홀치 못했음 이 남다른 奇癖이 되어 버렸다. 늘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왔다. 과연 人間의 약한 身體로 둘레 굳음을 깰 수 있을까? 宇宙 三大生命인 氣(命), 神(心), 精(身) 즉 念力を 일으키는 上丹田이요, 神은 기도력(祈禱力)을 축출시키는 中丹田을 뜻하고 精은 修道力을 發하는 下丹田을 말하는 三丹田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註一上丹田은 氣力이 發하는 곳으로 미간인당(眉間印堂)이요, 中丹田은 神力이 住하는 곳으로 명치구미(鳩尾)이며 下丹田은 精力이 生하는 곳으로 下丹田氣海이다.

上丹氣力은 뇌(腦)에서 發生하니 念力이 되고 中丹精力은 心臟에서 나오는 祈禱力이 되며 下丹精力은 腎臟에서 생기기 修道力이 된다)一氣, 神, 精을 지니고 있는 人間의 힘은 不可思議한 무한함을 느낄 수 있었다. 웅숭음치는 丹田氣海 속의 꿈틀거림이 공해없는 山間에서 무엇이든 깰 수 있다는 慾求가 일어났다. 자신은 늘 百鍊千磨한다는 마음으로 태만해지고 좌절되고 견뎌스런 마음과 싸우고 싸웠고 살아서 내부에 꿈틀거리는 힘의 폭발을 억제하면서 「거북바위」와 對話하며 분향하는 마음으로 修鍊臺에 功을 드렸다. 그동안에 修鍊의 말뚝이를 전져내어 알알이 피어 하나의 쓸모있는 구슬로 간직하고 싶었다. 꾸준한 修鍊은 계속되었다.

## (II)

서울 근교이지만 꽤나 산세가 좋아 예전엔 巫俗信仰(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했던 험려진 당터에 흔적이 여기 저기 보인다. 神을 위한 神을 맹종했고 運命은 바로 그들의 占에 依해서 結定되고 마는 절대적 허망을 믿는 순박한(?) 우리네 先祖들을 돌이켜 볼때…… 바로

人間의 吉凶禍福이 그들에 손가락 끝에서 놀림당했음을 보는듯하여 쓴 미소가 나왔다. 거북바위 수련대에서 등을 돌리면 깎아지른 바위 벼랑 앞에 우뚝한 彌勒佛像이 있다. 무려가 寺刹은 험려져 빈터이지만 이곳을 찾아 致誠을 드리는 아낙네들은 오늘날도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눈길이 마주치면 부질없이 소원성취를 비는 그 無知와 사치한 行爲에 쟁그러지기도 하여 外面해 버리기도 했고, 어느때 며칠밤을 새워가며 비는 그네들의 마음을 알고싶기도 하여 엿보기도 했다.

山神에 대한 祈願이고 道力이 크다는 미래불인 彌勒佛에 대한 念願이라고도 한다. 어느날 筆者는 바위에 걸터 앉아 깊은 想念에 잠겼다. 저 아낙네들이 바위 앞에서 열원하는 힘은 무엇이고 내가 거북바위에 정좌하고 수도를 단련함은 그 또한 무엇이 다른점이란 말인가? 계곡 너머 절간에 생사악해를 뛰어넘어 禪定三昧에 드는 스님들의 정진하는 그 마음은 또 무엇일까? 爲法亡軀하였다는 求道者의 단풍같이 붉은 마음을 조금은 가슴에 와닿는 듯했다. 어느 祖師法語集에 “應覺法界性”一切唯心造, (萬像이 변하는 그법칙 일체가 마음에 흐름인것)하는 萬法歸一한다는 哲理을 일깨워 주고 깨달음을 주는 듯했다. 웬지 모르게 그 아낙네들과 미소로 대하게 되었고 과일과 차도 서로 나누어 먹고 초와 찰도 서로 나누어 쓰게 되었다. 그 무엇을 위해 비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었고 단지 비는 마음과 精誠드리는 마음씨를 생각하며 어쩔 내 자신에 마음과 공감함을 느끼게 했다.

또 생각은 생각을 묻고 마음을 두드리며 어느덧 저 높은 창공에 구름처럼 몽게몽게 피어 올라다가 나뉘며 사라져 버렸다.

## (III)

어느 K교수의 花郎魂이란 글귀가 필자의 노트에 메모되어 있어 巫俗이란 의미를 이글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K교수는 花郎五戒에 대해 언급하면서 “圓光法師은 그것을 世俗의 五戒라 했다. 世俗이란 무엇인가? 佛教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것을 말한다. 佛教나 儒敎가 들어오

기 전부터 있었던 新羅人의 고유한 原始宗教 소위 제정일치시대의 祭儀로서 있었던것은 巫敎이다. 花郎의 비밀은 巫敎에 있었다. 사람들은 風流로서 그들이 名山大川을 찾고 神明과 접하고 神明과 통하고자 寺院이나 敎會를 찾는 精神으로 山川을 찾았던 것이다. 당시에 巫敎로서는 名山大川 靈山靈地에 神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 — 中 略 —

그들의 넋속에 神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神이 들어있었고 神에 통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마당에서도 神이 났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名山大川에서 접했던 巫神의 神이었던 것이다. 一下略

K교수의 學文的인 길은 思索과 길이에 共感되고 花郎의 魂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저 아나네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巫俗信仰이나 우리네 조상들이 神明을 갈구했던 마음이나 花郎들이 自然을 가까이 하며 修道正進했던 그 마음을 색달리 외색적이고 깊고 오묘한 宗教에까지 애써 견줄 까닭이 없다고 느꼈다. 筆者의 端坐精進, 舟母行功하는 마음이나 모두 일맥상통 할 이리까 생각된다.

저런 율대의 조상들이 希源하던 똑같은 마음의 修鍊이 오늘에 태전인의 修鍊의 마음일 것이다. 모두가 자연을 아끼고 진리를 사랑하는 지순한 마음의 동경에서 비롯된일 것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된다는 그 마음과 자연을 접하고 섬기면서 武藝를 연마했고 風流를 타하며 民族을 사랑한 花郎이나, 오늘에 靑年花郎도 아닌 20세기에 태전을 아끼는 필자의 마음이나 모두 하나의 뒹굴로 이어져 서로 脈이 通하는 自然愛요 眞理探究精神이라. 태전을 아끼는 이는 모름지기 자연을 벗하며 잊혀지고 때론은 마음과 道服을 맑은물에 씻는일을 틈틈히 가질일이다.

#### (IV)

세계속에 우뚝한 고유무예인 「태전」이 세계 도처에 우뚝한 구명과 그여운이 영구 하리라 믿는다. 西洋人들의 날선 과학화와 퍼뜩이는 예지

는 이 방면에도 더욱 과학화되고 이론이 체계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傳統武藝인 태전魂은 그 깊고 깊은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 한두바가지 주어 그들의 갈증은 씻어줄 수 있지만 태전의 기술을 빼앗아간들 우리의 오래오래 빌고빈 그 精誠과 같고 님은 그 연마한 마음을 빼앗을수는 없을 것이리라 태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태전인은 마음을 비우고 태전魂으로 생각해야하고 끊임없이 연마해야겠다. 과거에로의 鄉愁의인 위안과 되새김만이 傳統을 지키고 권위를 높일 수만은 없다. ●

새로움이 나와야하고 더욱 독특한 세계성을 오늘에 알맞게 우리속에서 뽑아내야 된다. 제한된글로 감히 표현키 어려움이 많다. 처음도 끝도 없는 도를 글로 운운함과 적은 修鍊으로 자신의 무지의 폭로요 얕음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끊임없는 修鍊속에 훗날 이 방면에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코져 노력하련다. 사툰 글이나 마 열정적인 후배들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 研究된 많은 修鍊記가 쏟아져 나와야 될줄안다.

修鍊精進함에 배일속에 감춰지고 구름이 피었다. 사라지는듯한 言語나 形象 이전에 表現키 어려운 공부일망정 태전인에게는 좋은 참고가 되고 또다른 研究에 실마리를 풀수 있을 것이다

주변 師範들의 요구와 응원에 용기를 얻어 아직 공개 試圖되지 않은 좌격파수련기를 쓰게 되었다. 坐對鍊이란 오래전 부터 사용되고있는 攻防技 용어로서 겨루기의 한범위에 속한다. 격파물 중심부에 視線을 뚫고 발은 격파물과 直線上에 놓아 팔목과 손날에 힘을 뚫아 온 重量을 속도에 실어 허리의 回轉을 이용 격파물에 일치 시킴이 일반적인 立擊破가 된다. 이때는 순간에 힘내기와 速度를 目標物에 겨냥하는 정확성과 고도의 精神統一이 출중할때 擊破는 이루어진다. 정확한 均衡, 姿勢의 完全度, 精神의 집중력 호흡법등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필자는 회피하나마 하나의 座擊破原理를 터득하게 되었다. 작두의 원리인 것이다. 마소(馬牛)에게 먹일 짚을 찌르는 그 연장을 상기하게 되었다. 서서하는 立격파 보다는 앉아서 하는 座擊破를 시도함은 짧은 角에서 힘내기란 速度의 조절과 균형의 불안정이 될등 어려움이다. 좌격



파란 최대한의 힘과 속도의 結集이요 짧게 잘라 버리는 작두의 원리라고 생각된다. 적은 소 여 물이나 콩까지 같은것은 작두날의 중간 부분이 나 손잡이 부분으로도 잘려진다. 그러나 더 강한 물체나 많은 물량은 날끝부분을 利用하여 힘 주어 끊는 것이 보통 관찰하게 된다.

이러한 힘의 원리의 터득이 좌격파의 원리라고 생각된다. 속도의 힘과 찌르는 힘이 축소되면 뿔수록 격파물은 더욱 強度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자을 줄이고 힘을 응축시키고 축소시켜 全力投球 시도해 본것이 좌격파다. 쉽사리 기분이오란 돌에 몸을 던져서는 안되겠다. 여기엔 오랜 수련과 연마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더욱 높은 강도의 격파와 좌격파 시도에는 고도의 精神力과 피나는 修鍊이 따를수밖에 없다. 머운 三伏을 지내고 심성합을 뽐내던 이 自然이 불계 물들더니 어느듯 낙엽이 지고 온누리가 별거숭이가 되었다.

천막을 걷고나니 쓸쓸함과 허전함이 더욱 컸다. 이것도 크나큰 자연의 攝理를 일깨워준다. 산을 등지고 하산길에 접어드니 어느덧 어둠이 내렸다. 마을을 지나 市內로 접어드니 불빛이 눈이 부시에 새삼 놀랐다. 촛불생활 50일이 이내 太古의일인양 싫다. 다행히 달로가 넘는동안 간간히 적어 두었던 修鍊日記가 있었기에 그가 운뎀 몇토막 간추려 두기로 한다.

## 「日 記」

### (I) 擊破三昧境 一九月 30日一

오늘 아침도 맑은 샘물로 온몸을 씻고나니 몸이 열기로 김이 무럭무럭 난다. 참으로 상큼함이다. 바위틈에 고인물이 오후가 되면 넘쳐 흐른다. 오늘은 유달리 물에 꼬마옴과 순수한 맛을 느꼈다.

빛깔도 냄새도 어떤 맛도 없는 그런 물이다. 한바가지의 물이 내장을 시원히 해주고 척추를 기어올라 머리를 개운케 하는 그런맛이다. 과연 산물이다. 한달가까히 山中生活로 접어들어서인지 나무, 풀벌레까지도 나에게겐 벗이된다. 어제는 다람쥐도 오늘의 그놈과 똑같이 보인다.

어젠 유심히 修鍊한 탓인지 허리가 쭈시고 손에 힘이 없다.

거북바위에 坐靜하고 아래를 바라보면 모두가 붉어 이내 피가 흐르는듯 단풍은 물결친다. 마치 空과 氣를 깔아넣었다. ㅈ하는것이 붉은 호 흡인듯하다. 허공을 치며 골돌이 생각함도 버리지 바로 執著인듯하다. 집착이 심하면 愛著이 되리라. 擊著한다는 一念도 버리지. 내일은 아무일도 하지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無念無想으로 나를 내버려 두어야겠다. 오랜세월 바위속으로 흘러들어 골이 패여 오늘엔 웅달샘으로 패여서 좋은 샘터를 자연히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擊破도 바로 물이 흐르는 이치 이리라 아무런 힘도없는 물방울이 모여 산머미같은 바위에 금을 낼수 있으니 말이다. 이물방울...계곡에물...폭포수...넓은 바다에 파도의 힘, 이런 自然의 造化가 擊破의 힘이라. 텐트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정적을 깬다.

### (II) 一10月 4日一

詩仙 李白의 故事가 생각난다.

磨鐵杆(마철저)란 쇠공이를 간다는 뜻이 아닌가? 젊은 時節 李白이 뜻을 품고 象宜山에서 下山길에 높은 노파의 奇行에서 얻은 教訓이라. 어쩌면 李白이 아니면 불수도 그걸수도 없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한 허탈감에 사로 잡힌다. 쇠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作業에 권태를 느낀다. 새벽녘에 手刀를 갈고 보니 뼈가 까맣게 다져 진 느낌이다. 肉身을 아끼며 무엇을 求할 수 있으랴? 나의 권태로움이란 나에게서 도망가려는 마음에서 오는것이다. 대장간에서 잡철의 동을 빼기위해 오래도록 두들겨야 좋은 비수를 얻을 수 있듯이 「마철저」하듯 오랜 修鍊일수밖에 없다.

쇠동같은 온갖 잡념과 권태로움을 두들겨 멸쳐 버려야한다. 求道하기 위하여 慧可大師는 팔도 잘라버리지 않았던가? 擊破功夫속에서 나는 생을 더욱 吟味해 본다. 擊破란 無心三昧이리라

### (III) 一10月 12日一

山中生活이 40日째로 접어든다. 형제봉도 서로 시샘하듯 붉게 물들었다. 오늘 새벽 山行에



서본 이듬모를 새들이 반가웠다. 山의 하반신은 모두 잊이 지기 시작하여 앙상하기 그지없다. 텐트 자리는 낙엽이 벌써 지기 시작하여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다. 靑年時節엔 낙엽이 낭만이며니 오늘날엔 우수를 던져준다. 나의 思考도 저 낙엽처럼 바뀌고 어느때. 나의 行動에도 군더더기 없이 허물을 벗으리라 自然을 보고 느낌에 人生은 自然의 적은 모방일 수 밖에 없다. 8월대보름의 둥근달이 포근히 천막을 감싸더니 오늘밤달은 미자게 줄어있다. 초가을의 山中은 쓸쓸하기 그지 없다. 내일은 지금껏 정성드린 시범을 해보는 날이다. 30年 이상 사진을 찍어왔다는 그분의 호의로 좋은 작품이 될것 같다. 아내가 찬거리와 식량을 가지고 올라 왔다.

아내의 정성이 고마움이다. 아내의 하산길을 등불로 밝히며 멀리했다. 하루하루가 달리 천막속은 습해지고 땅에서는 냉기가 올라 몹시도 싸늘하다. 오늘은 일찍 修鍊을 마치고 잠을 자두어야겠다. 몸에 오한이 들며 온몸이 쭈시고 꼬인다. 시범에 자신 없어지는데 초마져 다눙아 꺼지려한다.

#### (Ⅳ) —10月 20日—

어제밤꿈은 참으로 이상하다. 커다란 한옥집에 종놈으로 둔갑하여 늦식 향아리를 瀾氣나게 담는 꿈이다. 흥진히 밤이배어 눈을 뜨니 새벽 3時이다.

산안개가 희뿌어 시야가 안보였다. 날씨가 올씨년 스텝게 음산하며 가랑비마져 내렸다.

모아둔 돌을 몇개 골라서 바위에 올려놓고 고임돌을 든든히 했다. 6句이 다된 金先生이 촬영기를 한가방 메고 올라왔다. 山中에서의 약속은 더욱 호듯한 약속이었다. 고마움을 느꼈다. 먹히지 않는 점심을 먹고나니 오후 2時가 넘어간다. 먹지않는 가랑비를 맞으며 시범을 강행했다. 도복을 나무위에 늘 걸쳐둔 탓인지 젖어있고 내 몸처럼 후줄근했다. 어제밤 오한으로 상태가 좋지않았다. 연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일로 미루지 못함이 내 不動心었기 나도모르게 떠를 동여매고 “거북바위”에 올라 마음을 숙여 기원했다.

가만히 바위에 靜座하고 격파물을 보았다. 벽돌 한장의 두께보다 두꺼운 화강암이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않았다. 나는 카메라의 눈에 의식하지 않으며 김선생의 힘찬 신호에 격파하기로 했다. 대우주의 空과 氣를 소유주인 나의 肉身가 특히 말아넣어 팽팽히 터질듯한 氣運을 일으켜 虛空을 찌르듯 기압을 넣으며 몸을 돌에 던져버렸다. 나는 놀랐다. 앉아서 擊破하려고 생각은못했다. “거북바위”에 앉아서 座단련의 재현이 될줄은 미처 몰랐다. 가슴에 자신도 모를 탄축과 허탈이 감돌았다. 座擊破시도! 이 自信心을 더한 단련으로 몰입해야 겠다. 이것이 擊破 三昧境이리라.



◇ 연재소설 ◇

# 세컨드 - 윈드

2nd Wind

—白鴻—



## I. 소대장(小隊長)

차가 경춘가도에 접어들자, 현옥은 입관후 보병학교를 수료하고 첫 부임지인 양구로 향할 때의 심정을 떠올렸다. 「FM」에서는 마침 「드뷔시」의 바다(La Mer)가 흘러나왔다.

상미는 직업의식의 발동했는지 「드뷔시」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녀는 가련한 아내를 버리고 돈많은 아마추어 성악가인 발다르 부인과 사랑의 도피행각을 떠났던 「드뷔시」를 형편 없는 남자라고 헐뜯었다. 그런 상미에게 현옥은 물었다. “창작이란 변화를 뜻하는 거 아냐? 「드뷔시」가 설사 조강지처를 버렸어도 인상주의 음악을 완성한 업적이 있는 것은 어때?”

상미는 성썩해져서 이내 반격해왔다. “현옥씨는 그럼 여성예술가들이 창작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해도 괜찮아요?” “여자와 남자는 다르잖아?” “남자들이란 언제나 우매한 상태에서 진화할는지? 참, 적절이예요!” “남자가 진화하면 가슴이 뛰어나오거나 자궁이 생기거나 할까?”

현옥은 논리전쟁을 벌이면 상미에게 못당했다. 그래서 항상 역설과 농담으로 얼버무렸다. 아니 생각같아서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잘도 움직이는 상미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싶어한다.

소대장이 없는 채로 7개월이나 선임하사의 지휘아래 있었던 현옥의 소대는 선임장교가 부임해 온것을 환영했다. 특히 R.O.T.장교들은 일반적으로 사병들이 좋아했다. 그것은 기한을 정해두고 복무하는 같은 입장이라는 동류의식 탓이었다. 현옥의 소대원들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참 병장들 서넛과 하사관학교를 졸업한 하사들 그리고 강원도 탐방지역, 호남의 곡창지대, 영남의 해안 등, 출신성분들이 마구 뒤섞인 채로 40남짓한 이증사가 통솔하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현옥은 대대장에게 고지의 「병커」안에서 부임신고를 하고는 그길로 중대를 향해 하산했다. 훈련 중이면 중대는 텐트촌을 이루며 야영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땅을 네모나게 파고 그 위를 텐트로 덮어 흡사 지하

실같은 곳에서 지도를 펴고 직전계획을 짜고 있었다.

“신고합니다. 소위 리 현옥은……” 정식신고를 만류당한채 우선 손부터 잡아준 중대장 김대위는 첫 눈에 우수한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해! 형처럼 알고 잘 지내길 바라네.” 늦었으니 우선 소대로 가서 편히 쉬라는 중대장의 말에 기다리고 있던 전명의 안내로 소대로 갔다. 현옥은 부임해 오면서 지켜왔던 소양강의 맑은 호수를 두고 한 약속을 떠올렸다.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군생활에서 명예롭고 신뢰를 받는 지휘·통솔을 하리라.” 그의 소대원들은 퍼붓는 빗줄기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차렷! 소대장님께 경례!” 덕수열이 머뭇뭇한 선임하사의 구령을 막으며 현옥은 눈물이 핑 돌았다.

새벽 1시가 다된 시간까지 소대장이 오기를 기다린 소대원들의 모습에서 현옥은 난생 처음 곤적한 사명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왔읍니다. 긴 얘기, 앞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쉬기로 합니다.” 몽글한 가슴속에서 우려나온 첫마디였다.

이름날부터 현옥의 어깨에는 「카빈」소총과 파란 전장, 그리고 40명의 기대감이 얹혀졌다. 십씨 32~34도를 웃도는 성하의 작전명령에는 하루에 평균 100여리를 이동하면서 침투해는 적의 정보병여단 잔당을 섬멸하는 가상임무가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염천의 능선과 계곡은 구리빛 젊은이들의 충성심과 인내심이 한계를 시험하곤 했다. 쏟아지는 소나기는 목마른 장정들의 갈라진 가슴을 모한 난관 속으로 침잠시키면서 자칫 풀어헤치기 쉬운 전우대를 비껴가 매주곤 했다. 비오는 교통호 속에서 전우들은 습기로 눅눅한 화랑담배갑을 펼쳐 연기처럼 아련한 제각기의 고향을 나누곤 했다.

현옥은 물질자극으로 얼룩진 발을 설악의 계류에 담궈 식히며 비로소 상황에 따라 변하는

## ◇ 연재소설 ◇

인간의 가치관을 조금은 맞은 것 같이 느꼈다. 달아오른 신작로를 밟으면서는 십산유곡의 오솔길이 얼마나 시원했던가를 생각하면서도 막상 숲속으로 한없이 거어오른 소로(小路)에서는 길게 뻗힌 아스팔트를 연상하게 되는 병사들의 변덕을 현옥 역시 공감하곤 했다.

현옥의 소대에도 예의없이 인간사에서 비롯된 부조리의 그림자는 짙게 내리고 있었다. 긴 야영훈련에서 귀대한 소대원들이 내집처럼 찾아온 내부반에서는 전룡이라는 미명아래 고질적으로 스며든 고참 병사들의 횡포가 밤을 지배하고 있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병장들은 야간의 보조근무를 면제받고 있었다. 그것은 묵인된 특권이였다.

신참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신병훈련에서 배운 1시간 남짓한 야간근무시간이 실제로는 3시간 가까운 것에 처음에는 당혹해하고 나중에는 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게다가 밤마다 간부들이 희관하고 당직사관의 순찰시간을 피해 고참들의 술자리가 내부반에서 벌어졌다. 이런 일들을 현옥은 쉽게 눈치챘다. 선임하사인 이중사는 모른척하라고 넌지시 귀띔했다. 병사들의 자체적인 전통을 덮어두는 것이 내부반의 기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옥은 밤마다 시달린 신병들이 낮의 교육시간에 동유병자같이 휘적거리고 밤마다 술자리를 벌려 일조점호시간에 환자로 열의하는 고참병장들이 있는 한 소대원의 사기가 형편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현옥은 「B.O.Q」(독신강교숙소)의 편안한 침대에 펼쳐진 잠자리를 소대 내부반으로 옮겼다. 「트레이닝」북으로 갈아입은 현옥이 밤마다 내부반에서 동침하자 신병들은 배재를 부르고 고참들은 시큰둥해 했다. 현옥은 내부반장에게 야간근무자 편성에 소대장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주로 한밤중인 2시부터 3시까지에 현옥은 의파보초를 같이 섰다. 한 닷새쯤 짝지은 병사들과 번갈아 야간보초를 서면서부터 현옥을 바라보는 소대원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묵묵히 자기 할일에 충실하고 식사시간에다 밥한술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는 소대장의 조용한 술선수법에서 소대원들의 신뢰는 배가되었다.

하루는 소대장 전령인 김이규일병이 말을 걸어왔다. “소대장님에, 우짜면 그리도 짬뽕을 맛있게 드십니까요? 냄새나지 않냐고?” 현옥은 미소지었다. “김일병! 이 밥한술이 저기 후방에서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보내준 정성이라고 생각해보!” 현옥은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왕멸치가 섞인 무우국에 밥을 말아 맛있게도 먹곤 하는 것이었다.

어느 사이엔가 부하들의 입에서 나온 「체질」이라는 애칭이 현옥의 꼬리표가 되었다. 현옥의 노력에는 빼앗긴 나라를 등지고 이역의 외국인들로부터 빌어먹는 배추국과 빵 한조각에도 오직 조국광복의 의기로 투쟁했던 아버지 리전호씨가 스치곤 했다.

현옥이 부하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는 날이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분대장들이 내부반장과 함께 현옥을 찾아왔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을 때 소대장이 무언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지 않는가 해서 찾아 왔다는 것이었다. 현옥은 간단히 말했다. “우리는 서로 아끼는 전우의 우애를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고참들이 신병들의 취침시간을 뺏으면서 자기들은 편히 자는 게 전우이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아끼는 건가?” 그날 밤부터 고참들은 가장 졸리는 시간에 야간근무를 서겠다고 서로 자원했다. 현옥은 월남전의 용사였던 그들을 격려했다. “이제 두달 남짓하면 전역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긍지가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휴가를 받아 떠나는 영·호남지역의 소대원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현옥의 집에서 하루밤을 자고 떠나도록 편지를 써 주었다. 또 귀대할 때에는 고향의 부모들에게 여비이외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했다. 현옥은 매월 봉급날쯤이면 교양서적을 몇 권씩 소대내의 문고함에 기증했다. 흔히 있는 전방의 술집이 장교들의 스트레스를 풀기에 적당하다는 선배들의 「오리엔테이션」도 있었지만 현옥에게는 40명의 부하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현옥은 즐겁기만 했다. 적어도 인회의 마지막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현옥이 담배연기를 깊숙히 마시기 시작한 것은 그 때부터였다. 비지담에 후줄근한 천투복을 벗고 저녁마다 시린 설악의 계류에 몸을 담그며 내연(內燃)의 기합을 지르는 습관도 어느 사이엔가 몸에 배었다.

현옥의 굳게 다문 입술은 인희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이었지만 여자는 천리밖의 목시적 사랑의 맹세따위로 가라앉는 심장따위는 태초부터 가질 수 없었는지도 몰랐다.

현옥의 첫사랑도 예의없이 추억의 강에 띄워진 잎새같았다.

자조적인 상미의 빈정거림이 들려왔다. “인생은 어차피 잡지의 표지같이 너절하거늘……”

“그후에는 또 난 여자와 사랑놀음이 없었어요? 고매한 현옥씨!”

“그후부터? 찾길에 새주가에서 하루에 한여자씩 시식(試食)이라고 했으면 하나?”

현옥의 치밀한 절도는 적어도 겉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그럴 시간이 없었다.

한여름을 훈련 속에서 보내고는 가을에는 또 진지공사를 위해서 전방의 산야에서 뒹굴어야만 했으니까.

현옥의 이름은 전 연대안에서 유명해졌다. 추석날 받은 동생이 지도하는 도장에서 난라든 80여명의 꼬마들——태권도 수련생들——의 위문편지 때문이었다.

“대장님·사범님께 오징어다리 한개를 보냅니다.”

소대원들과 945m고지위에서 위문편지를 나누어 읽던 현옥은 연필로 눌러쓴 여섯번째인가의 편지봉투를 뜯고는 동심의 친진무구함에 끌려크게 웃고 말았다. 오징어다리, 제일 긴놈을 한개 동봉했던 것이다.

이 편지사태는 연대장, 대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한번에 80여명의 편지, 국민학생부터 성인여자 제자들에게 이르는 위문편지의 신기록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옥은 전역 후에까지 이 위문편지들을 R.O.T.C로서는 받기 힘든 공로표창장보다 더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인희로 인해 뒤뚱한 우울한 구름은 친진난만한 오징어 다리가 동봉된 한식이의 위문편지로

거두어지기 시작했다.

첫사랑은 깨어지는 아릿한 추억때문에 감미로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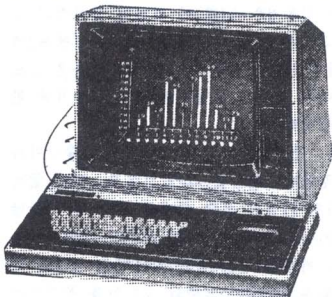
현옥은 청평댐이 보이자 군생활의 「파노라마」에서 깨어났다.

“남이섬에 가봤어?” “아뇨.” 「멘트」거리만들까?” “절해고도에 갇힌 아담·이브는 안돼는 거죠?”

결국 첫사랑은 누구의 가슴 속에도 조금씩은 남아있는 동경(憧憬)의 샘인 것이라고 현옥은 생각했다.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이성애의 환상이 빛은 미완성 「소나타」라거나 할까…….

## II. 남이섬

남이섬의 밤은 현옥이나 상미에게서, 서로 메울 수 없는 과거의 동경을 잇기에 충분한 별들로 뒤덮여 있었다. 현옥은 것처럼 많은 별자리가 강위로 떠올 수 있다는 점에 새삼 감탄했다. 상미 역시 매물차리 만큼 해맑은 눈을 들고 영점의 우주에서 빛나는 항성과 혹성, 그리고 위성들의 혼돈과 질서 속으로 합몰해 갔다.



현옥은 별을 보면서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지구라는 혹성위에서 처럼, 저 억만의 황도(黃道)로 궤도지어져 있는 어떤 별에서도 경이의 망원(望遠)을 하고 있는 또다른 생명체들이 있는 않을까 하는 공상을 했다.

「쟁·백쥐베리」의 어린왕자를 이야기하는 상미는 예(例)의 반부조리(反不條理)적인 말투가 아니었다. 대자연의 광대한 품 속에서 인간의

## ◇ 연재소설 ◇

흔탁한 숨결이 씻겨지는 것은 모든 생명의 모태인 지구별의 의의이기도 했다. 이같이 근원적 의의에 맞서려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숙명적 부조리라고 현옥은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우주의 의지는 생명의 잉태수단으로서 대립과 화합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해!” 상미는 내심 현옥의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과 동작 속에서 예리한 지성이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두부」인지 「시멘트」인지 알 수가 없다고.

현옥의 낭만은 특이했다. 범속(凡俗)의 남녀처럼 쉽게 접근해서는 쉽사리 등돌리는 주간지처럼 너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자조하곤 했다.

두 연인의 눈이 하늘의 별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의 마음 속은 서로의 눈 속에 간직되어 있는 별을 확인하고픈 열정으로 가득했다.

이 날 상미의 「멘트」는 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알프스·도메」의 「별」에서처럼 믿음과 순결의 모닥불이 지상의 희망을 비추고 있었고 땅위의 유한(有限)한 모닥불을 밤새 지켜보던 큰곰자리의 일등성(一等星)이 있었다면 남이섬의 밤 이후에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람의 「멘트」였다. 남이섬의 별자리를 헤아린 후, 현옥은 몸도 마음도 마치 흑한기 내한훈련 뒤에 냉수욕을 한 것처럼 청정해졌다.

현옥은 근 열흘 낯빛한 병가 후의 출근이라 새삼 긴장했다. 회사는 그가 없어도 잘만 굴러갔다. 마치 11명의 선수 중에서 1명쯤 최장당해도 경기는 계속 진행되는 축구장 같이…….

현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최계장은 부장의 지시로 새로운 「컴퓨터」기종의 도입안을 품의해서 중역실 결재를 맡아 놓고 있었다.

최계장은 고졸자로서 중견사원에 까지 이른만큼 눈치가 빨랐다. 평소에 현옥은 고졸 출신 사원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들이 지닌 대학 출신자에 대한 뼈아픈 「콤플렉스」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불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옥은 그들과도 진실이 교류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그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였다. 왜 고졸자의 평균임금의 대출자의 그것보다 반이상이나 적은가 하는 것이었다. 가령 대출자가 4년간 더 배웠다면 고졸자가 4년간 근무하면 적어도 대출자의 초봉보다 적지는 않아야 되는데 아니냐는 평범한 논리가 현옥으로서도 쉽게 공감이 갔다. 게다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 자네까지도 봉급이 적어서 못 가르친다면 과연 이 사회가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현옥은 사회에 이익을 환원시키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고 입버릇처럼 떠벌리는 재벌총수들의 철면피한 이율배반에 치를 떨었다. “이 땅의 많은 기업가들은 할 수 없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봉급장이들의 무능력 위에 군림하고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냐?”런 상미의 말도 어쩌면 순진한 표현인지 몰랐다. 아물든 최계장은 「모델·케이즈」로 승진한 회생양담게 고분고분하게 상사의 특명에 복종했다. 아니 어쩌면 그도 알고 있는 지도 몰랐다. 전산실의 요원들도 새로운 기종의 CPU(컴퓨터의 몸통아리)를 도입하느니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원들의 전산「체스텔」교육에 투자해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였다. 현옥은 분노했다. 40 가까운 최계장을 기안자라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었다. 자칭 「엘리트」라고 자부심이 강한 과장·부장은 소신도 없다는 말인가? 변히 중역의 능간이라는 것을 알고도 「Yes 맨」이 되는 지성인의 아부야 말로 배운자(者)의 횡포라고 이를 갈았다. 선배인 김과장은 현옥의 순수한 정열을 잘 달래려고 했다.

“이봐, 그게 뭐 중역선에서 끝나는 일인줄 알아? 사장님 아드님이 미국에 있는데 그 쪽에 잘 돈이야, 이사람아! 모른척 하지 않으면 어쩌나…….”

현옥은 깨달았다. 별이 안보이는 것은 별빛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서울의 오염 탓이라는 것을! 남이섬의 밤하늘이 맑은 이유는 바로 그곳이 「남이」장군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베르·까뮈」는 근원적 부조리를 파헤치려고 했다. 「이방인」에서

현옥은 마실 수록 맑아지는 포장집의 소주가 아마 맹물을 탄전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면서 발하늘을 노려봤다. 길게 별뚱이 이 지구혹성의 어딘가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현옥은 결심했다. 내일의 일에 대해서——. 어쩌면 「샐러리·맨」의 교별식이 될지도 모를 꼭예를 그려보면서 걸어서 걸어서 상미가 있는 여의도로 향했다. 이튿날, 현옥은 간단히 적은 보고문을 안주머니에 넣고 사장 비서실에 들어갔다. 보고문의 요지는 대충 이러했다.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결재계통을 밟으려면 이런 말씀은 평생가도 듣지 못하실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여 결례를 하옵니다.

——내 용——

이번의 콤퓨터 신기종의 도입전에 대해 업무 담당자로서는 명백한 경영방침에 기초한 반대 의견을 지니고 그 근거를 일차적으로 제시했음. 회사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기존업무는 물론 향후 3년이상 회사의 신규업무까지 처리가 가능한 전산실의 설비를 무시하고 또 다시 막대한 외화가 투입되는 신기종의 도입

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음. 게다가 공장에서는 조업단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전직하는 실정에 비출 때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됨. 현재, 회사내에서는 중역의 「코미션」수수료, 사장님 영식의 도미생활자금설 등,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음. 평소 사원들에게 밝히신 바 있는 경영철학을 신봉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하교가 있으시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음.

——리현옥배상——

평소 안면이 있는 비서실 「미스」유는 친절하게도 현옥의 보고문과 일차 검토안을 결재판에 끼여 사장실 테이블에 갖다 놓았다.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사표를 고무판 밑에 넣어논 채 태연하게 앉아 있던 현옥은 힐끗 부장을 쳐다 봤으나 퇴근시간까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예정대로 「콤퓨터」는 3개월내에 설치될 것이라는 「텔렉스」는 주말에 날라왔다. 현옥은 기획실에서 판매부로 전배명령을 받았다.

판매부는 「오일·쇼크」로 고전하고 있었다.

——계 속——

#### 〈지난 줄거리〉

현옥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상에서 어린날의 수련과, 집안의 내력이 얹힌 녹슨 육혈포에서 느낀 정밀감이 점철된 추억을 되새긴다.

그의 병상 곁에는 「아나운서」인 윤상미가 지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옥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여인상이었다. 퇴원한 현옥은 상미와의 「드라이브」중에, 대학시절에 있었던 반례모(Anti-Demonstration)적인 그의 행동과 R.O.T.C생활에서 있었던 첫사람이 인회와의 행적을 들려 주었다. 그의 전방 소대장시절에 인회는 결국 통속적인 결혼을 하고 현옥은 처음으로 한 여자로 인해 가슴앓이를 겪게 된다.

이런 현옥의 회상에도 상미는 그저 답답하게 귀를 기울릴 뿐이었다. 현옥은 그런 상미에게서 여성에게는 담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 아시아 태권도 임시총회

##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Meeting*



WTF 김운용 총재 축사  
Welcoming address by the President of WTF



체육부, 이영호차관 주최 오찬 환영사(세종문화회관 세종홀)  
Welcoming address by Vice-Minister of Sports at Luncheon



ATU 이상주회장주최 만찬(하얏트호텔)  
Dinner hosted by ATU President



일본 참관자  
Observer from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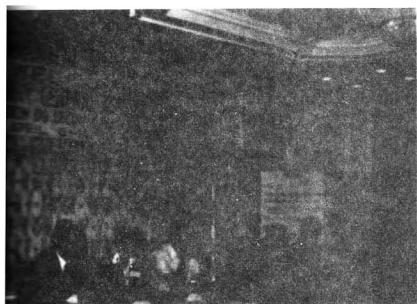


일본 참관자  
Observer from Japan



일본 참관자  
Observer from Japan





ATU 이상주회장 개회사(남서울호텔 회의장)  
Opening address by the President of ATU



ATU 실행위원들  
Members of ATU Executive Council



한국대표  
Delegate from Korea



말레이시아대표  
Delegate from  
Malaysia

필리핀대표  
Delegate from  
Philippines



인도대표  
Delegate from India



차니스타이페이대표  
Delegate Chinese Tapei

홍콩대표  
Delegate from Hong Kong



일본대표  
Delegate from Japan



마카오대표  
Delegate from Macao



# Visitors

## 손님들

국제군대 5종경기연맹회장 GEN. Sven Thofelt씨 국기원으로 김운용회장 예방  
President of Union Internationale de Pentathlon Moderne et de Biathlon Visit WTF.



Mr Sabino Hernandez, 에콰도르 NOC위원장 국기원 예방  
Dr Sabino Hernandez Martinez President of the Ecuadorian Olympic Committee Visit WTF.



Mr P.C. Jain. 인도수영연맹회장 국기원 예방  
Mr Jain President of Indian Swimming Federation Visit WTF.



제임스워럴 IOC위원(캐나다) 이 김운용총재로부터 명예회원증과 WTF기념패지를 받고 있다.

Dr. Kim pins a WTF Badge on the Vest of Mr. James Worrall. IOC member from Canada.



국제아이스하키연맹회장 군셀사베스키 김운용 총재에  
방,  
Dr. Kim awards KukKiwon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to Mr. Gunther Sabetaki President,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루스벨트 IOC집행위원(미국)이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 총재로부터 명예회원증을 받고 있다.

Mr. Julian K. Roosevelt, IOC Executive member Poses with his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이영호체육부차관에게 태권도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 총재.

Dr. Kim awards honorary DAN Certificate to Hon. Young Ho Lee, Vice Minister of Sports.



국제스포츠기자연맹 사무총장 마시모델라 페굴라(이태리)가 국기원을 방문 김총재로부터 명예회원증을 받고 있다.

Dr. Kim awards Kuk Kiwon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to Mr. Massimo Della Pergola (Italy), Secretary General of A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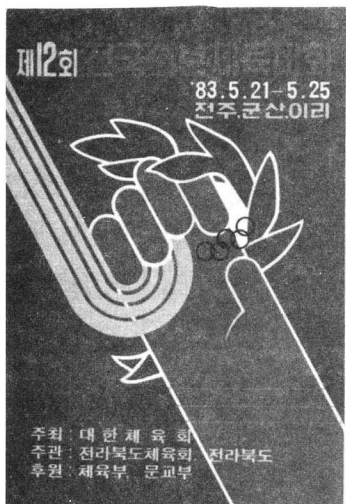
국제역도연맹사무총장 타마스아잔에게 WTF 뱃지를 달아주시는 김운용총재

Dr. Kim Pins a WTF Badge on Mr. Tamas Ajan, Secretary General, 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 from Hungary



김운용태권도세계연맹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IOC집행위원 레온(파나마)씨와의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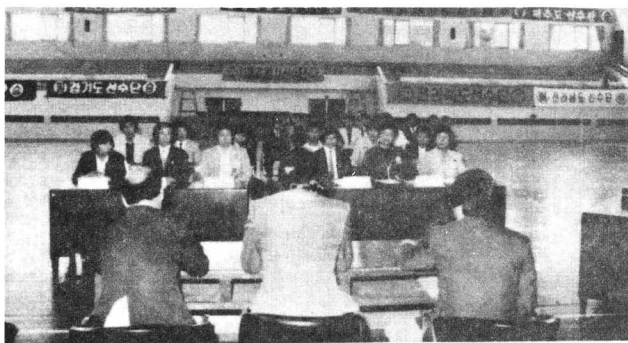
Hon Leon, IOC Executive member meets with Dr. Kim President W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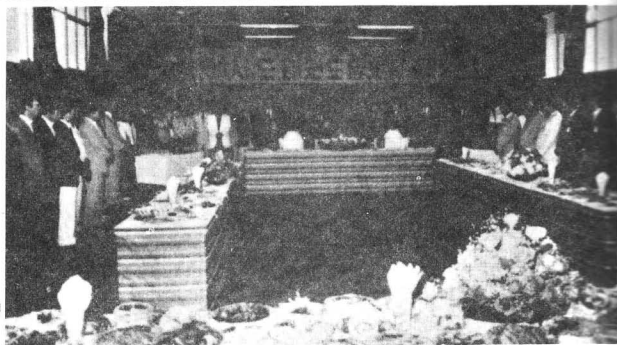
# “선진 질서, 선진 체전, 선진 조국”



김윤용총재를 비롯한 각시도 임원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대표자회의(13개 시도지부  
전무이사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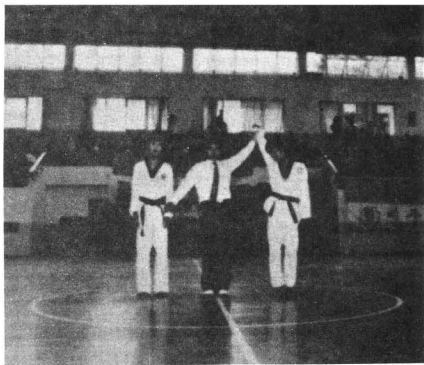


각 시도태권도임원 환영  
만찬(전주시청에서)





내고장의 명예를 걸고...



우승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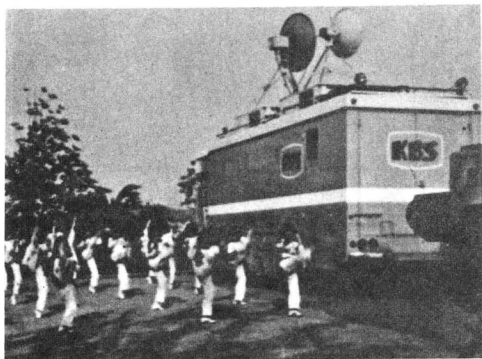


영예의 우승! 엄운규부회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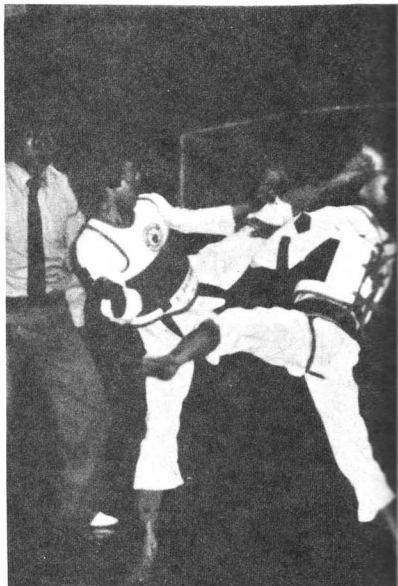


1위 서울  
2위 전북  
3위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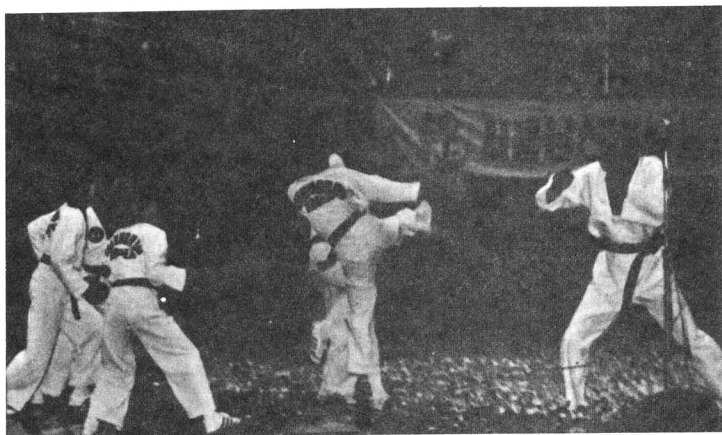
# 제 4 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상쾌한 아침입니다.” 생방송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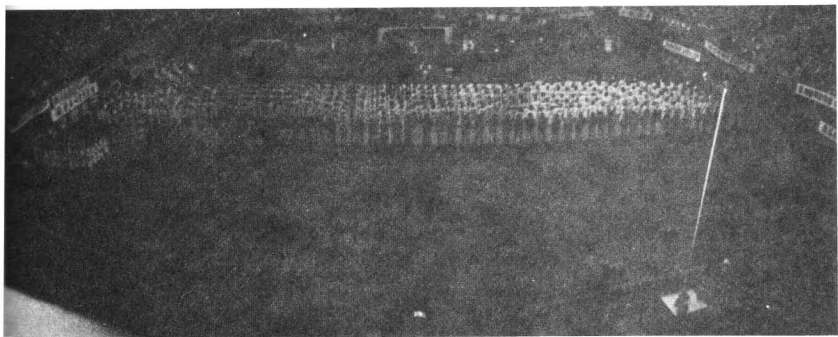


내가 태권왕이 되어야지!  
(겨루기 장면)



코메디언 이주일 아저씨와 태권도 겨루기

# 전국국민학교 단체 태권도대회



15,000명의 어린이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800여명의 선수와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대회장



멀리 제주에서 강원 진부까지 80개교 선수단이 참석하였다.



단체우승한 대림국민학교, 선수보다 큰 시계를!